이투데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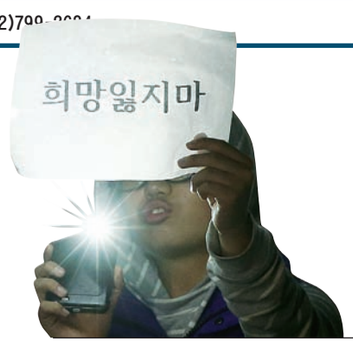
프리미엄 석간 경제지
ECONOMY TODAY

etoday.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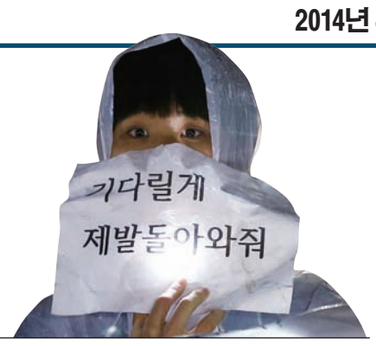
대표전화 : 02)799-2600 / 구독 : 02)799-2004

2014년 4월 18일 금요일 제888호

한국투자증권
온라인 투자 BanKIS®



조금만 더 힘내자





18일 오전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한 전남 진도군 조도면 병풍도 북쪽 3km 앞 사고 해상에서 비와 파도를 뚫고 구조대들이 수색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세월호 인양 위해 사고 해역에 초대형 크레인들 도착

선박 170척·잠수요원 530명 등 동원 실종자 구조 총력

가족 본격 구조작업에 "살아만 있어라" 간절한 기도

온 국민이 여객선 세월호 침몰사고 실종자를 구조할 수 있다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특히 구조작업과 인양작업에 나설 초대형 해상 크레인이 18일 진도 사고 해역에 속속 도착, 투입되면서 희망을 더욱 키우고 있다.

뒤집혀 침몰한 세월호 배 안에 공기가 남아 있는 공간인 이른바 '에어포켓'이 존재할 수 있는 만큼 여기에 생존자가 있을 가능성 때문이다. 18일 오전 현재 대형 크레인 두 척이 사고 해역에 예상보다 일찍 도착했다. 오후에는 삼성중공업 3600톤급 크레인이 사고 해역에 도착할 예정이다.

18일 구조작업 사흘째를 맞아 구조대는 본격적 선체 수색 작업을 벌인다. 전날 기상악화에도 불구하고 구조대가 선실 진입 루트 한 곳을 확보한 만큼 조류가 약해지는 오전 10시 20분부터 신속한 구조작업에 돌입, 생존자 찾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전날보다 기상상황이 좋은 만큼 수색작업에 속도를 낼 가능성이 크다. 잠수부들은 확보된 선실 진입 루트를 통해 생존자 구조작업과 선내 공기주입 작업을 시도하고 있다.

구조당국도 현재 구조선박 173척과 항공기 29대, 잠수부 532명을 동원해 에어포켓에 생존해 있을 실종자를 구하고자 힘쓰고 있다. 실제 지난해 대서양에서 발생한 선박 전복사고에서 에어포켓 안에서 72시간을 버틴 나이지리아 선원이 구조됐다.

전날 오후 8시께만 해도 사망자가 9명이었지만 구조대의 밤샘수색 작업에서 시신을 잇달아 발견해 10시 현재 사망자가 25명으로 늘었다. 구조대가 시신을 발견해 병원으로 옮길 때마다 가족들은 애끊는 심정으로 시신을 확인하면서 오열을 터뜨리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도 전날 오후 2시쯤 사고 해역에 도착해 생존자 구출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는 지시와 함께 진도체육관을 방문, 실종자 가족들을 위로했다. 이 자리에서 박 대통령은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질 사람은 엄벌에 처하겠다"며 "마지막 한 분까지 구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고 원인을 수사 중인 해양경찰청은 미숙한 3등 항해사가 물살이 빠른 조류를 만나 급회전하면서 세월호가 전복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빠른 속도로 가다가 급회전하는 바람에 배가 옆으로 기울어져 배 안에 실린 컨테이너, 화물차 등이 한쪽으로 쏠리면서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배가 전복했을 것이란 분석이다.

신동민·진도=유충현 기자 lawsdm@

세월호 침몰 사고 피해 현황
※18일 오전 10시 현재

승선인원	475명
구조	179명
사망자	25명
실종자	271명



18일 오전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한 전남 진도군 조도면 병풍도 북쪽 3km 해상 부근에 대형 해상 크레인이 도착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관련기사 : 2·3·4·5·13면

증권업계 칼바람 '잔인한 4월'

대형사들 속속 희망퇴직 발표

구조조정 인원 1000명 웃돌듯

직원, 생존권 사수 노조결성도

12년 만에 첫 적자를 기록한 증권업계에 또다시 구조조정의 칼바람이 몰아쳤다. 삼성증권이 지난주 선제적으로 희망퇴직안을 발표한 데 이어 하나대투증권과 대신증권 등 대형사들이 희망퇴직 대열에 가세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이달 들어 삼성증권과 하나대투증권, 대신증권이 전격적 희망퇴직 구조조정안을 발표한 상황이다.

실제 하나대투증권은 17일부터 24일까지 부부장 이상 3년 이상 근속자와 차장 이하 7년 이상 근속자를 상대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기로 했다. 희망퇴직자에게는 특별퇴직금으로 근속연수에 따라 10개월에서 24개월 수준의 임금이 지급된다.

장승철 하나대투증권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희망퇴직 인원수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며 "저수익·저효율의 증권업황에 따른 불가피한 경영효율화 조치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대신증권도 올해 상반기 안에 희망자에 한해 명예퇴직을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17일 대신증권은 77개 영업점과 본사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시행과 관련한 설명회를 진행했다. 대신증권 측은 "희망퇴직자의 구체적 처우 등은 향후 논의될 예정이고, 또한 임금피크제 도입 등 정관변경사항에 대해서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대신증권의 희망퇴직은 창사 이래 50년 만에 처음이다.

현재 통합작업 중인 우리투자증권과 NH농협증권까지 가세할 경우 이번 희망퇴직으로 여의도를 떠나야 하는 증권맨은 1000명을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증권이 10%에서 20% 수준인 300명에서 500명의 희망퇴직안을 밝힌 데다, 우리투자증권도 희망퇴직이 가시화되면 10% 수준인 300명 선에서 가닥이 잡힐 공산이 크다.

한편, 직원의 생존권 사수를 위해 노조까지 결성한 증권사도 등장했다.

HMC투자증권은 지난 16일 노조 설립 총회를 열고 지부 운영규정 마련과 함께 노명래 지부장을 초대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HMC투자증권 관계자는 "합리적 절차 없이 임금을 삭감해 위화감이 커진 상황"이라며 "불합리한 업무 환경 타개와 직원들의 생존권 사수를 위해 노조를 결성하게 된 것"이라고 배경을 밝혔다.

김경아 기자 kakim@

삼성전자, 이번엔 3차원 반도체 동맹

美 글로벌파운드리와 기술협력…애플·대만 TSMC 견제 포석

삼성전자가 세계 2위 파운드리 업체인 미국 글로벌파운드리와 3차원 반도체 동맹체제를 구축했다. 스마트폰 경쟁사 애플과 파운드리 시장 1위인 대만의 TSMC를 모두 견제하기 위한 선제적 압박으로 해석된다.

삼성전자는 18일 미국 반도체 파운드리 업체 글로벌파운드리에 '14나노 핀펫' 공정 기술에 대한 라이선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14나노 핀펫 구조의 반도체를 경기도 화성에 건설 중인 반도체공장(17라인), 미국 오스틴 생산라인에 이어 글로벌파운드리에서도 생산할 수 있게 됐다. 업계는 10나노 반도체 제품의 확산 속도를 배가시키는 것은 물론, 차세대 3차원 반도체 구조인 핀펫 경쟁에서 삼성 진영을 확대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글로벌파운드리는 14나노 핀펫 공정으로 제품을 생산할 경우 삼성전자에 일정 수준의 라이선스 비용을 지불하게 된다. 삼성전자가 생산공정 기술을 외부 업체에 제공하고 기술료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삼성전자가 연말 양산을 계획하고 있는 14나노 핀펫 공정은 20나노 평면 기술 대비 최대 35%의 전력 감소와 20%의 성능 향상이 가능한 장점을 갖추고 있다. 칩 면적도 최대 15%까지 줄일 수 있어 모바일 기기에 적합하다.

업계 전문가들은 핀펫 기술을 둘러싼 TSMC, 인텔과의 '3자 구도'에서 삼성전자가 한층 더 경쟁력을 갖게 됐다고 평가한다. 특히 애플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AP) 위탁 생산을 하고 있는 TSMC를 견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크다. 현재 애플은 TSMC, 삼성전자에 AP 생산을 맡기고 있지만, 기술적 우위를 재확인한 만큼 TSMC보다 삼성전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도를 만들었다는 분석이다.

핀펫 기술
반도체 소자의 저전력-고성능 특성을 구현하기 위해 기존 평면구조 대신 3차원 입체구조로 소자를 만드는 기술이다. 게이트 모양이 물고기 지느러미와 흡사해 핀펫이라 불린다.

삼성전자는 이번 협약을 추진하면서 글로벌파운드리가 기존 20나노 공정에서 검증된 후공정을 14나노 핀펫 공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마련했다. 공정변화에 대한 설계 부담을 최소화하고 빠르게 제품을 출시하기 위해서다.

삼성전자 시스템LSI사업부 우남성 사장은 "이번 협력은 원 디자인-멀티소싱의 장점을 14나노 핀펫 공정까지 확장시킨 진정한 오픈 멀티소스 플랫폼"이라며 "팹리스 업체들이 보다 쉽게 핀펫 기술에 접근, 제품에 적용시킬 수 있도록 하고 파운드리 사업과 고객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서지희 기자 jhsseo@

숫자로 본 NEW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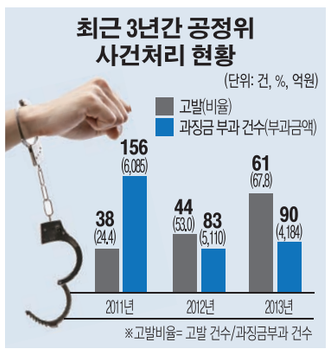
불공정행위 고발건수 늘어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 및 과징금 부과건수는 늘어난 반면, 과징금 부과 금액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가 17일 발표한 '2013년도 통계연보'에 따르면 작년 공정위가 고발한 사건수는 61건으로 전년(44건)보다 38.6% 증가했다. 같은 기간 과징금 부과건수 대비 고발건수 비율도 53%에서 67.8%로 1.3배 늘었다.

과징금 부과건수는 전년(83건)보다 8.4% 늘었지만 총 과징금 부과액은 4184억원으로 전년(5110억원) 대비 18.1% 감소했다.

전민정 기자 puri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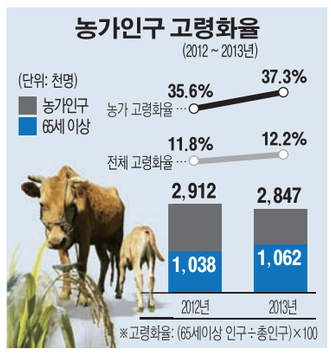
농촌 고령화율 3배 높아

농촌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농가 고령화율은 전체 고령화율의 3배에 달하며 농가 경영주 평균 연령도 처음으로 고령인구 기준인 65세를 돌파했다.

통계청이 17일 발표한 '2013년 농림어업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일 기준 농가인구 고령화율은 37.3%로 전년보다 1.7%포인트 높아졌다. 전체 고령화율 12.2%의 3배를 웃도는 수준이다.

농가인구 중 70세 이상이 26.5%를 차지했으며 60대(21.3%), 50대(20.0%) 순이었다.

전민정 기자 puri21@





Star 금요섹션 17~25면

커버스토리
아이돌, 대중문화 점령



이건희 회장 ▶8



민희경 부회장 ▶16

경제신문 이투데이 모바일로 만나세요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찍으면 모바일로 이투데이 뉴스와 지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안드로이드 앱)

토·일요일 신문 쉽니다 etoday.co.kr 온라인뉴스는 계속

인양 크레인 속속 도착…속도내는 실종자 구조작업

세월호 인양 예상 프로세스



세월호 침몰사고 현장에 대형 크레인이 속속 도착, 인양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구조가 활기를 띠고 있다. 대우조선해양의 3600톤급 해상 크레인이 18일 새벽 3시 사고 해역에 도착했다. 또 오전 10시께 해양환경관리공단 소속 2000톤급 설악호에 이어 삼성중공업의 3600톤급 해상 크레인도 도착한 상황이다.

크레인 3대가 당초 예상보다 빨리 사고 해역에 도착했지만, 실종자 가족들의 동의 절차가 남은 만큼 관계 당국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세월호가 밑바닥 펄에 박히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면 크레인이 배를 부양해 구조작업이 쉬운 곳으로 이동 가능하다.

하지만 인양작업 시 선체가 크게 흔들릴 수 있고, 이 경우 선체 내부에 공기가 찬 공간, 이른바 에어포켓으로 해수가 밀려 들어갈 가능성이 제기된다.

만약 생존자들이 선체 내부에 있다면 인양작업으로 되레 목숨을 잃게 될 우려가 있다.

인양작업은 먼저 잠수부들이 가라앉은 배 아랫부분에 쇠사슬을 밀어넣어 선체를 묶어야 한다. 묶은 선체는 와이어로 크레인과 연결해 끌어올리게 되는데, 이 과정에 선체 위치를 바로잡는 작업이 필요하다.

투입이 확정되면 선체에 체인을 연결하는 작업을 우선 시작할 예정이다.

현재 잠수부를 선체 내부로 진입시키려는 시도를 반복 중인 해경은 체인 연결 중에도 선내 진입을 계속 시도할 예정이다.

잠수부를 통한 선체 내부 진입이 어려울 경우 크레인 3대로 세월호를 들어 진입 공간을 마련한 뒤 수색과 공기 주입 작업을 돕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정확한 인양 방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크레인 3대가 각각 선박의 머리와 중간, 끝부분을 나눠 잡고 끌어올릴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세월호가 국내 여객선 가운데 최대 규모인 6800톤급이어서 크레인이 무게중심을 유지하며 동시에 인양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세월호는 2010년 침몰한 천안함 무게의 5배가 넘는다.



17일 오후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한 전남 진도군 조도면 병풍도 북쪽 3km 앞 해상에서 해경과 중앙119, 해상구난 민간업체 수중다이버들이 선내 진입을 위한 탐색선 설치 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인양시 선체 크게 흔들릴 경우 에어포켓으로 해수 밀려들어가 우선 쇠사슬로 선체 묶고 선체위치 바로잡는 작업 필요 최소 두달 이상 소요될 듯

내부에 어지럽게 널려 있을 화물과 자동차, 바닷물의 무게를 합치면 1만톤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2010년 침몰한 천안함 인양 때보다 난관이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천안함은 침몰 시점으로부터 1달 만에 인양됐지만, 세월호의 경우 인양 기간이 최소 2달 이상 걸릴 것이란 전망이다.

세월호가 천안함보다 5배나 무거운 데다, 천안함은 함수와 함미가 분리돼 크레인 두 대가 하나씩 끌어올렸던 데 비해 크레인 3대가 동시에 균형을 맞춰 가며 선박을 들어올려야 하기 때문이다. 자칫 힘의 불균형으로 배가 부서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

앞서 천안함은 당시 선체가 두 동강 나 중량 부담이 절반으로 줄었는 데도 인양에 한 달이나 걸렸다.

서용완 대우조선해양 전문위원은 "천안함 때는 90도 누운 상태로 수면까지 다 올렸지만, 지금은 (세월호가) 180도 뒤집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가 아주 어렵다"며 "선박 안에 남아 있는 인명과 화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선박을 바로잡은 상태에서 인양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구나 배가 가라앉은 지점의 유속이 최대 시속 10㎞로 조류가 상당히 빠르다. 이 때문에 쇠사슬로 선체를 묶는 데만 1개월 이상의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방재당국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선체 인양은 구조보다는 시신을 인양하기 위한 작업인 경우가 많다"며 "구조를 위해 인양을 서두를지는 신중히 검토할 문제"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경 등은 본격적 인양에 앞서 체인 연결 작업을 하는 동안 선체 내부 진입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된다.

강구귀 기자 kkk@

생존자 구조·세월호 규모·뒤집힌 선체…

전문가들 "인양조건 안좋다"

침몰한 '세월호' 인양을 위한 크레인 3대가 18일 오전 사고 해역에 도착했지만 현지 기상 등 여건이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고명석 해양경찰청 장비기술국장은 인양 과정에서 추가 희생자 발생 우려와 관련해 "그 부분은 전문가의 의견이 중요해 (해경, 해군, 민간 전문가가) 현장 상황을 보고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월호 인양 작업 시 선체가 크게 흔들릴 수 있고, 이 과정에서 선체 내부에 공기가 찬 공간, 이른바 에어포켓으로 해수가 밀려 들어갈 수 있다.

만약 생존자들이 선체 내부 에어포켓에 있다면 인양 작업으로 오히려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특히 세월호는 국내 여객선 가운데 최대인 6825t급 규모여서 3000t급 해상크레인 여러 대가 끌어올려야 하므로 인양 과정에서 선체가 흔들릴 가능성이 크다.

새 인양방법 '플로팅 도크' 제시

현대삼호중공업에 지원 요청

문제는 대형 크레인 여러 대와 전문 잠수사를 동원하더라도 인양 작업에 두 달 이상은 걸릴 것이란 의견이 많다.

지난 2010년 침몰한 1200t급 천안함 인양에도 30일이나 걸린 점을 감안할 때 천안함 무게의 5배 이상에 달하는 6800t급인 세월호는 이보다 시간이 더 소요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유로 선박 전문가들은 새로운 인양 방법으로 플로팅 도크를 제시하고 있다. 플로팅 도크는 바다 위에 바지선을 띄우고 이를 고정시켜 대형 선박을 건조하는, 하나의 움직이는 조선소라고 보면 된다. 한 선박 전문가는 "배가 가라앉은 지점의 유속이 최대 시속 10㎞로 조류가 상당히 빠르다. 이 때문에 크레인으로 인양한다고 가정했을 경우 쇠사슬로 선체를 묶는 데만 1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므로 플로팅 도크로 인양하는 게 시간을 단축하고, 안전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효과적이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당국은 현대삼호중공업에 플로팅 도크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현대삼호중공업이 지원하기로 결정한 플로팅 도크는 길이 300m, 폭 70m가량이다. 지난해 이 도크에서는 길이 290m의 LNG선을 건조하기도 했다.

박용남 기자 bangnam@

[롯데면세점 19일, 20일 패밀리 콘서트 연기 안내의 말씀]

롯데면세점은 여객선 침몰 참사의 슬픔을 함께 나누고 깊은 애도를 표하기 위해
이번 주말 예정되어 있던 **패밀리 콘서트**를 **연기**합니다.

롯데면세점 임직원들은 **실종자들의 조속한 구조와 무사 귀환**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이번 공연 연기로 인해
고객 여러분께 불편을 끼쳐드리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LOTTE DUTY FREE

*추후 공연 일정 및 출연진은 확정되는대로 공지 예정이니 티켓은 보관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망자 느는데 구조작업 더뎌…” 진도는 ‘눈물바다’

정부 부실대처 성토·도움 호소
“책임자도 상황실도 제대로 없어”
시신 인양되자 비통함 극에 달해

단원高 교장 등 무릎 끓고 사과
“아이들은 바다에 있는데…” 항의



전남 진도 앞바다 여객선 침몰 사고 사흘째인 18일 전남 진도군 임회면 팽목항에서 실종자 가족이 바다를 바라보며 자녀가 돌아오기를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던 중 오열하고 있다. 뉴시스

악몽 속 실종자 가족들 ‘발동동’

여객선 실종자 가족들이 18일 정부의 부실한 대처를 성토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호소문을 발표했다.

전남 진도 실내체육관에 모여 있는 실종자 가족들은 이날 오전 실내체육관에서 대표가 낭독한 호소문을 통해 “국민 여러분 정부의 행태가 너무 분해 눈물을 머금고 호소하려 합니다”라며 “아이들을 살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말했다.

가족들은 “사고후 놀란 가슴을 진정하고 뉴스를 통해 진행 상황을 지켜보다 모두 구조됐다는 발표를 듣고 아이들을 보러 현장에 도착했지만 실상은 어처구니가 없었다”며 “현장에는 책임을 지고 상황을 정확히 판단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고 상황실도 꾸려지지 않았다”고 성토했다.

이들은 “이 상황에서 아이들은 차가운 물속에서 살려달라고 소리치고 있었을 것”이라며 “민간 잠수부를 동반해 사고 현장을 방문하려 했으나 아예 배도 못 띄우게 하고 진입을 막았다”고 말했다.

또 “어제 현장을 방문했지만 헬기 2대, 배는 군함 2척, 경비정 2척, 특수부대 보트 6대, 민간 구조대원 8명에 불과하고 인원도 200명도 안됐는데 정부는 인원 555명, 헬기 121대, 배 69척을 투입했다고 거짓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가족들은 “거센 물살로 선체 수색이 늦어지면서 사망자 시신이 대거 수습되는데도 관계 당국의 대처는 부실하다”고 항의했다.

일부에서는 “수습된 시신 상태가 너무 깨끗해 선체에서 생존했다가 사망한 가능성이 크다”며 신속한 선체 수색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17일 오후부터 18일 새벽까지 16구의 시신이 인양되자 기다리는 가족들의 비통함은 극에 달하고 있다.

특히 시신이 친인척임을 확인한 가족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했다. 세월호 침몰 사고 사망자가 급격하게 늘어나자 진도체육관에 운집해 있는 700여명의 가족들은 발을 동동 구르며 불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실제 이날 오전 6시50분께 서해해경 수사과장이 이날 실종자 수색 상황을 브리핑했지만 고성이 오가는 등 극도로 예민한 반응을 보였다. 가족들은 “그런 것 필요 없다”며 “시신이 인양됐을 때 구급차도 없었고 수색하고 있다고 했는데 구조대원도 없었다”고 고성을 질렀다.

해경 관계자가 들어오면서 격앙된 학부모들이 무대로 뛰어들고 의자를 휘두르는 등 폭력 사태를 빚기도 했다. 일부 실종자 학부모끼리 몸싸움이 벌어지고 무대 뒤에서 다친 환자가 발생해 구급요원이 달려가기도 했다.

앞서 전날 밤에는 체육관에 단원고 교장이 있는 것을 확인한 학부모들이 교장에게 몰려가 언성을 높이는 일도 벌어졌다. 이들은 “교장이 먼저 학부모들을 찾아와 얘길해야지 무대 뒤에 숨어 있느냐”며 “아이들은 아직도 차가운 바다에 있는데 교장만 살아있는 게 맞냐”고 항의했다.

단원고 교장과 교사 10여명이 체육관 단상에 올라가 무릎을 꿇고 “죽을죄를 졌다”고 사과했지만 일부 학부모들은 물통을 던지며 분통을 터뜨렸다

실종된 단원고 학생의 이모부 오모씨는 “아이들이 선내에 살아있다는 얘기가 곳곳에서 들리는데 수색은 너무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며 “언론기사를 보면 100여명의 수색인력이 투입됐다고 나오지만 실상 현장을 보면 사람이 없다”고 성토했다

김성배 기자 sbkim@



17일 경기도 안산 단원고등학교에서 전남 진도 해상 침몰 여객선에서 실종된 학생들을 위한 안산시민 촛불 기도회가 열려 참석자들이 눈물로 학생들의 무사귀환을 기원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발 살아있길…” 온 국민이 울었다

민간잠수부 목숨 걸고 수색 벌여
어선들도 생업 포기한 채 구조작업

세월호 침몰 사고 발생 셋째 날, 생업을 포기하고 구조현장을 찾은 도움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 희생자 유가족과 함께 눈물을 흘리는 한편, 한 명의 실종자라도 더 찾기 위해 목숨을 내걸고 바닷 속으로 뛰어들고 있다.

17일 전남 진도 해안에서 세월호 침몰 구조 작업에 나섰던 민간 잠수부 3명이 실종되는 아찔한 소식이 전해졌다. 이들은 수색작업을 벌이기 위해 세월호에 올라탔고, 이 순간 높은 파도에 휩쓸렸다는 것. 다행히 실종 20분 만에 다른 민간잠수부들에 의해 발견돼 구조됐다. 세월호 참사가 더 큰 비극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아찔한 상황이었다.

정동남 대한구조연합회장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수색작업을 벌이던 연합회 소속 민간 잠수부 3명이 철수 중에 파도에 휩쓸려 실종됐다 20분 만에 수색작업에 나선 낚시배들이 발견해 구조했다”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이내 정 회장은 “파도, 유속, 시야 이 세가지 문제가 너무나 심각하다”며 “때를 맞춰 들어가야 하는데, 기상상태가 좋지 않아 걱정”이라며 실종자들을 걱정했다. 민간 잠수부들이 차가운 바닷속에서 사력을 다하는 동안 세월호 사고 희생자, 실종자 가족들을 위한 목소리도 들려오고 있다.

지난해 7월 사설 해병대캠프에서 발생한 사고로 목숨을 잃은 희생자 고교생 5명의 부모들은 세월호 희생자, 실종자 가족들을 대신에 마이크를 잡았다. 유족들은 “다시는 어른들의 잘못으로 학생들이 희생되는 사고가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외쳤지만, 대형 참사가 거듭 발생하는데도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지 못하는 정부는 머리 숙여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며 쓴소리도 마다하지 않았다.

또한 “절체절명의 순간에 있을 실종자들의 생환을 염원하며, 실종 학생들이 구조되지 못한다면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며 “지난해 태안 사고 당시 정부는 사고대책본부를 차리고 진실 규명과 책임자 처벌, 안전대책 등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아이들 장례식 뒤 태도를 바꿔 지금까지 약속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이밖에 자신의 생업을 뒤로 하고 사고 현장으로 달려간 민간 어선들도 구조작업에 큰 힘을 보태고 있다.

서지희 기자 jhsseo@

오바마·아베…각국 정상들 “구조지원”

美·英·中정부 등 “깊은 위로” 밝혀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해 세계 각국 정상과 정부가 애도의 뜻을 나타냈다. 미국과 중국을 비롯해 주요국들은 구조 지원 의사도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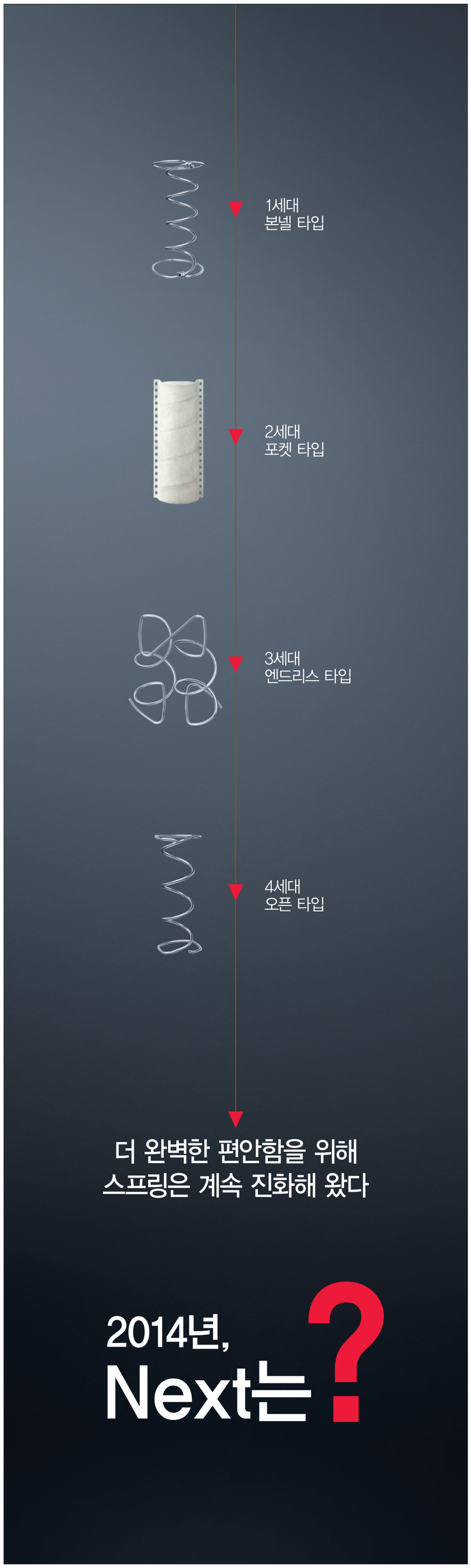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진도 앞바다에서 발생한 여객선 침몰 사고와 관련, 희생자 유가족을 위로하고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약속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틀 전 여객선 침몰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은 모든 유가족과 한국에 미국 국민을 대표해 깊은 위로를 전한다”며 “아직 정보가 들어오는 중이지만 이 끔찍한 비극의 희생자 가운데 상당수가 학생들이라고 한다”고 전했다. 그는 오전에 발표한 성명에서는 “미국 해군 및 해병대 병력을 사고 현장에 급파해 수색·구조작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우리 군에 한국의 요청이 있으면 어떤 지원이라도 제공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일본의 아베 신조 일본 총리도 이날 깊은 애도의 뜻을 표했다. 외무성은 아베 총리가 박근혜 대통령 앞으로 사망·실종 피해자에 대한 위로 메시지를 보냈다고 밝혔다.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은 윤병세 외교부 장관 앞으로 위로전을 보내 애도를 표하고 “한국 측이 수색 구조지원이 필요하다면 기꺼이 돕겠다”는 메시지도 함께 전달했다. 영국 정부도 “피해자 가족을 비롯해 실종자들의 구출 소식을 애타게 기다리는 모든 분에게 위로의 뜻을 보낸다”면서 가능한 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외에 베트남, 멕시코와 중남미 국가들도 잇달아 애도의 뜻을 표했다.

김나은 기자 better68@





해양사고 전문성 없는 중대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현장 구조상황 혼란만 키웠다

"시간 여유 있다" 초기 판단 착오
안행부서 '중대본' 구성 더 꼬여
"부처 실적주의가 화 키워" 비판

"사고 발생 초기 더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었는데 정부와 관계당국은 도대체 뭘 했느냐."

여객선 세월호 침몰사고가 대형 참사로 이어지면서 정부와 관계당국을 비난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거세다.

이번 참사는 세월호 선장과 승무원들이 기본적 대피 매뉴얼을 제대로 시키지 못해 대형 참사로 이어졌지만 정부와 관계당국의 실적 이기주의도 한몫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지난 16일 오전 8시 55분 제주 해상관제센터에 사고 접수가 된 이후 해양수산부는 서둘러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구성하고 구조 헬기와 구조선을 급파했다. 이때까지만 해도 사고수습이 순조로울 것으로 보였다. 당시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전문가들은 배가 50도 가까이 기울었어도 쉽게 침몰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사고 당시 해상교통관제센터(VTS) 제주센터와 세월호의 교신

08:55 **세월호 :** 항무제주, 세월호 감도 있습니까? **제주센터 :** 예, 세월호, 항무제주
세월호 : 아 저기 해경에 연락해 주십시오. 본선 위험합니다. 지금 배 넘어갑니다.

08:58 **세월호 :** 지금 배가 많이 넘어갔습니다.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빨리 좀 와 주십시오. **제주센터 :** 예, 양지했습니다.

09:00 **제주센터 :**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세월호 : 현재 선체가 좌현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컨테이너도 넘어가고.
제주센터 : 네 인명피해는 없습니까?
세월호 : 현재 확인 불가합니다. 선체가 기울어져 이동 불가합니다.
제주센터 : 네 알겠습니다. 인명들 구명조끼 착용하시고 퇴선할지도 모르니까 준비 좀 해주십시오. **세월호 :** 사람들 이동이 힘듭니다.
제주센터 : 네 알겠습니다.

09:05 **세월호 :** 해경 어떻게 됩니까? **제주센터 :** 네 지금 해경한테 통보했고요. 저희가 진도VTS랑 완도VTS에 통화 중에 있으니깐요 잠시만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이 같은 판단은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안전행정부에 전해졌다. 구조 헬기와 구조선이 도착한 시간은 9시 25분께. 이때부터 본격적 구조가 시행됐다. 하지만 문제는 이때부터 시작됐다.

배가 침몰할 때까지 시간적 여유가 있다는 판단에 구조요원을 서둘러 선실 내부로 투입시키지 않아 실종자 수가 늘어난 것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구조가 한창이던 10시 20분께 갑자기 안전행정부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를 만들면서 상황은 더 꼬였다.

지금껏 선박사고 발생 시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전문적으로 사고 구조와 수습에 대처해 왔는데 해양사고에 전문성이 없는 중대본이 설치되면서 중앙사고수습본부가 무력화됐다. 가장 큰 문제는 중대본이 윗선 보고와 브리핑 자료에 정신을 팔면서 구조 현황 등 지휘부의 판단을 흐리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굳이 해양사고에 전문성이 없는 중대본을 설치할 필요가 없는 상황에서 구성해 오히려 현장 상황만 혼란에 빠뜨렸다는 비난이 나오고 있다.

세월호 선장과 승무원이 무책임하게 승객을 남겨두고 먼저 대피하는 바람에 골든타임을 놓친 상황에서 정부와 관계당국 또한 실적 쌓기로 승객 구조의 시간만 낭비한 것이 아니냐는 아쉬움이 커지고 있다. 신동민 기자 lawsdm@



"우리 아이 살려주세요" 17일 오후 박근혜 대통령이 여객선 침몰사고 실종자 가족들이 모여 있는 진도실내체육관을 찾자 한 실종자 가족이 무릎을 꿇고 아이를 살려 달라고 애원하고 있다. 연합뉴스

"구조에 최선… 대통령 명령이다"

朴대통령, 진도 사고현장 방문
"마지막 한 분까지 구조" 할 것

박근혜 대통령은 17일 '세월호' 침몰사고 실종자 가족들을 만나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데 대해 철저한 조사와 원인 규명으로 책임질 사람은 엄벌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4시 20분쯤 실종자 가족이 머무는 전남 진도군 진도체육관을 찾았다. 박 대통령이 모습을 드러내자 실종자 가족들은 울분을 터뜨렸고 일부 실종자 가족들은 정부가 이틀간 한 일이 무엇이냐며 강하게 항의하는 등 고함과 욕설이 나오기도 했다.

단상에 오른 박 대통령은 "안타깝고 애가 타고 참담하겠지만 구조 소식을 기다려 주기 바란다"고 당부한 뒤 "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자원과 인력을 통해 수색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주변의 정부 인사들을 향해 "이분들에게 신뢰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 마지막 한 분까지 구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 실종자 가족은 실종자들이 살아 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박 대통령에게 보이며 "살아 있는 사람은 반드시 구조해야 하니 명령을 좀 내려 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박 대통령은 "현장의 모든 사람에게 '가족들이 얼마나 애가 타겠냐. 그들을 생각해 최선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며 "이게 바로 (대통령의) 명령"이라고 답했다.

박 대통령이 대화를 마치고 자리를 떠나려 할 때 일부 가족은 "대통령이 가고 나면 모든 게 그대로다"며 붙잡았다. 이에 박 대통령은 "오늘 이 자리에서 지키겠다고 한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여기 있는 사람 모두 다 물러나야 한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박 대통령은 의구심을 풀지 못하는 한 실종자 가족의 전화번호를 받은 뒤 "(현장에서의) 약속이 잘 지켜지는지 제가 전화를 드려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다.

진도=유충현 기자 lamuziq@

'해외·제주' 수학여행 느는데…

교육부 항공·선박 안전지침 全無
"공중도덕·예절지켜라" 내용만 명시

초·중·고교 수학여행(수련회) 또는 대학생 MT 등에서 대형참사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지만 이를 감독하는 주무부서인 교육부의 뒤늦은 대처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특히 전국 대부분의 학교가 수학여행을 제주도를 비롯해 일본, 중국 등으로 가면서 선박·항공편을 이용하지만, 교육부는 이에 대한 안전 매뉴얼조차 마련하지 않아 지적이 일고 있다.

17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안산 단원고 2학년 학생들은 여객선을 이용해 인천~제주를 왕복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교육부의 수학여행 지침에는 선박, 비행기 등에 대한 안전 매뉴얼이 전혀 명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가 지난 2월 일선 시·도교육청으로 보낸 '수학여행·수련활동 운영 안내' 지침에는 대형버스 등 운전자 적격 여부,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학생안전교육 등 자동차에 대한 안전 매뉴얼만 있을 뿐 선박이나 비행기 등에 대한 지침은 없다.

이 매뉴얼에서 항공·선박에 대한 지침으로는 △항공기 탑승 시에는 기내 반입 금지 물품을 반드시 확인하고 소지하지 않도록 한다 △다중 이용 시설(숙소, 식당, 선박터미널, 공항 등)에서 공중도덕을 지켜 예절 바른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내용만 적혀 있다. 김부미 기자 boomi@

‘세월호 침몰’ 지방선거 변수되나

여야, 사고 이후 선거운동 중단
정부 책임론에 새누리 악재 우려
‘늦은 공천’ 새정치는 시간 부족

여객선 세월호 침몰사고로 정치권은 6·4 지방선거 관련 일정과 주요 상임위원회 활동을 연기한 채 수습책 마련에 돌입했다. 여야 모두 지방선거에서 당분간 선거운동을 중단할 것을 지시했고, 소속 의원들에게 신중한 처신을 주문했다.

우선 경선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새누리당은 예정된 광역단체장 후보자 선정을 위한 당내 경선을 일주일씩 연기하기로 했다. 김재원 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회 부위원장은 17일 브리핑에서 “오늘 오전 10시부터 지방선거 관련 여론조사, 구호, 선거운동 등을 일체 중단하기로 했다”며 “(당 상징색인) 빨간 점퍼를 입는 것도 금지된다”고 했다. 새누리당은 이와 함께 ‘세월호 침몰사고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의원 및 당직자들에게 골프·음주 자제령도 내렸다.

새정치민주연합도 선거 관련 모든 일정을 중단토록 지역위원회와 시·도당에 공지했다. 당내 ‘여객선 침몰사고 대책회의’는 대책위원회로 격상하고 우원식 최고위원 등 4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임명했다.

그러나 선거전에 뛰어든 여야 후보들은 일정을 전면 중단하면서도 표를 계산하는 데 바쁜 모습이다. 무공천 방침을 둘러싼 논란으로 뒤늦게 지방선거 공천작업에 돌입한 새정치연합의 경우 뒤처진 후보들의 선거운동 시간을 벌어주는 상황이지만, 선거운동을 제대로 못해 곤란한 처지라는 하소연도 나온다.

정부 책임론이 확산되면서 새누리당에 악재로 작용할 거란 전망도 제기된다. 그럼에도 판세를 완전히 엎을 정도의 위력은 아니라는 게 대체적 관측이다. 새누리당 핵심 관계자는 18일 “세월호 침몰 사태로 민심이 크게 악화된 것을 느낀다. 이 문제를 수습하는 게 먼저”라면서도 “지방선거라는 게 지방일꾼을 뽑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사건 때문에 판세가 뒤집히거나 지지율이 뒤집힐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청와대 역시 17일부터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위기관리센터를 가동해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했다. 국회 상임위 일정도 줄줄이 연기됐다. 이날 긴급 현안보고를 계획했던 안전행정위원회는 사고 수습 이후로 미뤘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도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이 사고 수습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당분간 회의 일정을 잡지 않기로 했다.

임유진 기자 lim@



제대하고 뭐 할까 중소기업중앙회가 국방부 등과 함께 공동으로 개최한 ‘2014 전역예정장병 일자리 박람회’가 17일 경기 일산 킨텍스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장을 찾은 장병들이 채용정보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이번 행사는 18일까지 열린다. 최유진 기자 strongman55@

신통치 않은 세수… ‘규제완화’ 차질 우려

2월까지 53조3000억… 500억↓
각종 세금감면 정책 실행 미지수

연초부터 세금이 잘 걷히지 않으면서 나라 살림살이에 비상등이 켜졌다. 1~2월 목표 대비 세수 진도비는 금융위기 때보다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 정부가 경기회복을 위해 규제완화에 가속페달을 밟으면서 각종 세금감면 정책이 쏟아지고 있지만 신통찮은 세입여건 탓에 실행력을 담보하기는 어렵게 됐다.

기획재정부가 18일 내놓은 ‘4월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해 1~2월 누계 총수입은 53조3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00억원 줄었다. 연간 목표세수 대비 징수실적을 뜻하는 세수 진도비는 14.4%로 1년 전보다 0.4%포인트나 떨어졌다. 국세 진도율은 0.3%포인트 소폭 늘었으나 세외수입과 기금수입은 각각 0.7%포인트, 1.1%포인트나 하락했다.

특히 세수진도비 14.4%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은 2008년(18.8%)과 2009년(16.2%)보다도



낮았으며, 2010년(17.4%), 2011년(16.3%), 2012년(18.3%)에 비해서도 크게 뒤처진 수준이다.

작년부터 세수부족에 시달려온 탓에 올해 경제성장률 3.7% 달성이 가능하더라도 세입 여건은 여전히 어려울 전망이다. 최근 내년도 예산편성에 앞서 정부가 “재원대책 없는 지출은 없다”며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을 예고한 것도 이 때문이다.

이같은 세입 구멍으로 쪼그라든 나라 살림에 최근 정부가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규제개혁에도 제동이 걸리게 됐다. 내수진작을 위한 규제완화 정책의 일환으로 세금 감면 혜택을 늘리는 각종 요구안들이 검토되고 있지만 기재부가 세수부족 우려에 난색을 표하고 있어서다.

관세청은 17일 ‘민관합동 규제개혁 추진단회의’에서 확정된 142개 규제개혁 과제를 발표하면서 외국여행자가 면세범위를 초과한(400달러 이상) 물품을 세관에 스스로 신고하면 세금을 감면하는 방안도 관계부처와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작 법 개정의 키를 쥐고 있는 기획재정부는 소극적인 입장이다. 관세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관계자는 “당초 물품을 자진 신고할 때 10% 정도 세금을 깎아주는 안을 기재부에 제시했지만 감면 여부에 대한 협의조차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높은 감면율까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기재부 관계자도 “이러한 정책이 해외여행객 등 일부 국민에게만 돌아가는 수혜인 만큼 비과세 감면 혜택을 줄 정도로 타당성이 있는 방안인지를 검토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도 최근 문화·관광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규제개혁을 주장하며 세금 얘기를 많이 하는데, 세금이 행정 절차상 규제라면 풀어야 하지만 세금 자체는 규제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전민정 기자 puri21@

근로시간 단축 불발… 노사현장 이슈로

勞, 52시간안 vs 재계, 60시간안 ‘대치’… 노사정 소위 논의도 못해

근로시간 단축을 논의한 노사정 소위가 사실상 무산되고 이에 대한 대법원판결을 앞두면서 현장 대란이 예고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산하 ‘노사정 사회적 논의 촉진을 위한 소위원회’는 17일 오전 대표자회의를 열어 52시간 단축으로 중지를 모았으나 재계 쪽에서 8시간 연장근로를 포함한 60시간 안을 들고나오며 논의 자체가 무산됐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주 40시간 근로를 기본으로 하면서 당사자가 합의하면 주당 최대 12시간까지 연장근로를 허용한다. 여기에 고용노동부 지침으로 주말 휴일 근로가 16시간 가능하기 때문에 최대 68시간까지 일할 수 있다. 하지만 노동계는 이에 대해 고용부 지침은 법적 근거가 없다며 맞서왔다.

정부와 전문가들은 근로시간 단축 합의 불발로 제2의 ‘통상임금’ 대란을 우려하고 있다. 앞서 대법원은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려 별도의 합의가 없었던 노사정 모두 혼란을 겪은 바 있다. 이를 논의할 노사정위 또한 노조의 불참으로 현재까지 구성조차 어려운 상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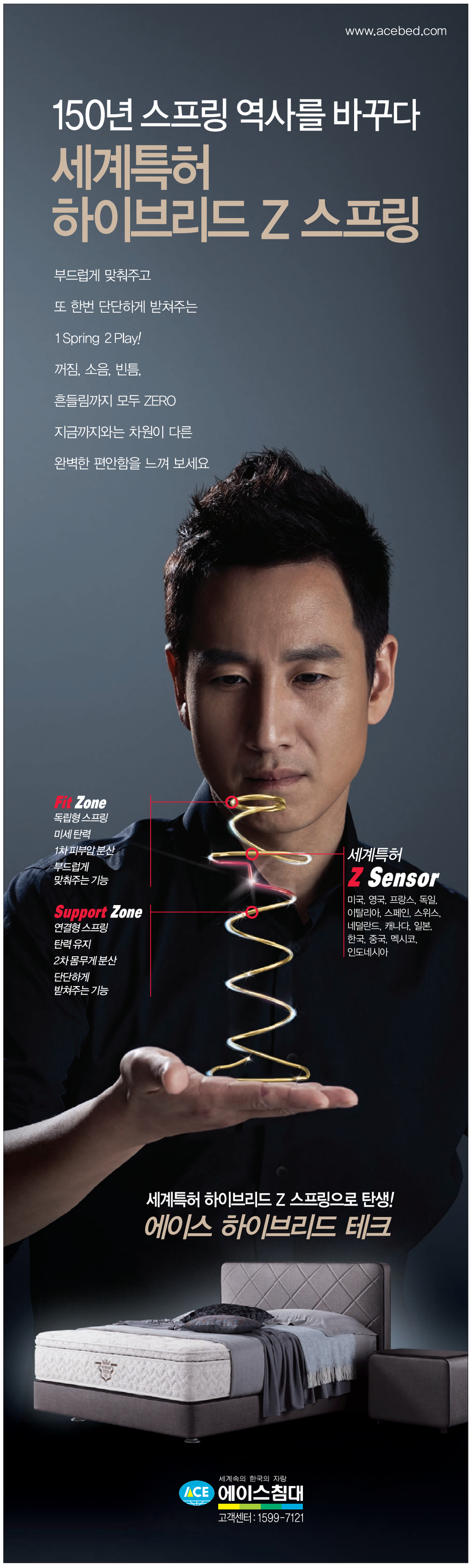
일각에선 ‘근로시간 단축’ 또한 동일한 행보를 따라가고 있다는 판단이다.

현재 법원은 토·일요일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된다는 취지로 판결을 내려왔다. 성남시 환경미화원들이 토·일요일에 하는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된다는 점을 확인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1·2심 재판부 모두 미화원들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또한 대법원에는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해당하는가를 판단하는 사건의 선고가 예정돼 있다.

대법원이 1·2심 재판 결과를 인용해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된다고 판결하면 ‘휴일 근로시간은 연장 근로시간에서 제외된다’는 2000년 9월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무효가 된다. 또한 기존처럼 평일에 연장근로 한도를 채우고 휴일에도 일을 시키면 불법이 된다.

소위에 참여했던 한국노총이 52시간보다 후퇴하는 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라 합의 도출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김희준 기자 h9913@



김종준 중징계… 다음은 KT ENS 대출사기

〈하나은행장〉

문책경고에 거취 고민…김승유 前회장도 주의적 경고
내년 3월까지 임기 채울 수 있지만 사퇴 가능성 높아
금감원, KT ENS 대출사기 임직원 연루 조사 진행중



김종준〈사진〉 하나은행장이 결국 '문책경고'라는 중징계를 받아 거취를 고민해야 할 상황에 처했다. 또 김 행장에게 옛 미래저축은행 투자를 지시한 김승유 전 회장도 주의적 경고에 해당하는 징계를 받아 금융당국이 하나금융 전 현직 경영진에 대해 강력한 제재 결정을 내렸다.

특히 KT ENS 1조원 대출사기와 관련해 하나은행 임직원 연류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사가 진행중이어서 향후 불법 행위가 드러날 경우 후폭풍이 거셀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17일 회의를 열어 미래저축은행에 대한 부당 자금지원으로 손실을 입힌 김 행장에게 문책경고의 중징계를 내렸다. 김 전 회장에 대해서는 주의적 경고를, 관련 임직원 5명에게는 감봉 조치를 내렸다. 김 행장 지난 2011년 하나캐피탈 사장 시절 김 전 회장의 지시를 받고 미래저축은행 유상증자에 참여했다가 60여억원의 손해를 본 것에 대한 조치다.

이번 징계로 김 행장의 경우 내년 임기 만료 후 3년간 금융회사 임원으로 재취업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김 행장 의지에 따라 법적으로 내년 3월까지 임기를 채울수 있지만 금융당국으로 부터 사실상 퇴출 선고를 받은 터라 은행장직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하나은행 내부적으로 김 행장이 조직을 위해 용퇴를 택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외부적으론 금융당국이 외환은행 카드 분사 승인 계속 지연하면서 간접적으로 김 행장 사퇴 압박을 유도할 것으로 보여 자리보존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앞서 금감원이 김 행장에게 문책경고라는 중징계를 사전통보할 당시 하나은행 안팎에서 차기 행장 후보들이 거론되기 시작했다. 김병호 부행장과 함영주 부행장 등이 유력 차기 행장 후보로 꼽히고 있다.

하나캐피탈 사건은 당초 김 전 회장을 타깃으로 진행됐다. 하지만 구체적인 정황 증거를 찾기 어려워 김 전 회장에 대한 제재는 경징계로 마무리됐다. 김 행장은 이날 제재심위에서 김승유 전 회장의 지시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없었다"고 답했다. 김 전 회장과 하나캐피탈 사건은 관련이 없다는 점을 유독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행장이 토사구팽을 당하는 처지가 됐다는 분석이다.

안철우 기자 acw@

신한銀, 불법 계좌조회 정치인 아닌 직원 가족

정관계 인사 동명이인으로 밝혀져
직원들 개인목적으로 1292회 조회

신한은행이 불법으로 계좌를 조회한 것으로 알려졌던 정관계 고위인사는 동명이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직원 가족 계좌를 불법으로 수백건 조회한 것으로 드러나 해당 직원에 대해 징계를 내릴 방침이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정치인 계좌 불법 조회 혐의로 신한은행에 대해 특별검사를 벌인 결과, 신한은행이 정관계 고위인사 계좌가 아닌 은행 직원의 가족 계좌를 무단으로 조회한 것을 적발했다. 가족 계좌 조회 역시 엄연한 불법이므로 금감원은 신한은행과 해당 직원에 대해 규정에 따른 제재를 내릴 방침이다.

지난해 10월 김기식 민주당 의원은 신한은행이 지난 2010년 4월부터 9월까지 박지원 전 원내대표 등 야당 중진의원들을 포함한 정관계 주요 인사 22명의 고객정보를 불법으로 조회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금감원은 신한은행 경영감사부와 검사부가 그 기간 동안 조회한 150만건에 대해 전수 조사를 벌였고 이 과정에서 직원의 가족 계좌 불법 조회 사실이 드러났다.

금감원은 계좌 불법 조회 혐의가 제기된 22명 가운데 15명은 이름만 같았고 나머지 5명은 정상적인 거래 과정에서 조회됐으며 나머지 2명은 과거에 이미 제재를 했던 건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해 7월 신한은행의 개인신용정보 부당조회 및 금융거래 비밀보장의무 위반 등을 적발해 기관주의와 함께 임직원 65명에 대한 문책 조치 및 과태료 8750만원 등의 제재를 내렸다.

신한은행은 2010년 7월부터 2012년 3월까지의 기간 동안 경영자문료 횡령 혐의 등의 자금추적 과정에서 신한금융 사외이사를 지낸 양용웅 재일한국인본국투자협회장의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하는 등 고객 동의 없이 329차례나 신용정보를 조회했다. 또 신한은행 직원 50명은 개인적 목적으로 개인신용정보를 1292차례 조회했고 고객의 금융거래정보를 예금주 동의 없이 타인에게 넘겼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정치인 계좌 불법 조회의 경우) 대부분 동명이인이었고 정상 조회됐던 5명도 은행 사외이사와 감사로 유명 정치인 및 관료와는 거리가 멀었다"고 말했다.

김지영 기자 gutjy@

현대해상 中법인 유상증자

지점 확대… 車보험 판매 박차

현대해상이 중국 자동차시장 영업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중국법인 유상증자를 실시한다. 현대해상은 중국법인 유상증자로 확충된 자본을 바탕으로 지점을 확대할 계획이다.

1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현대해상은 이사회를 열어 자사 중국법인인 현대재산보험(중국)유한공사의 유상증자를 추진 안건을 통과시켰다.

현대재산보험 유한공사는 지난 2007년 3월 베이징에 설립됐으며, 현재 북경과 청도지역에 자동차보험을 판매하고 있다.

특히 현대재산보험 유한공사는 지난해 중국보험감독위원회로부터 상품 판매 최종 인가를 받고 최근 본격적인 자동차책임보험 판매에 들어갔다.

책임보험은 자동차 운전자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기 때문에 외국계 손보사들이 중국시장에 앞다퉈 진출하고 있다.

현대해상은 중국시장에서 본격적인 자동차보험을 판매하기 위해 유상증자를 실시하고 이 자본으로 올해 강소성 지역에 추가적인 지점을 설치할 계획이다.

현대해상이 중국시장 영업에 드라이브를 거는 이유는 자동차보험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재현 기자 nfs0118@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경제 이슈 성장확대로 변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18일 오전 서울 남대문로 한국은행 본관에서 열린 은행장 초청 금융협의회에서 "세계경제의 주요 이슈가 위기대응, 금융안정이었으나 이제는 어떻게 하면 성장세를 높이냐로 바뀌었다"며 "과거 성장을 주도하는 것은 신흥국이었으나 이제는 선진국으로 넘어갔다"고 설명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이건호 국민은행장, 이순우 우리은행장, 서진원 신한은행장, 김주하 농협은행장, 권선주 중소기업은행장, 홍기택 산업은행장, 하영구 한국씨티은행장, 이덕훈 수출입은행장, 김한조 외환은행장, 아제이 칸왈 스탠다드차타드(SC)은행장, 이원태 수협은행장 등 총 11명의 은행장이 참석했다.

노진환 기자 myfixer@

영업정지 카드 3사 수익 늘어날 듯

마케팅 비용 줄며 단기적 이익

KB국민·롯데·NH농협카드 등 정보유출 카드 3사가 영업정지에도 불구하고 수익이 증가할 전망이다.

18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영업정지 두 달째를 맞는 카드사들이 영업정지 여파에도 불구하고 신규 회원 유치를 위한 마케팅 비용 등의 감소로 1분기 순익이 직전 분기에 비해 늘어날 전망이다. 비용이 크게 줄어 단기적으로 수익이 늘어날 것이란 분석이다. 이에 앞서 카드 3사는 3개월간 신규 모집 중단 등에 따른 영업손실액을 1000억 원 이상으로 추산했다.

한 카드사 임원은 "아직 실적이 공개되지 않았지만 영업정지 카드사들의 비용이 줄어 단기적으로 이익이 늘어날 것"이라며"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이용금액이 줄어 수익이 악화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순익이 늘어나도 카드 3사의 점유율 하락은 불가피할 것이라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또 영업정지 기간이 끝난 이후 4분기까지 비용이 증가해 타 카드사와 격차가 벌어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신규 모집을 유치하지 못한 여파로 카드 3사의 시장점유율은 0.5~1%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카드업계는 이미 성숙기에 접어들어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시장점유율 1%를 올리는데 1000억~5000억원의 투자를 해야 할 정도로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다.

반면 같은기간 정보유출 사고를 피한 카드사들의 점유율은 소폭 상승할 전망이다.

박엘리 기자 ellee@

국민은행 '스토리 금융'으로 신뢰 회복

성과관리체계 개편… "실적보다 고객에 도움 되는 상품 판매"

KB국민은행 올해의 키워드는 '스토리가 있는 금융'이다.

최근 일련의 사건으로 잃어버린 고객의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위대한 KB국민은행'이라는 비전을 달성하자는 목표가 녹아 있다.

'스토리가 있는 금융'이란 고객 한사람 한사람에 대해 알기 위해 노력하고, 고객의 상황과 니즈에 맞는 상품을 제안함으로써 '은행에 대한 고객가치 극대화'가 아닌 '고객에 대한 은행가치 극대화'를 추구하는 것이다.

그 동안 소홀했던 고객중심의 사고, 다시 말해 고객을 이익 창출의 대상으로만 인식했던 데 대한 반성에서 출발한다.

먼저 가장 크게 눈에 띄는 변화는 성과관리체계인 KPI (Key Performance Indicator)의 전면적 개편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3개월간 고객지향적 성과관리TF를 운영해 개선 방안을 확정했다.

또한 과거 영업점간 과다한 경쟁과 무리한 영업의 원인이됐던 지점장 종합평가 기준도 대폭 개편해 재무성과 결과보다는 과정과 역량에 대한 평가를 강화했다.

고객만족도조사(CSI) 역시 획기적으로 개선해 영업점장이 고객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실질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변화할 예정이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스토리가 있는 금융이 영업문화로 성공적으로 정착한다면 그동안 은행직원의 상품권유가 부담스러워 은행방문을 꺼리던 고객들도 편안하게 영업점을 방문해 필요한 업무를 보실 수 있을 것"이라며 "직원들 또한 실적을 위해 상품을 권유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에게 도움이 되는 상품만을 판매함으로써 금융전문가로서의 자긍심을 높이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박선현 기자 sunhyun@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4-177호

2014년도 지역연고(전통)산업육성사업 지원 계획 공고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반영하여 선정된 지역연고(전통)산업 분야의 특화품목을 중점 육성하여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지역연고(전통)산업육성사업」 지원내용을 안내하오니 관심 있는 기관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4년 4월 1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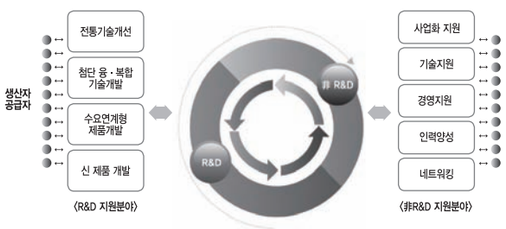
1. 사업목적 및 지원내용

○ [목적] '지역기업 및 주민 주도로 지역내 특색있는 자원과 IT · BT · NT 등 첨단기술의 융복합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지역연고(전통)산업'을 발굴 · 지원
-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주민 체감형 일자리 창출에 기여
- 지역행복생활권에 기반한 과제를 우선 지원하여 사업의 효과를 인근 지역까지 확대

○ [지원내용] 지역내 특화자원을 활용하는 기업 및 지역공동체의 기술역량(R&D)과 사업화 역량(非R&D분야) 강화를 위한 기업지원 과제를 지원

목표 지역 기업의 매출 증대 및 지역주민 체감형 일자리 창출

지원내용 (지역특화품목 관련 지역기업 및 지역공동체의 역량강화 지원)



2. 지원분야 (39개 특화품목)

○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반영하여 선정된 지역별 특화품목(39개) 관련 분야
※1차 산업 중심, 단순가공식품, 기 생산제품(차별성 없는)에 대해 지원 불가

3. 지원규모 및 기간

○ [사업규모] '14년 국비 110억원(총 20개 내외 신규과제)
- 지역행복생활권으로 구성된 지역에서 신청하는 과제는 우선 지원하되, 광역시 · 도별로 균형있게 지원 (시 · 도별 최대 3개 과제 지원)

○ [매칭기준] 국비의 10% 이상을 지자체에서 현금 매칭 필수
* 단, 기초지자체가 국비의 5% 이상 매칭할 경우, 우대배점 부여

○ [지원기간 및 규모] 총 3년*, 과제당 年 5억원 내외
* 당해연도 사업기간 : 2014. 7월 ~ 2015. 6월 (12개월)
* 매년 연차평가를 통해 계속지원 여부 결정

4. 신청 자격

○ [과제형태] 지역행복생활권 과제, 기초지자체 단독과제, 연계과제 형태로 신청 가능
① 지역행복생활권 과제라 함은 '지역별 지역행복생활권 구성'에 해당하는 지역이 연계하여 신청하되, 지원대상이 되는 수혜기업 · 기관이 2개 이상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과제(우대배점 3점)
* 과제협약 이후 선정된 수혜기업이 2개 이상 지역에 분포되어야 함
② 기초지자체 단독과제라 함은 특정 기초지자체를 지정하여 해당 시 · 군 · 구 내에 있는 수혜기업만을 지원대상으로 하는 과제
③ 연계과제라 함은 2개 이상 기초지자체 또는 기초지자체와 광역지자체를 연계(지역행복생활권과 다르게 구성된 경우)하여 해당 지역에 있는 수혜기업을 지원대상으로 하는 과제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R&D 또는 비R&D 등 기업지원 기능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
- 주관기관은 해당 광역시 · 도 내에 소재해야 하고, 참여기관은 소재지 제한 없음(수도권 소재 기관도 가능)
* 영리기관인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설립(창업)한지 1년 이상된 법인사업자에 한함

5. 공모 방식

○ 지정공모 : 해당 광역시 · 도별로 도출된 특화품목에 한함
※지역별 특화품목(39개) RFP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참조

6. 지원유형

○ (R&D) 전통기술개선, 첨단기술 융 · 복합, 수요연계형 제품개발, 신제품개발 등 사업화에 초점을 둔 융 · 복합 R&D(필수)

○ (비R&D) 기술지원, 사업화 지원, 기업지원서비스, 인력양성 등 동 과제를 통해 개발된 제품의 사업화를 위해 필요한 비R&D(선택)

7. 유의사항

○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RCMS) 적용 대상 사업임

○ 본 사업은 기술료를 부과하지 않음

○ 본 사업은 기업지원사업으로 연구 및 생산 장비구축은 원칙적으로 제한함

○ 연구개발사업 수행자의 연구윤리확보를 위하여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등"의 연구부정행위 적발시 그 결과에 따라서 관련 법령 및 요령에 의하여 관련자의 징계 및 정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조치 등이 이루어질 수 있음

○ 교육부 지정 「2014학년도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의 경우 참여는 가능하나, 간접비 등 대학 내 흡수성 경비는 현금사업비 산정 불가

8. 과제선정 절차

특화품목 도출 → 특화품목 발굴 → 시행계획 공고 → 과제 및 사업자 1차 선정 → 과제 및 사업자 2차 선정

지역생활권, 시 · 군 · 구 → 시 · 도 및 시 · 군 · 구 협의 → 산업부 → 지역사업평가원 (지역산업평가단) → 전담기관 (KIAT)

○ [과제 신청] 신청(주관)기관은 공고시 제시된 지역별 특화품목을 활용하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계획서를 지역사업평가원*으로 제출
* 지방비 매칭 확약서 제출 필수(3년간 매칭 확약)
* '14. 접수 및 문의처' 참조(지역별 지역산업평가단으로 제출)

- 해당 지역(지역행복생활권)내 소재하는 제조기업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여 동 사업을 통해 성장가능성이 있는 타겟 기업군 설정
- 해당 특화품목 관련 기업에 대한 지원필요성 및 시장성, 타겟 기업군 현황, 과제지원을 통한 성장가능성, 고용창출 가능성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작성

○ [과제 선정] 지역사업평가원에서 접수과제를 대상으로 1차 선정평가위원회 개최 후, 전담기관으로 결과를 보고하면 전담기관에서 2차 선정
- (1차) 지역별로 접수된 지역행복생활권 과제와 시 · 군 · 구 과제 전체를 대상으로 지역사업평가원에서 선정평가위원회 개최
* 광역시 · 도별 접수과제를 대상으로 각 지역산업평가단에서 선정평가
* 광역시 · 도별(세종시 포함) 선정평가 1순위 과제는 중복 등 중대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선정(14개 과제 이내)
- (2차) 지역별 선정평가 결과 후순위 과제 중 지역행복생활권 과제만 대상으로 전담기관에서 추가 선정(지역구분 없이 6개 과제 내외)
* 단, 지역행복생활권 과제가 없을 경우 시 · 군 · 구 단위 과제 추가 선정

9. 과제수행 절차

[협약체결] — [과제기획 및 컨설팅] – 협약체결 후 3개월 內 — [사업수행]

과제선정 및 협약체결 → 수혜기업 선정 → 해당 기업 현황 세부 분석 → 기업특성에 따른 지원 프로그램 구성 → 세부사업 계획서 작성 → 사업수행 (~3차년도)

○ [협약체결] 전담기관-주관기관-참여기관간 협약체결 및 국비 지급
- 주관기관은 선정평가의견을 반영한 수정사업계획서 작성 및 협약 관련 서류 준비

○ [과제세부기획 및 컨설팅] 협약체결 후 공모를 통해 수혜기업을 선정하고 해당기업에 대한 세부 현황분석을 통해 구체적인 지원프로그램을 구성(협약체결 후 3개월 이내)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은 선정된 수혜기업을 대상으로 R&D에서 사업화까지 맞춤형 지원프로그램을 구성하고 기관별 역할분담 등 세부 사업계획서 작성
- 수혜기업 선정 및 분석, 세부 사업계획서 작성 과정 등에 대한 전문가 컨설팅

10. 지원절차 및 일정

공고	사업계획서 접수	1차선정 평가위원회 (현장실사 · 평가)	2차선정 평가위원회 (서면평가)	결과통보 및 이의신청 처리	지원과제 확정, 협약체결
4.18 ~ 5.18	5.19 ~ 5.23	6.2 ~ 6.17	6.18 ~ 6.25	6.26 ~ 7.8	~ 7월말
〈산업부〉	〈지역사업평가원〉		〈KIAT〉	〈지역사업평가원〉	〈KIAT〉

※ 상기 평가일정은 지역사업평가원별로 달라질 수 있음

○ 사업설명회 일정

일 시	장 소
4.24(목) 14:00 ~ 16:00	JW 매리어트호텔 서울 미팅룸5 (L층)
4.25(금) 14:00 ~ 16:00	대전테크노파크 대전지능로봇산업화센터 1층 멀티미디어 강의실
4.28(월) 14:00 ~ 16:00	부산테크노파크(엄궁동) 114호
4.29(화) 14:00 ~ 16:00	광주테크노파크 본부동 2층 대회의실

※ 상기 평가일정은 지역사업평가원별로 달라질 수 있음

11. 신청기간

○ 온라인 접수기간 : 2014.5.19(월) 09:00 ~ 5.21(수) 17:00까지

○ 신청서류 제출기간 : 2014.5.19(월) 13:00 ~ 5.23(금) 17:00까지

12.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입력 및 접수증 출력) → 신청서류 제출(방문 제출)
☞ 온라인 입력매뉴얼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및 지역별 지역사업평가원 홈페이지] 참조

○ 온라인 접수처 : http://www.ritis.or.kr
* 온라인 접수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조기에 입력완료 요망
* 마감일 17시 현재 접수증 발급이 완료되어야 신청서류 접수 가능
* 온라인 접수가능 용량은 60MB 임

○ 온라인 접수 문의처 : 02-6009-4390

○ 신청서(양식) 교부 : 사업계획서 양식, 지역별 특화품목(RFP), 제출서류 등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www.kiat.or.kr) 및 지역별 지역사업평가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신청서류 제출처 : 해당 지역별 지역산업평가단에 방문 제출
* 우편 또는 택배를 통한 신청서류 접수 안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13. 관련 법령

○ 지원근거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1조(지역산업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 관련규정 :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등 세부규정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 참조

14. 접수 및 문의처 : 지역사업평가원 및 지역별 지역산업평가단

기관명		문의전화	주 소
충청지역사업평가원 (http://chungcheong.irpe.or.kr)	대전지역 산업평가단	042-930-4401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9로 35 지능형 로봇센터 207호 대전지역산업평가단(305-510)
	충남지역 산업평가단	041-589-0111, 0131	충남 천안시 직산읍 삼은리 506번지 종합지원관 2205호 충남지역산업평가단(330-816)
	충북지역 산업평가단	043-270-2715	충북 청원군 오창읍 양청리 685-1번지 선도기업관 3층 충북지역산업평가단(363-883)
호남지역사업평가원 (http://honam.irpe.or.kr.)	광주지역 산업평가단	062-602-7410, 7411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333(대촌동 958-3) 본부동 2층 광주지역산업평가단(500-706)
	전남지역 산업평가단	061-286-4387, 4397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전남도청 민원동 3층 전남지역산업평가단(534-700)
	전북지역 산업평가단	063-219-2215, 2216	전북 전주시 덕진구 반룡로 110-5 본부동 2층 전북지역산업평가단(561-844)
대경지역사업평가원 (http://dg.irpe.or.kr/)	대구지역 산업평가단	053-818-9590, 9591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387, 4층 대구지역산업평가단(706-817)
	경북지역 산업평가단	053-818-9563, 9565	경북 경산시 삼풍동 300번지 글로벌벤처동 4층 2403호 경북지역산업평가단(712-210)
동남지역사업평가원 (http://dongnam.irpe.or.kr)	부산지역 산업평가단	051-315-9261~9264	부산광역시 사상구 엄궁로 70-16 1층 112호 부산지역산업평가단(617-829)
	울산지역 산업평가단	052-219-8574, 8575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15(다운동) 기술혁신A동 301호 울산지역산업평가단(681-802)
	경남지역 산업평가단	055-259-3402, 3405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로 18번길 22 본부동 2층 207호 경남지역산업평가단(641-460)
강원지역사업평가원 (http://gwirpe.or.kr)	강원지역 산업평가단	033-258-2683	강원도 춘천시 강원대학길1 청정산업신기술센터(한빛관 203호) 강원지역산업평가단(200-701)
제주지역사업평가원 (http://jeju.irpe.or.kr)	제주지역 산업평가단	064-759-7322, 732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영평동 2170-4 스마트빌딩 418호 제주지역산업평가단(690-140)

※ 세종특별자치시 지원과제에 대한 접수 · 평가관리는 충청지역사업평가원 충남지역산업평가단이 담당



은퇴준비! 신한은행과 "하면 된다"

신한의 금융역량을 모두 누리는 신한은행 은퇴솔루션을 만나세요
당신의 미래를 위한 가장 좋은 답을 찾아드리겠습니다
행복한 美來를 위한 은퇴파트너, 신한미래설계

신한미래설계센터에서 모두 누리세요

- 나의 은퇴준비가 한 눈에 보이는 **미래설계브리프**
- 은퇴 생활비를 하나로 관리하는 **미래설계통장**
- 신한이 엄선한 은퇴상품 **은퇴추천상품**
- 부부가 함께! 체계적인 은퇴준비 **부부은퇴교실**

신한 미래설계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험한도는 본 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별도의 법적 계약이 없는 한 신한은행은 다른 그룹사의 채무를 보증하지 않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거나 영업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융브랜드 대한민국 1위, 세계 43위 The Banker誌 선정 | 3년 연속 대한민국 최우수 PB EUROMONEY誌 선정 | 글로벌 지속가능경영 대한민국 1위, 세계 30위 다보스 포럼 발표

더 나은 내일을 위한 동행 신한은행

신한금융그룹 | 신한카드 | 신한금융투자 | 신한생명 | 신한 BNP 파리바 자산운용 | 신한캐피탈 | 제주은행 | 신한저축은행 | 신한데이타시스템 | 신한아이타스 | 신한신용정보 | 신한PE투자자문


푸조의 콘셉트카 'EXALT'


포르쉐의 '박스터 GTS'와 '카이맨 GTS'


벤틀리의 '벤틀리 하이브리드 콘셉트카'

'2014 베이징모터쇼' 20일 개막

'꿈의 신차' 쏟아진다

세계 최대 中시장 공략 위해 2000여 업체 총집결
현대차 'ix25'·렉서스 'NX'·포르쉐 '박스터 GTS'
글로벌 자동차업체 전략 차종 최초 공개 예고

글로벌 자동차업체들이 세계 최대 시장 중국을 잡기 위해 베이징에 총 집결했다.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달 20일부터 29일까지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2014 베이징모터쇼'에는 2000여개의 완성차 및 부품 제조업체들이 참가한다.

특히 올해 베이징모터쇼에서는 세계 최초로 공개되는 차량들이 대거 전시된다. 현대자동차는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인 'ix25'를 베이징모터쇼에서 처음 내놓는다. ix25는 '투싼ix'보다 작은 소형 SUV로 현대차가 처음 선보이는 차급이다. 현대차가 현재 중국에서 판매하고 있는 SUV는 '싼타페'와 투싼ix다. 여기에 ix25 모델이 추가되면 현대차의 SUV 판매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기아자동차는 첫 중국 전략 모델인 'K3 S'를 처음 선보인다. 이외에 지난해 프랑크푸르트 모터쇼에서 첫 선을 보인 콘셉트카 '니로'도 함께 전시된다.

렉서스는 2.0ℓ 가솔린 터보 엔진을 장착한 SUV 'NX'를 베이징모터쇼에서 처음으로 선보인다. NX는 국내에는 10월에 출시될 예정이다.

닛산은 베이징모터쇼에서 '뉴 세단 콘셉트카'를 선보인다. 이 차량은 베이징에 위치한 닛산디자인 차이나와 닛산 글로벌 디자인센터의 협업으로 개발됐다. 메르세데스 벤츠는 쿠페형 SUV 콘셉트카 '벤츠 MLC'를 공개한다. BMW는 '뉴 X4'의 아시아 데뷔 무대로 베이징모터쇼를 선택했다.

푸조 역시 '콘셉트카 EXALT'를 처음 선보인다. 이 차량의 파워트레인은 푸조 하이브리드4로 1.6ℓ THP 엔진과 50kW 전기모터가 더해져 340마력의 힘을 발휘하며 6단 자동 변속기가 적용됐다.

고급차 브랜드도 처음 선보이는 차량의 전시장으로 베이징을 택했다.

포르쉐는 '박스터 GTS'와 '카이맨 GTS'를 처음으로 선보인다. 포르쉐에게 중국은 미국에 이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단일 시장이다. 포르쉐는 지난해 중국에서 전년 대비 19.9% 증가한 3만7425대를 판매했다. 벤틀리도 '벤틀리 하이브리드 콘셉트카'를 세계 최초로 공개한다.

글로벌 자동차업체들이 전략 차종의 데뷔 무대로 베이징을 선택한 것은 중국이 세계 최대 시장이기 때문이다. 중국의 지난해 자동차 판매량은 1793만대로 전년 대비 15.7% 성장했다. 올해는 연간 자동차 판매량이 2000만대를 넘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자동차업체 관계는 "중국은 저가의 소형차부터 고사양의 스포츠카까지 모든 차종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고 있다"며 "글로벌 자동차업체들의 관심이 중국으로 쏠리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최재혁 기자 freshphase@

꿈의 신소재 '그래핀 멤브레인'
LG전자·스위스 공동연구 결실

혁신성 인정받아 논문 美 사이언스 게재… 상용화 앞당겨

LG전자와 스위스 연구진의 '그래핀 멤브레인' 연구 논문이 혁신성을 인정받았다. LG전자는 자사 소재부품연구소 계정일 수석연구원, 이창호 수석연구원과 스위스 취리히 연방공과대학 박형규 교수팀이 공동 연구한 '원자단위로 얇은 그래핀 멤브레인의 극한 투과특성(Ultimate Permeation across Atomically Thin Porous Graphene)' 논문이 세계적인 학술지 미국 사이언스에 18일 소개됐다고 밝혔다.

LG전자와 스위스 연구진은 그래핀을 이용한 다양한 응용 분야 중에서도 수처리 및 공기정화를 위한 소재원천기술 확보를 위해 '그래핀 멤브레인' 연구를 진행했다. 그래핀은 탄소로 이루어진 단일 원자층 물질로 강도와 신축성 등이 뛰어나 멤브레인의 미래 소재로 주목받고 있다. 멤브레인은 액체 또는 기체의 특정 성분을 선별적으로 통과시켜 혼합물을 분리할 수 있는 액체막 또는 고체막으로 주로 필터로 사용된다.

연구팀은 그래핀을 소재로 만든 멤브레인에 '집속 이온 빔(Focused Ion Beam)' 장비로 직경 10㎚(나노미터) 이하에서 1㎜(마이크로미터)까지 다양한 크기로 수천에서 수백만개 이상의 기공을 형성시킨 뒤 지지층이 없는 얇은 막 상태에서 유체(물·기체)의 투과 특성을 밝혀냈다.

그래핀 멤브레인을 활용하면 물의 투과특성은 기존 수처리 멤브레인 대비 5~7배, 증기 투과특성은 기존 고어텍스 소재 대비 수백배 이상 향상되는 것을 밝혔다. 기존에 '그래핀 멤브레인'에 관한 이론적 논문은 있었으나, 실제로 기공 크기별 유체의 투과 특성을 밝혀낸 연구결과는 이번이 처음이다.

공동연구팀은 이번 연구 결과가 물, 기체 등을 극한의 효율로 투과시킬 수 있는 '그래핀 멤브레인' 상용화를 앞당기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송영록 기자 syr@

"진도 참사 애통" 이건희… 조용히 공항 빠져나간 신동빈

이 회장 석달 만에 귀국… 경영 혁신 구상에 관심
신 회장 어수선한 그룹 분위기에 하와이 골프 빈축

국내 재계를 대표하는 두 총수가 비슷한 상황에서 각기 다른 모습을 보여 눈길이 쏠리고 있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이달 17일 오후 각각 김포공항,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세월호 대참사'로 대한민국이 비통함에 잠겼고, 그룹 현안이 산적한 만큼 두 총수의 귀국 소식은 세간에 큰 관심을 끌었다.

지난 1월 11일 출국한 지 96일 만에 귀국한 이 회장은 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가장 먼저 진도 참사에 대해 "안타깝다"고 심정을 밝혔다. 계열사 간 합병 및 사업 조정 등 숨 가쁘게 진행되고 있는 그룹 현안보다 이번 대참사에 대한 애통함을 먼저 전한 것이다.

이 회장이 귀국하면서 삼성그룹의 사업 재편이 속도를 낼지 주목된다. 삼성은 지난 8개월 동안 7번이나 그룹 내 사업을 재편했다. 지난달 31일 삼성SDI, 제일모직 합병을 결정한 데 이어 이틀 만인 지난 2일 삼성종합화학, 삼성석유화학을 합치기로 결의하는 등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이 회장은 이르면 다음 주부터 '출근 경영'을 통해 '갤럭시S5'에 대한 시장 반응과 1분기 경영실적, 삼성전자 수원사업장의 협력업체 직원 사망사고 등 산적한 현안을 직접 챙길 예정이다. 특히 올 초 주문한 고강도 혁신에 대한 추진 상황을 꼼꼼히 점검하고, 위기론을 재차 강조하며 조직에 긴장감을 불어넣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미국 여자프로골프(LPGA) 롯데 챔피언십에 참석한 후 이날 오후 5시께 인천공항에 도착한 신 회장은 기자들이 기다리던 입국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신 회장은 롯데홈쇼핑 납품비리 사건 등 그룹 내 어수선한 분위기를 의식한 듯 조용히 입국장을 빠져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그룹은 현재 롯데홈쇼핑 납품비리를 비롯해 제2롯데월드 공사장 근로자 사망사고, 롯데카드 고객정보 유출, 롯데쇼핑 과징금 부과 등으로 사상 초유의 파열음을 내고 있다.

특히 롯데홈쇼핑 납품비리는 검찰 수사에서 금품수수가 조직적으로 일어난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면서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그룹의 얼굴격인 백화점을 이끌고 있는 신헌 롯데쇼핑 대표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등 힘겨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장효진·송영록 기자 js62@


미국과 일본 등에서 경영을 구상해온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17일 오후 김포공항 국제선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노진환 기자 myfixer@



현대리바트 '엔슬립' 론칭… "매트리스 점유율 10% 목표"
현대리바트는 자체 브랜드 '엔슬립(enSleep) 매트리스'를 론칭하고 3년 안에 매트리스 시장 점유율을 현재의 2%에서 10%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엔슬립 매트리스는 국내 최초로 스프링 단차를 이용해 몸의 곡선을 따라 압력을 분산하는 '멀티 레벨 슬립센스 7존 스프링 시스템'이 적용돼, 기존 매트리스 제품보다 체압 분산 효과가 16% 높다. 가격은 70만~150만원대다. 17일 리바트하우징 서울 도곡전시장에서 모델들이 엔슬립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사진제공 현대리바트

금호석유화학, 1분기 흑자전환 성공

영업익 286억… 매출은 1조2415억 전분기보다 8.9% 늘어

금호석유화학이 분기 기준으로 흑자전환에 성공했다.

18일 금호석유화학은 매출 1조2415억원, 영업이익 286억200만원, 순이익 92억6600만원을 골자로 한 올해 1분기 잠정실적을 밝혔다. 지난해 4분기 대비 매출은 8.9% 증가했으며, 영업이익과 순이익 모두 흑자전환했다.

사업부문별로 살펴보면, 합성고무의 매출액은 전기 대비 13.4% 증가한 5103억원, 합성수지는 전기 대비 5.4% 증가한 3335억원, 기타부문은 전기 대비 6.6% 증가한 3978억원을 달성했다.

회사 측은 "합성고무는 주원료 BD(부타디엔)의 가격 하락 및 가동률 상승에 따른 판매량 증가에 의한 것"이라며 "합성수지는 ABS(아크릴로니트릴 부타디엔 스타이렌) 위주의 판매가 상승 및 가동률 상승에 따른 판매량 증가로 수익성이 향상됐다"고 설명했다.

반면 금호석유화학의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63.3% 감소했다. 같은 기준 매출액과 당기순이익은 지난해 1분기와 비교해 각각 12.4%, 72.7% 줄었다.

금호석유화학은 2분기 합성수지 시장을 긍정적으로 내다봤다. 회사 측은 "합성수지는 에어컨, 선풍기, 냉장고 등 계절적 성수기에 진입했고, 브라질 월드컵 특수에 따른 판매량이 증가할 것"이라며 "BD와 SM(스타이렌모노머)은 정기보수에 따른 공급량 감소로 원재료 가격 및 유도품 업체 가동률에 따라 가격 변동이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김혜진 기자 sinembargo@

저비용항공사의 지난해 기부금 현황

	매출액	기부금	전년대비 증감률	매출액 대비 비중
제주항공	4323억원	3094만원	-54%	0.01%
진에어	2833억원	5억4279만원	318%	0.19%
에어부산	2779억원	3억3538만원	12%	0.12%

※출처: 전자공시시스템

저비용항공 '1등' 제주항공, 기부는 '꼴등'

지난해 기부금 3000만원… 매출액 0.01% 그쳐

국내 저비용항공사(LCC) 업계 매출 1위 제주항공이 기부금 평가 순위에서는 꼴지를 차지했다. LCC업체 중 전년 대비 기부금 규모를 유일하게 줄인 데다가, 매출 대비 기부금 비중도 가장 낮았다.

17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애경그룹 계열의 제주항공은 지난해 기부금액으로 3000만원 가량을 지출했다. 반면 한진그룹 계열의 진에어는 5억4000만원을, 금호아시아나그룹의 에어부산은 3억3000만원을 지난해 기부금으로 내놨다.

매출 대비 비중 역시 가장 낮다. 지난해 매출액 4323억원을 벌어들인 제주항공 기부금 비중은 0.01%에 그쳤다. 이어 매출액 2위를 차지한 진에어(2833억원) 기부금 비중은 0.19%, 에어부산은 매출액 2779억원 중 0.12%를 기부금으로 사용했다.

순이익 대비 규모도 제주항공은 0.16%에 불과했다. 진에어와 에어부산은 순이익 대비 각각 12.9%, 7.3%를 기부했다. 제주항공의 지난해 기부금은 전년(6700만원) 대비 54% 감소한 수치다. 반대로 진에어와 에어부산은 전년보다 각각 318%, 12% 증가했다.

한편, 지난해 흑자전환에 성공한 이스타항공은 500만원 가량의 기부금을 썼다. 전년(200만원)보다 141% 가량 증가한 금액이다. 티웨이항공은 아직까지 기부금 명목으로 지출 금액이 발생하지 않았다.

김혜진 기자 sinembargo@

SK가스, 새 먹거리 '석탄발전'

2GW 고성그린파워 지분 투자… 동양파워 인수도 추진

SK가스가 석유화학에 이어 석탄발전 사업에 진출한다.

SK가스는 17일 이사회를 열고 고성그린파워(GGP) 조인트벤처에 대한 지분투자를 통해 석탄화력발전 사업에 진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고성그린파워는 경상남도 고성군 하이면에 건설 예정인 총 2GW 규모의 석탄화력 발전소다. 최신형 기술(USC 타입)을 적용, 기존 표준 화력발전소보다 발전 효율을 약 3% 높였다.

총 투자금액 4조5000억원이 투입된 이 발전소는 SK가스(19%)를 비롯한 SK건설(10%) 등 SK그룹 계열사들을 비롯, 남동발전(29%)이 각각 출자하기로 결정했다. 나머지는 재무적 투자자(FI)들이 참여한다. SK가스는 올해 자본금 19억원을 납입한 뒤 2019년 나머지 1697억원을 입금할 예정이다. 발전소는 내년 2월 착공해 2019년 6월 상업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

SK가스 관계자는 "이번 투자를 통해 SK가스는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신성장동력을 추가하게 됐다"며 "종합적인 에너지 관련사업 포트폴리오 확장을 통해 안정과 성장 모두 충족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로써 SK가스는 'LPG-화학-전력'을 아우르는 기업으로 거듭나게 됐다. SK는 지난달 액화석유가스(LPG) 프로판을 원료로 프로필렌을 생산하는 PDH 사업 추진을 위해 사우디아라비아 APC와 연내 합작 조인트벤처를 설립하기로 결정했다. 총 투자 규모는 9000억원으로 경영권 확보를 위해 SK가스가 지분 51%를 보유하고 APC가 최소 25%에서 최대 49%까지 투자할 계획이다. SK가스는 오는 5월 울산 지역에 PDH공장을 착공, 2016년 초 상업 가동해 연간 60만톤의 프로필렌을 생산할 예정이다.

또 SK가스는 동양그룹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매물로 나온 동양파워 인수전에도 뛰어들었다. SK가스는 지난 10일 동양파워 인수를 위한 인수의향서를 제출했다.

동양파워는 지난해 동양시멘트의 삼척 폐광산 부지에 2000㎿ 규모 석탄화력발전소를 건설·운영하는 사업권을 취득했으며 이 발전소 역시 2019년 상업 발전을 계획하고 있다.

하유미 기자 jscs508@



하반기부터 '스미싱 차단 앱' 기본 탑재

스마트폰 보안 강화

도난방지 기술 '킬 스위치'도

정부가 이동통신사, 휴대폰 제조사들과 함께 스마트폰 사용자 보호 강화에 나서고 있다. 도난방지기술, 스미싱(문자사기) 차단 애플리케이션을 신규 스마트폰에 기본 탑재하는 것은 물론, 소액결제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대부분의 보호 방안들이 올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되는 만큼, 올 연말서부터 스마트폰 사용자들의 불편도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18일 미래창조과학부와 통신업계에 따르면 정부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는 스마트폰 출고시 스미싱 차단 앱을 의무 탑재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미래부와 이통3사는 이미 지난 2월부터 관련 협의를 시작해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쳐 올 하반기 스미싱 차단 앱이 탑재된 스마트폰을 내놓을 예정이다.

스미싱은 문자메시지(SNS)와 피싱(Phishing)을 결합한 용어로, 메시지에 포함된 인터넷 주소를 누르면 스마트폰에 악성 코드가 설치돼 개인정보 등을 빼가는 사기 수법이다.

스미싱 차단 앱이 스마트폰에 의무 탑재되면 이 같은 사기 수법에 사용자들이 노출되는 빈도도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스미싱 의심 앱이 설치되면 악성코드 감염 여부를 분석, 사용자에게 경고 메시지를 줌과 동시에 악성코드 치료와 악성 사이트로의 접속도 차단해주기 때문이다. 특히 스미싱에 취약한 노년층에게 더욱 효과적일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 최근 급증하고 있는 스마트폰 분실·도난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도난방지기술인 '킬 스위치(Kill Switch)'를 신규 스마트폰에 의무 탑재하는 방안이다. 미래부와 협의를 거쳐 삼성전자는 갤럭시S5 모델부터, LG전자는 올 하반기 출시 모델부터 킬스위치 기능을 탑재키로 했다.

킬스위치란 제조사가 단말기 제조단계에서 도난방지 소프트웨어를 탑재해 분실·도난시 원격제어 또는 사용자 설정을 통해 사용 불능상태로 만드는 기능을 뜻한다.

이용자 동의 없는 월자동결제, 무료 이벤트를 가장한 유료 결제 등 소액결제 문제도 스마트폰 사용자들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부분이다. 이에 미래부는 '통신과금서비스(소액결제) 이용자 보호 강화 방안'을 마련, 오는 6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사용자가 동의한 경우에만 월자동결제가 진행되고, 또 이를 사전차단할 수 있는 기능을 부여하는 것이 골자다. 김정유 기자 thec98@

위닉스, 업계 첫 5년 무상품질보증

"올 제습기 100만대 판매… 점유율 1위 수성"



중견기업 위닉스가 올해 업계 처음으로 5년 무상품질보증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제습기 100만대를 판매해 지난해 보다 2배 이상 성장하겠다는 목표를 내놨다. 최근 삼성·LG전자 등 대기업들의 제습기 시장 견제가 심해지고 있는 가운데, 기술력과 서비스 질 향상으로 점유율 1위(50%)를 지켜나가겠다는 각오다.

위닉스는 17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업계 최초로 제습기 '5년 무상품질보증'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제조일자 기준 5년 내 발생하는 제품 결함에 대한 무상 수리를 제공하는 것이 골자다. 2014년 이전 제품에 대해선 3년의 무상품질보증 기간이 제공된다.

위닉스 윤봉영 전략마케팅본부장(상무)은 "올해 제습기 시장은 기존 100만대에서 최소 200만대 규모로, 보급률도 기존 13%에서 20%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위닉스로서는 현재 점유율 1위 자리를 유지하는 것이 1차적인 목표"라고 말했다.

위닉스가 이번에 내놓은 5년 무상품질보증 프로그램은 업계에서도 파격적으로 보고 있다. 과거 현대자동차가 미국에서 선보인 '10년 무상품질보증' 마케팅과 비견되기도 한다. 위닉스의 이 같은 강수는 최근 제습기 시장을 둘러싼 대기업들의 위협과 관련이 깊다는 게 업계 시각이다. 업계 관계자는 "삼성과 LG가 최근 제습기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위닉스로선 약점인 서비스 강화에 나설 수 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위닉스는 올해 100만대 판매, 5000억원 매출을 목표로 잡았다. 위닉스는 지난해 수량으로는 54만대를 판매했고 매출액은 2578억원을 기록한 바 있다. 지난해 보다 판매와 매출 모두 2배 이상 성장시키겠다는 각오다. 김두식 영업본부장(이사)은 "매출의 경우 변수가 많기 때문에 지켜봐야 하겠지만, 2배 이상 커진 제습기 시장에서 50% 이상 점유율을 유지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위닉스는 지난 2월 애프터서비스(AS) 강화 차원에서 광역시 중심의 전국 6개 권역에 신규서비스센터를 오픈했다. 이어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365일 24시간 서비스 접수가 가능한 '뽀송 콜센터'도 운영키로 했다.

김정유 기자 thec98@

게임업계도 '세월호 참사' 애도

캠프모바일 '밴드게임' 출시 연기

네이버 자회사 캠프모바일이 21일로 예정된 '밴드 게임' 출시를 연기했다. 세월호 여객선 침몰사고로 국민적 애도가 일고 있는 만큼 당장 게임을 출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판단에서다.

캠프모바일은 18일 "세월호 침몰사고 실종자 분들의 무사귀환을 기원한다"며 "다음 주 예정이었던 밴드 게임 출시를 연기키로 했다"고 밝혔다. 회사측은 이같은 내용을 전날인 17일 오후 6시 홈페이지에도 공지했다.

밴드게임 출시 날짜는 정확히 밝히지 않고 있으나, 여객선 사고 수습이 상당부분 이뤄진 뒤에 출시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밴드 게임 출시 연기를 시작으로 다른 게임사들 역시 신작 게임 출시를 여객선 사고 수습 이후로 미룰 것이라는 게 업계의 공통된 전망이다.

밴드 게임은 폐쇄형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밴드'를 기반으로 한 게임서비스다. 캠프모바일은 지난 11일 1차 참여 게임 10종을 공개하고 사전예약 이벤트를 하고 있다. 박성제 기자 psj@

"트위터 알림 클릭했더니 성인사이트로"

지란지교 스팸메일 동향 분석

"SNS 알림 가장 피싱 주의를"

지란지교시큐리티는 17일 SNS알림을 가장한 성인사이트 홍보메일 등 다양한 피싱메일이 확산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지란지교시큐리티가 국내 200여개사의 이메일 데이터를 분석한 '2014년 1분기 스팸메일 동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SNS에서 보낸 알림으로 위장해 성인사이트로 이동시키는 등 다양한 형태의 피싱 메일이 발견된 것으로 나타났다.

SNS로 위장한 메일의 경우 새로운 비디오·오디오가 업데이트 되었다는 내용으로 클릭을 유도했다. SNS의 새 글을 확인하기 위해 링크를 클릭하면 강제로 성인사이트로 이동시킨다. 페이스북, 트위터, 스카이프 등의 이름으로 발송해 아무 의심없이 클릭할 수 있게 했다. 또 기업의 회사 도메인 등록을 권유하는 내용의 피싱 메일도 눈에 띄었다. 일정 기간내에 회신과 금액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조성준 기자 tiatio@

차병원 세계 첫 '성인 체세포 복제 줄기세포주 확립'

난치병 맞춤형 치료제 개발 길 열려

우리나라 연구진들이 세계 최초 성인 체세포 복제 줄기세포주 확립에 성공했다. 이에 따라 난치병 환자의 세포치료제 개발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차병원 줄기세포연구소 이동률 교수팀과 미국 차병원 줄기세포연구소 정영기 교수팀이 성인 체세포를 이용해 체세포 복제 줄기세포주를 확립하는 데 성공했다고 18일 밝혔다.

살아 있는 성인 체세포를 이용해 체세포 복제 줄기세포를 확립한 것은 이번이 세계 최초다. 이번 개발이 향후 환자맞춤형 줄기세포치료제를 개발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미국의 미탈리포프 박사팀이 태아와 신생아 세포주를 이용해 체세포 복제 줄기세포주를 확립했다. 하지만 이는 환자에게 직접 사용할 수는 없었다. 반면 성인 체세포를 이용하면 바로 사용할 수 있어 이번 연구가 더 진일보한 기술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연구는 '성인세포를 이용한 인간 체세포 복제 배아줄기세포 생산'이라는 제목의 논문으로 줄기세포 분야 국제학술지 셀스템셀(Cell Stem Cell) 18일자 인터넷판(한국시간)에 게재됐다.

이번 연구에서 차병원 연구팀은 75세와 35세 성인 남성으로부터 피부세포를 기증받았다. 연구팀은 2단계 연구에서 4명의 난자공여자로부터 77개의 난자를 공여 받아 5개의 포배기 배아를 생산(6.5%)했다. 이 중 2개의 배아줄기세포주를 확립(2.6%) 했고 염색체 검사와 유전자 마커 분석을 통해 75세와 35세 성인 남성의 체세포로부터 각각 유래된 정상 체세포 복제 줄기세포주임을 확인했다.

차병원 줄기세포 연구팀은 "본 연구는 성인환자의 맞춤형 체세포복제 줄기세포주의 확보가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가장 큰 의의가 있다"며 "후속 연구를 통해 난자 내의 이러한 원인인자를 밝힌다면 체세포 복제 줄기세포주의 확립효율을 획기적으로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범근 기자 nova@



the Vitamin House
www.VHmall.co.kr

KakaoTalk 선물하기 에서도 구매가 가능합니다.

비타민걸 최윤영

그녀가 먹는 철분은?

1 사랑하는 **그녀를 위한 선물로!**
2 상큼한 **사과맛 분말**로 맛있게!
3 **핸드백에 쏘~옥** 미니멀한 사이즈!
4 철분 뿐 아니라 **엽산, 비타민B6, B12까지!**

철 66.7 %,
비타민B6 50 %, 엽산 62.5 %,
비타민B12 30 %, 비타민C 65 %,
아연 42.4 %, 망간 30 %



비타민하우스 전속모델 최윤영

그녀가 먹는 철분 비타민/미네랄 제품

이런 분들께 추천해요!

- 생리 전후 철분필요량이 요구되는 10대 여학생 및 성인여성
- 불규칙한 식습관으로 고른 영양소 섭취가 필요한 사람
- 성장발육과 증진이 필요한 청소년

총 7일 섭취량 | 1일 2,000 mgX7포 | 소비자가 4,900원

구입문의 1588-8529

Mobile Daum 그녀가 먹는 철분

"우크라 긴장완화" 갈등 불씨는 여전

4자회담서 도발적 행동 자제·불법점거 철수 등 합의
美 "크림 반환" vs 러 "우크라 나토 가입 반대" 고수

우크라이나 사태가 외교적 사태 해결을 위한 실마리를 찾으면서 고비를 넘겼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유럽연합(EU) 미국의 외교 수장들은 17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4자회담을 갖고 긴장 완화를 위한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4자회담 참가국들은 이날 공동성명을 통해 우크라이나의 긴장 완화와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국제적 조치를 취하기로 하고 모든 이해 당사자들의 폭력과 위협 그리고 도발적 행동을 자제하는 것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또 모든 형태의 극단주의와 인종주의, 종교적 불관용 등을 표현하는 행동을 배척하도록 했으며 불법 군사조직을 해체하고 불법적으로 점거된 모든 관청을 합법적 소유주에게 반환토록 했다.

참가국들은 이 같은 조치를 최대한 빠르게 이행할 수 있도록 유럽안보협력기구(OSCE)가 특별 감시 임무를 하도록 했다.

이번 합의로 우크라이나 사태가 최악의 국면을 넘길 것으로 보이나 여전히 서방과 러시아의 갈등 구조는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회담 결과가 전해진 후 기자회견을 갖고 합의 내용을 평가하면서도 러시아가 이를 이행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도 회담 이후 서방은 크림 반도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날 회담에서 크림 반도에 대한 논의를 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 역시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합의를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 조치와 일정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없었다는 사실도 한계라는 지적이다. 우크라이나 정부가 동부 지역 분리주의 시위대 진압을 위해 배치한 군대를 복귀시키는지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접경 지역에서 자국군 병력을 철수시킬 것인지가 합의 내용의 이행을 위한 선행 과제가 될 전망이다.

시장에서는 우크라이나 사태 해결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지만 증시 영향은 제한됐다. 회담이 열리는 동안 러시아증시의 미섹스지수는 1.2% 올랐다.

미국증시는 이날 S&P500지수가 0.14%, 나스닥이 0.23% 올랐지만 다우지수가 0.1% 하락하는 혼조세로 마감했다.

이날 4자회담에는 케리 장관과 라브로프 외무장관 그리고 캐서린 애슈턴 EU 외교안보 고위대표, 안드레이 데쉬차 우크라이나 외교장관이 참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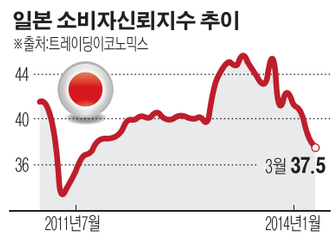
뉴욕=민태성 특파원 tsmin@



존 케리(왼쪽) 미국 국무장관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17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회담을 앞두고 대화하고 있다. 블룸버그

日소비세 인상 내수 냉각 아베노믹스 제 발등 찍나

지난달 소비자신뢰지수 37.5
2011년 8월 이후 최저치 기록
4월 소비자물가지수 상승은 기업 제품 가격 인상한 탓



일본 아베노믹스 약발이 떨어지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대규모 통화·재정정책을 통해 엔저를 유도하고 내수를 촉진하는 아베노믹스를 펼쳐왔다. 그러나 소비심리가 살아나지 않으면서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이다.

일본 내각부는 17일(현지시간) 지난 3월 소비자신뢰지수가 37.5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수치는 전월의 38.5에서 하락하고 지난 2011년 8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아베 총리는 경제성장을 위해 막대한 돈을 퍼붓고 있다. 그러나 물가는 오르기 시작하는데 임금은 정체 상태고 소비는 위축될 조짐을 보여 위기에 처했다고 이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아베가 지난해 12월 총리에 오를 당시 소비자신뢰지수는 39.9였으며 지난해 5월에는 45.7로 아베 임기 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아베노믹스 효과가 미진한 가운데 소비세 인상 역풍도 맞아 지난달 지수가 주저앉았다.

일본 근로자의 지난 2월 임금(시간외수당·보너스 제외)은 전년 동기 대비 0.6% 줄어들어 2008년 6월 이후 21개월 연속 감소세를 나타냈다.

반면 같은 기간 신선 식품을 제외한 근원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보다 1.3% 올랐다.

지난 2년간 일본 경제전망과 관련해 가장 적중도가 높았던 신케 요시키 다이이치생명 리서치센터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4월 일본 CPI 상승률이 3.5%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전망이 맞는다면 이는 1982년 이후 최고치다.

문제는 이런 현상이 디플레이션 탈출이라기보다는 기업들이 소비세 인상 부담을 소비자에게 떠넘긴 데 있다는 것이다. 산토리음료와 규동체인 요시노야 등이 이달 가격을 3% 이상 올렸다.

아베 총리의 경제자문인 하마다 코이치 전 예일대 교수는 지난달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소비세 인상이 일본 경제에 심각한 피해를 입힐 것"이라며 "일본은행(BOJ)은 이르면 5월 추가 경기부양책을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은 다소 복잡한 위치에 있다. 아베노믹스가 성공하면 엔화 가치 하락으로 우리나라의 수출경쟁력이 약화할 수 있다. 그러나 실패하면 세계 경기회복에 악영향을 미쳐 한국에도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특히 중국의 경기둔화가 심화하는 가운데 다른 이웃 나라인 일본마저 휘청거리는 것은 우리에게 결코 이로운 상황이 아니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배준호 기자 baejh94@

中 신발공장 파업 나흘째
나이키·아디다스 등 공급차질 전전긍긍

나이키와 아디다스 등 글로벌 스포츠용품업체들이 중국 신발공장 파업에 공급망이 타격받을까 우려하고 있다.

중국 둥관 소재 위위안공장 근로자들이 나흘째 파업 중이라고 17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뉴욕 소재 인권단체인 차이나레이버워치에 따르면 이날도 둥관에서는 약 3만명의 근로자가 사회복지제도 개선과 주택자금 지원 등을 요구하며 파업을 지속했다.

위위안은 세계적인 신발생산업체 대만 바오청의 자회사다. 바오청은 나이키와 아디다스, 리복, 퓨마 등 전 세계 60여개 업체에 신발을 공급하고 있다.

나이키와 아디다스 등 글로벌 업체들은 이번 파업으로 제품 공급에 차질을 빚을지 전전긍긍하고 있다. 나이키에 따르면 회사 공급업체 전체 근로자 100만명의 약 4분의 1을 중국이 차지하고 있다. 중국은 또 아디다스의 글로벌 5대 제품 공급국 가운데 하나다.

배준호 기자 baejh94@



성직자 아동 성추행 "파산말고 배상하라"

17일(현지시간) 미국 밀워키 천주교대교구 성직자 성학대 사건 피해자들이 밀워키 연방파산법원 앞에서 조속한 배상을 요구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밀워키대교구는 아동 성추행 사건 피해자들로부터 피소됐지만 소송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파산신청을 냈고, 이에 피해자들은 거의 배상을 받지 못했다. 밀워키/AP연합뉴스

中, 육해공 퍼진 환경오염 '몸살'

전체 국토 16% 오염·스모그 지역은 15%
1500만명 식수서 기준치 초과 비소 검출



중국 베이징 시내에 지난달 27일(현지시간) 스모그가 짙게 깔려있다. 베이징/신화뉴시스

환경오염에 비상이 걸린 중국이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중국 환경보호부와 국토자원부는 17일(현지시간) 발표한 '전국토양 오염 상황에 대한 조사보고서'에서 전 국토의 16.1%가 오염됐다고 밝혔다.

경작지 오염비율이 19.4%로 가장 높았으며 목초지는 10.4%, 산림은 10.0%의 오염비율을 각각 기록했다.

유형별로는 카드뮴 니켈 비소 구리 수인납 등 중금속을 중심으로 한 무기형 물질에 따른 오염이 82.8%로 가장 많았다.

중국 정부는 지난 2005년 4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홍콩 마카오 대만 등을 제외한 중국 본토 630만㎢ 토지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보고서는 "전국 토양환경은 총체적으로 낙관하기 어렵다"며 "특히 경작지 환경은 우려할 만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중국은 또 심각한 스모그로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 2월에는 올해 최대 규모 스모그가 베이징을 비롯한 중국 중동부 지역을 덮쳤다. 당시 스모그로 뒤덮인 지역은 143만㎢로 전 국토의 15%에 달했다.

지난달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리커창 총리는 '스모그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우리가 과거 가난과 싸워왔던 것처럼 스모그 문제 해결에도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다짐했다.

수질오염도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스위스 연방수생과학기술연구소(EAWAG)와 중국 의과대학 등이 지난해 8월 공동 발표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간쑤성 신장자치구 네이멍구자치구 등의 주민 1960만명이 먹는 물에서 비소가 검출됐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식수 중 비소 함량을 ℓ당 10㎍ 이하로 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 주민 중 약 1500만명은 WHO 기준치를 초과한 물을 식수로 쓰고 있다고 연구진은 지적했다.

이에 공해는 사회불안 요소로 급부상하고 있다. 중국 도처에서 화학공장이나 정유공장이 들어서는 것을 반대하는 시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배준호 기자 baejh94@

"亞, 미래 모바일 시장 이끌 것"

美·유럽보다 사용층 젊고 낮은 인터넷 보급률도 가능성 높여

모바일 산업이 아시아 경제 구조를 바꿀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미국 CNBC는 17일(현지시간)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자료를 인용해 지난해 글로벌 모바일 시장에서 아시아 이용 비중이 절반을 넘었다면서 이같은 분석을 제기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두터운 모바일 이용자층을 바탕으로 모바일 관련 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해 아시아 경제 구조를 변화시킬 것이라는 전망이다.

시장조사기관 IDC 파이낸셜인사이트의 토마스 징크 아시아·태평양 부분의 리서치 책임자는 "모바일 성장 동력은 아시아 소비자다"면서 "아시아 모바일 주 사용고객은 주로 미국과 유럽국가 사용자에 비해 더 젊고 도시화된 인구 층이다"고 말했다.

특히 아시아 신흥시장의 소비자들이 첨단기술에 대한 거부감이 적고 모바일을 사회적 높은 신분의 상징으로 생각하는 등의 문화적 배경도 모바일 시장 성장을 이끌고 있다는 평가다.

무엇보다 전문가들은 이 지역의 낮은 인터넷 보급률에 주목했다. 징크 책임자는 "낮은 인터넷 보급률이 모바일 시장 성장에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인터넷 시설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지역 거주자들이 모바일 시장으로 곧바로 진입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나은 기자 better68@

글로벌 리포트

현대·기아車 지난달 유럽 판매 증가

현대와 기아자동차가 지난달 유럽시장에서 판매가 늘었으나 시장점유율은 소폭 하락했다.

유럽자동차공업협회(ACEA)가 17일(현지시간) 발표한 지난 3월 유럽연합(EU) 27국(몰타 제외한 나머지 회원국) 자동차 판매규모를 살펴보면 현대는 4만6000대로 전년 동기 대비 5.5% 늘었다. 기아는 3만9000대로 전년보다 9.1% 증가했다. 두 회사 모두 연초의 부진에서 벗어났다.

그러나 현대의 지난달 점유율은 3.2%를 기록해 지난해 같은 기간의 3.4%에서 소폭 하락했고 기아도 2.8%에서 2.7%로 떨어졌다.

EU 27국의 지난달 신차등록 대수는 144만9000대로 전년 동월 대비 10.6% 늘었다. 영국과 스페인이 각각 17.7%, 10.0% 증가했고 독일이 5.4%, 프랑스가 8.5% 각각 늘었다. 이탈리아는 5.0%의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그리스가 31.0%, 포르투갈이 47.0%의 증가폭을 기록해 남유럽 국가들이 재정위기 충격에서 벗어나고 있음을 시사했다.

코코아 가격 올들어 10% 급등

상품시장에서 코코아 가격이 사상 최고치에 근접하며 강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CNBC가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코코아 선물 가격은 올들어 10% 상승하면서 t당 1900파운드대를 넘나들고 있다고 CNBC는 전했다. 코코아 선물 가격은 지난해에도 20% 급등했다.

코코아 가격의 강세는 중국의 소비가 크게 늘어났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중국의 코코아 소비는 지난 4년 동안 3배 늘었다.

에드워드 조지 에코뱅크 상품 부문 책임자는 "코코아 가격의 강세가 초콜릿 가격을 끌어올릴 것"이라면서 "새로운 럭셔리 아이템으로 분류될 수 있다"라고 내다봤다.

전문가들은 코코아 생산의 70%를 차지하는 서부 아프리카 지역의 가뭄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코코아 가격의 상승세 역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트위터, 모펍 마켓플레이스 공개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업계의 대표주자인 트위터와 페이스북이 33조원 규모의 모바일광고시장을 놓고 격돌하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트위터는 이날 모펍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접촉 가능한 기기가 10억개 이상이라고 밝혔다. 이는 트위터 가입자 2억4100만명의 4배가 넘는 것이다.

켈튼 린 트위터 제품 매니저는 이날 블로그를 통해 "새로운 사이트를 통해 광고주들은 견줄 곳이 없을 정도의 모바일 생태계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면서 "모펍 마켓플레이스는 10억개 이상의 기기에 다을 수 있으며 안드로이드와 iOS 응용프로그램을 통해 30일 동안 1300억건의 광고를 처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모펍 마켓플레이스를 통한 광고 규모가 세계 최대라고 덧붙였다.

트위터는 앞서 지난해 9월 모바일광고업체 모펍을 인수했다. 당시 업계에서는 트위터가 모펍을 사들여 자사 플랫폼에서 광고를 자동으로 판매하는 한편 미디어업계와 파트너십 확대를 꾀할 것으로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트위터가 모바일광고시장에서 페이스북보다 앞서 나갈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페이스북 역시 자체 모바일 광고네트워크를 테스트하고 있으며 빠르면 이달 말 개발자 콘퍼런스에서 관련 네트워크를 공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FT는 전했다.

TOTAL SPORTS CLUB sanyaro

내리막 미끌림에 강하다

산야로 브레이크 등산화!

교체형 스파이크가 형성된 브레이크 등산화 출시!

산야로 브레이크 등산화는 아웃솔 전면부에 4개의 교체형 스파이크를 장착하여 스파이크의 기능에 따라 어떠한 조건에서도 미끌림을 제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NEW 2014 | WATER PROOF | LEATHER | CHAMP





SM2440
[스파이크 및 렌치 증정]



SM2434



SU2435



SM2436



SU2437



SW2443



SM2442

가정의 달 고객초청 골프의류 및 등산화 세일!

50%~30% Sale

4.14 ▶ 5.11

- 잔디로 2014년 S/S 골프의류 및 기능성 의류
- 산야로 브레이크 등산화 및 트레킹화, 워킹화
- 골프화, 골프장갑, 골프볼, 양말 등(일부품목제외)
- 장 소: 잔디로 목동점, 전주점, 잔디로닷컴





www.jandiro.com | 문 의: 02)542-2000 | 목동점: 02)2608-7400 | 전주점: 063)276-5000 JANDIRO

진도 해상 여객선 침몰 참사 세월호 무리한 운항 없었나

1급 휴가·2급 휴식…3급 항해사 배 몰아

입사 4개월차 20대 신참…변칙운행·자질부족 피해 키워

檢·警 청해진해운 압수수색…위기대응 안전매뉴얼 확보

권고항로 이탈 이유·선박 개조 합법성 여부 수사 본격화

검·경 합동 수사본부는 18일 0시께 침몰 여객선 '세월호'의 선사인 청해진해운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18일 합동수사본부는 수사관 10여명을 인천 연안터미널 소재 청해진해운 사무실로 보내 컴퓨터 하드 디스크와 각종 서류 등 6~7개 박스 분량의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압수한 자료에는 사고 발생시 매뉴얼과 선박 안전검사 관련 자료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직원 안전교육 자료와 승객보다 먼저 탈출한 선장 이준석(69)씨의 과거 근무경력까지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사고 원인과 무리한 운항 여부, 세월호가 권고 항로와 다른 항로를 선택한 이유 등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 될 전망이다.

수사본부는 세월호 침몰 과정에서 위기대응 매뉴얼을 제대로 지켰는지, 객실을 늘리기 위해 세월호를 개조한 것과 관련해 회사 측이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안전기준을 통과했는지 여부 등도 확인할 방침이다.

대검찰청과 해양경찰청은 17일 기존 검찰 수사대책본부와 해양경찰청 수사본부 인력을 새로 설치한 합동수사본부 소속으로 배치하고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했다.

앞서 '조기 탈출' 의혹을 받고 있는 이 선장은 전남 목포해양경찰서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2차 소환 조사를 받았다.

이 선장은 안일한 대처로 세월호 침몰 사고의 피해를 키웠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경합수부에 따르면 원래 선장은 1급 항해사 신모(47)씨였다. 하지만 당일 신씨의 휴가로 인해 2급 항해사인 이 선장이 운항을 맡게 됐고, 사고 순간에는 3급 항해사였던 박모(여·26)씨가 운항을 맡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가 발생한 16일 오전 8시52분 당시에는 입사한지 만 4개월된 3급 항해사 박씨가 조타실 키를 잡고 있었다. 세월호가 한 달에 8차례 인천과 제주를 왕복하는 것을 고려했을 때 박씨의 세월호 운항 횟수는 고작 40회 남짓이다.

또 이 선장은 최초 사고신고 후 10분도 채 안된 오전 9시께 기관실에 연락해 승무원들에게는 대피지시를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같은 시각 승객에게는 방송을 통해 "객실에서 움직이라 말라"고 안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이씨는 배에서 탈출해 해양경비정을 타고 현장을 빠져 나왔다.

선원법 10조에는 '선장은 화물을 싣거나 여객이 타기 시작할 때부터 화물과 승객이 모두 내릴 때까지 선박을 떠나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만일 조사 결과 이씨가 가장 먼저 배에서 탈출한 것이 확인되면 선장으로서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세월호가 변침에 의한 사고일 개연성이 높아지면서 형량이 무거운 업무상 과실치사죄도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조성준·권태성 기자 tiatio@



청해진해운 대표 '사죄' 김한식 청해진해운 대표가 17일 인천시 중구 인천연안여객터미널에서 사죄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세월호 선장 소환 조사 17일 오전 전남 진도 해안에서 침몰한 세월호의 이준석 선장이 목포경찰서에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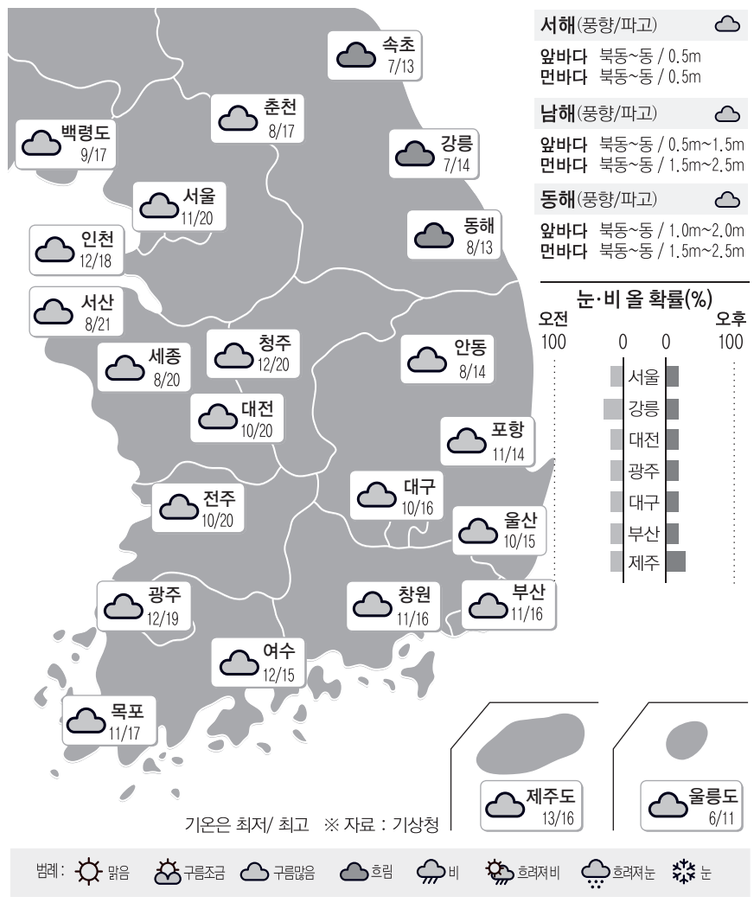
내일의 날씨

4월 19일 ☼ 해뜸 05:53 해짐 19:11 ☽ 달뜸 23:16 달짐 08:39

전국이 가끔 구름많겠다. 중국북동지방에서 동해상으로 남동진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6도에서 12도, 낮 최고기온은 12도에서 21도가 되겠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전해상(남해서부앞바다 제외)과 제주도전해상, 동해남부먼바다에서 1.5~4.0m로 점차 매우 높게 일겠고, 그 밖의 해상에서는 0.5~2.5m로 일겠다.



수도권 전셋값 떨어졌다

이사철 마무리 86주만에 하락반전… 전주보다 0.01%↓

아파트 매매가는 0.02% 올라

봄 이사철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상승세가 계속되던 수도권 전셋값이 86주만에 하락 전환했다.

18일 한국감정원은 지난 14일 기준 수도권 전셋값이 전 주 대비 0.01% 떨어졌다고 밝혔다. 수도권 전셋값이 하락한 것은 2012년 8월20일 이후 86주만에 처음이다.

또한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대비 0.02% 상승했으며 전세가격은 0.0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매가격은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 발표 이후 수도권에 이어 서울도 투자 수요 감소에 따른 관망세로 하락 전환된 반면 지방은 각종 개발호재가 풍부한 대구, 경북을 중심으로 상승했다.

수도권(-0.03%)은 서울이 하락 전환되며 낙폭이 확대된 반면 지방(0.06%)은 대구, 경북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지속된 가운데 세종, 충남의 회복세로 오름폭이 다소 확대됐다.

시도별로는 대구(0.20%), 경북(0.17%), 광주(0.10%), 경남(0.09%), 충남(0.08%), 울산(0.06%), 대전(0.02%) 등은 상승한 반면 제주(-0.10%), 전북(-0.04%) 등은 하락했다.

전세가격은 봄 이사철 수급불균형에 따른 가격 상승이 대부분의 이주수요 마무리로 소강 상태를 보이는 가운데 전세 물량 증가와 수요 감소로 오름폭이 둔화됐다.

서울의 전셋값은 0.01% 올랐지만 인천과 경기도가 각각 0.07%, 0.02% 하락하면서 수도권 평균 전셋값을 끌어내렸다.

서울의 전셋값은 강북지역이 0.06% 오른 반면 강남지역은 0.03% 하락했다. 지방(0.05%)은 대구, 충남, 경북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지속됐지만 세종, 전북, 전남의 하락세로 오름폭이 둔화됐다.

구성헌 기자 carlove@

'구조 현황 동영상' 몹쓸 스미싱 문자

SNS와 문자메시지를 통해 세월호 침몰 사고를 사칭한 스미싱과 각종 허위정보가 확산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18일 '여객선(세월호) 침몰사고 구조현황 동영상'이라는 문구와 함께 가짜 인터넷주소(URL)를 포함한 문자가 발송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주의를 당부했다.

메시지에 있는 인터넷주소를 클릭하면 스마트폰에 악성앱(구조현황.apk)이 다운로드 된다. 설치된 악성앱은 해당 단말기의 기기정보, 문자, 통화기록 등을 탈취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스미싱으로 의심되는 문자를 수신한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118)으로 신고하면 2차 피해예방 및 피해신고 방법 등을 무료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김범근 기자 nova@

생수·즉석밥에 밥차까지… 기업들 구호지원 밀물

현장에 직원 파견 일손 돕고

행사 자제… '무사귀환' 염원

대한민국이 슬픔에 잠겼다. 한 명이라도 더 구조하기 위해 '군·경·민'이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기업들 역시 너나할 것 없이 구조 작업에 동참하고, 구호 물품을 전달하는 등 애도와 온정을 나누고 있다. 외부 행사는 모두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삼성중공업은 해상크레인 '삼성2호'를 현재 사고 현장에 급파했다. 대우조선해양도 인양능력 3200톤의 '옥포3600호'를 보냈다. 현대삼호중공업은 사고 발생 당일인 16일 오전 잠수부 15명과 봉사단 200여명을 파견했다.

유통가도 일제히 현장 구호에 나섰다. 롯데마트는 사고 현장에서 가까운 목포점을 통해 식음료를 포함한 생활 필수품을 전달했다. 롯데마트는 사고 수습이 끝날 때까지 매일 300인분의 도시락과 즉석밥·음료·간식·화장지 등 생필품을 제공할 계획이다. 더불어 현장을 지원할 봉사단 운영도 준비 중이다.

편의점 세븐일레븐은 소속 가맹점주 자녀가 실종자 명단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점주가 현장에 갈 수 있도록 해당 점포에 근무인력을 지원했다. 현장에는 컵라면 1만개를 보냈고, 추가로 현장에 필요한 물품을 파악하고 있다.

신세계그룹은 우선 이마트를 통해 생수·라면·모포 등 1톤 트럭 4대 분량의 생필품을 전달하고 추가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마트는 급식차를 동원해 실종자 가족과 구조요원들에게 300인분의 식사를 지원할 계획이며, 안산지역 매장에서는 행사와 음악을 자제한다. 신세계그룹은 이달 17일 예정됐던 여성가족부, 어린이재단과 '아동,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급히 취소하기도 했다.

홈플러스는 사고 당일 저녁 목포점을 통해 진도읍 실내체육관으로 우유·생수·컵라면·빵·종이컵 등을 200인분씩 보냈다.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본사 차원에서 논의하고 있다.

CJ그룹은 사고 인근 지역에서 근무하는 직원 50여명을 현장에 파견해 일손을 돕고 있으며, CJ제일제당 급식 차량과 식사 1000명분을 비롯해 햇반·생수·김치 등 식품과 뚜레쥬르 빵 3000개를 전달했다. CJ오쇼핑은 월 1회 진행하던 모금 방송을 이번 사고와 관련해 진행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

현대백화점그룹은 생수·담요 등 물품을 포함해 그룹 차원의 다양한 지원 계획을 마련 중이다. SPC그룹의 삼립식품은 빵 2000봉, 생수 2000병을 보냈으며, 빠리바게뜨도 빵 1만개와 생수 1만병을 지원한다.

장효진·이다람 기자 js62@

한양이엔지, 플랜트 등 베테랑 모십니다

외주·설계·장치 등 5개 부문

경력 5·10년차 22일까지 접수

한양이엔지가 경력직 사원을 모집한다. 모집부문은 △외주팀(외주관리) △설계팀(공정설계, 배관설계) △장치본부(CCSS 장비설계, 자동제어) △조달부문(품질안전) △사업부문(공사관리, 안전관리) 이다.

외주팀은 정규직으로 초대졸 이상, 플랜트 또는 반도체 배관 공사 또는 공조 공사 경력 5년 이상이 필요하다. 기계 관련 기사 자격을 우대한다. 직급은 과장(10년)에서 차장(15년)이다.

설계팀은 공정설계와 배관설계 업무를 담당한다. 정규직이며 대졸 이상 관련 설계 경력 10년 이상이 필요하다. 화공, 기계, 전기 관련 기사 자격, 영어, 일어 가능자를 우대한다. 플랜트 관련 교육수료자 및 설계, 플랜트 경력, 해외 공사 경험자를 우대한다. 직급은 과장(10년)에서 부장(18년)이다.

장치본부는 CCSS장비설계와 자동제어 업무를 담당하며 정규직으로 모집한다. 초대졸 이상, 5년 이상 경력이 필요하다. 3D CAD프로그램 운용가능자, 중국어 영어 가능자를 우대한다. 모집 직급은 대리(5년)에서 과장(10년)이다. 조달부문은 품질안전 업무를 담당하며 산업안전기사 자격증이 필요하다. 초대졸 이상, 경력은 3~5년이 필요하다. 사업부문은 공사관리,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며 계약직으로 모집한다. 2년 이상 경력이 필요하다. 안전, 기계 관련 학과 및 관련 자격증을 우대한다. 직급은 사원(2년)에서 과장(10년)이다.

이번 한양이엔지 채용의 전형절차는 정규직과 계약직의 전형 절차가 다르다.

정규직의 경우에는 서류, 1차면접, 적성검사, 2차면접이 치러진다. 계약직 채용 절차는 2차면접을 보지않고 적성검사까지만 실시한다.

계약직의 경우는 1년 6개월 근무 후 정규직 전환 심사 기회를 제공한다. 접수기간은 오는 22일까지이며 한양이엔지 이력서 작성 후 홈페이지에서 접수하면 된다.

문의는 채용담당(031-695-0023·28, recruit@hanyangeng.co.kr)로 하면 된다.

박용남 기자 bangnam@

한화건설, 이라크 신도시 탄력 세계최대 규모 PC플랜트 준공

10만가구 건설공사 본격시작

두달에 한번 4000가구 공급

한화건설이 16일(현지시각) 세계 최대 규모의 PC(Precast Concrete) 플랜트 준공식을 갖고 이라크 비스마야 신도시 주택 10만호 건립 공사를 본격 시작했다.

이날 준공한 PC 플랜트는 세계 최대 규모(면적 66만㎡)로 외벽과 내벽, 슬래브 등 콘크리트 자재를 생산하는 3개 동으로 구성됐다. 이 곳에서 하루에 사용되는 콘크리트 양은 6400톤에 달하고 이는 레미콘 트럭 430대에 이르는 양이다. 또 7년에 걸쳐 생산하게 될 벽체와 슬래브 전체 길이의 합은 1만3000Km에 달하며 이는 바그다드에서 서울까지의 왕복거리이다.

한화건설은 이번 PC 플랜트의 준공으로 10만 가구 주택 건설공사의 차질없는 수행은 물론 이라크 정부가 발표한 주택 100만호 건설사업에도 중추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사가 본궤도에 오르면 4000가구 규모의 아파트 단지를 두달에 한번씩 공급하게 된다.

문석 한화건설 전무는 "이번 PC 플랜트의 준공은 이라크 비스마야 신도시 건설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라며 "준공식을 당초 계획보다 2달여간 앞당겨 진행할 정도로 이라크 비스마야 신도시 건설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강영관 기자 kwan@



이라크 비스마야 신도시 PC 플랜트 준공식에 참석한 (오른쪽 다섯 번째부터 왼쪽으로) 사미 알 아라지 NIC 의장, 누리 카밀 알 말리키 이라크 총리, 김현중 한화그룹 부회장 , 조정원 이라크 대사 , 문석 한화건설 전무 등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한화건설



공병호의 독서산책

다케우치 가즈마사 '엘론 머스크'

'엘론 머스크'. 익숙지 않은 이름이다. 하지만 페이팔, 테슬라모터스 전기자동차, 상업용 우주로켓 스페이스X, 고속 충전소 슈퍼차저 스테이션 창업자라고 하면 고개를 끄덕이는 분들이 많을 것이다.

우선 42세의 나이에 이처럼 연속적으로 창업에 성공한 점이 놀랍다. 한두 번 정도 창업에 성공하고 나면 엄청난 돈을 손에 쥐게 된다. 여유 있게 살 수 있는데 꿈을 향해 치열하게 자신을 밀어붙이는 열정이 놀랍다.

우리는 통념적으로 '그건 안돼'라는 생각을 갖고 산다. 엘론 머스크에게 배울 수 있는 것은 모든 통념을 의문의 대상으로 삼아 버리는 것이다. 미국 항공우주국(NASA)은 엄청난 돈을 투입해 우주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엘론이 전기자동차에서 상당한 성공을 거둔 다음 뛰어든 분야는 상업용 로켓이다. 그의 질문은 간단명료하다. "로켓 제작비용이 왜 그렇게 비싸야 하는가?" 아마도 이런 질문의 답은 거의 정해져 있을 것이다. 이 분야는 다른 분야와 달리 특별하니까.

NASA는 우주용 로켓은 돌아올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암묵적 관념을 수십년 동안 성역처럼 지켜 왔다. 엘론의 기본 가정은 이를 뒤집는다. '출발한 곳으로 되돌아오는 로켓'을 만들자는 것이다. 로켓을 소모품이 아닌 얼마든지 재활용할 수 있는 제품으로 가정한 셈이다. 그 결과 로켓 제작비용은 현재 기준으로 75%나 낮추는 데 성공했다. 그는 "로켓에서 동력원이나 연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0.3%에 불과하다. 로켓을 재사용한다면 지금보다 100배나 싸게 우주여행을 할 수 있다"고 힘줘 말한다.

전기자동차·상업용 로켓…
42세 CEO 성공 열쇠
"그건 안돼"라는 생각과
모든 통념에 의문을 품었다

우리 사회에도 성역이란 것이 참으로 많다. 그런 성역들은 대부분 암묵적 가정 위에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미국의 우주 로켓업체들도 미국 정부와 계약을 맺을 때는 실비정산법으로 지불 방식이 결정된다. 업체로서는 비용을 절감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한국도 예산을 쓰는 부분 중 이런 분야가 많을 것이다. 관료적 거대 우주기업들이 엄청난 자원을 낭비해 온 셈이다. 어디 우주기업들뿐이겠는가. 엘론 머스크는 "우리 비즈니스의 첫 번째 목표는 로켓 제작회사에 오래 만연해 온 기존의 사고방식을 깨뜨리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예산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가가 예산을 배정해 주는 방식으로밖에 진행할 수 없는 분야가 있는가? 그렇다면 엘론에게 한 수 배우기를 권하고 싶다. "우주산업과 전기차 개발이야말로 벤처기업이 해야 할 일이다. 두 가지 모두 신기술 개발이 필요하고 또 비용을 절감해야 하는 산업이다. 기존 산업계에서 이를 진행하기란 무척 어렵다. 그러니 벤처에서 시작해야 한다."

참으로 신선한 이야기들이 들어 있다. 현재와 과거를 중심으로 보면 문제 해결책을 찾기 힘들고 설령 찾더라도 비용이 많이 드는 방법뿐이다. 그런데 미래에서 현재를 바라보면 획기적 방법들이 나올 수 있다. 우리도 점점 비용이 많이 드는 사회로 가고 있고, 되는 것보다 안 되는 이유를 더 자주 찾는 사회로 가고 있다. 단 한 명의 젊은 사업가가 사업 세계를 어떻게 바꿔 나갈 수 있는지 읽고 충격 받는 사람들이 많이 나왔으면 한다.

안전에 더 큰 가치를 부여하는 우리 사회에 "이렇게도 한 평생을 살 수 있구나"라는 자극을 줄 수 있는 멋진 인물이자 멋진 책이다.

◇외부 필진의 칼럼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기고

유전체 신분증으로 우리 농산물 지킨다



임 상 종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장

최근 언론매체에 수입 먹거리의 원산지를 속이거나 불법 반입하는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보도가 심심찮게 나온다. 관세청에서 지난 1~2월 먹거리 불법 반입 및 제사용품 원산지 둔갑 행위를 집중 단속한 결과, 47건·625억원 상당을 적발했다고 한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금액 대비 186% 증가한 수치다.

이 중 중국산 쌀을 국산으로 속여 유통한 원산지 세탁꾼들도 있었다. 이른바 '포대갈이' 수법으로 중국산 쌀을 값비싼 국내산 쌀로 포장만 바꿔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국내산으로 둔갑한 쌀을 우리가 언제 먹었을지 모르는 일이다. 같은 농산물이라도 워낙 비슷해 국내산인지 수입산인지 육안으로는 식별이 어려워 소비자만 피해를 보고 있다.

수입산을 국산으로 속이는 것 말고도 품종 간 구별이 어려운 점을 악용해 농업인을 속이는 사례도 종종 있다. 한 해 농사를 땁 흘려 지었는데, 벼를 수확해 보니 처음 살 때 설명 들었던 품종과 달라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다. 육안으로는 구별이 어려운 쌀, 만약 쌀에도 품종을 구분할 수 있는 '신분증'이 있었다면 어땠을까?

같은 쌀이라도 품종마다 다른 DNA 염기서열을 갖는다. 이 차이를 구분하고 분류하면 겉모습이나 세포 조각으로 확인이 어려운 여러 쌀 품종들을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농촌진흥청에서는 쌀마다 다른 염기서열, 즉 유전적 차이를 이용해 품종을 쉽고 간편하게 구별할 수 있는 '유전체 신분증'을 만들었다.

벼 285종, 콩 147종에 대해 신분증을 부여한 '품종인식 바코드 시스템'은 유전적으로 99% 유사한 품종까지 품종 간 차이도 정확하게 판별할 수 있으며, 1·2차원의 바코드로 쉽게 표현할 수 있다.

이를 이용해 품종명이 표기돼 판매되는 제품마다 바코드를 부착하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QR코드를 확인해 품종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의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자유무역협정(FTA) 확대 추진 등 수입개방화 추세에 따라 품질이 낮은 외국산 농축수산물이 수입될 때에도 외국산 품종이 국산 품종으로 둔갑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또한 우리가 많은 예산과 노력을 들여 개발해 놓은 고품질 품종이 빠져나가 역수입돼 들어올 때, 품종인식 바코드 시스템을 이용하면 우리 품종에 대한 권리를 강화할 수 있다.

이 기술은 고부가가치의 맞춤형 품종을 개발하는 데 육종의 길잡이로도 활용할 수 있다. 수량이 많고 도정수율이 높으며 밥맛도 좋은 벼 품종을 개발할 때 이 기술을 활용하면 기존 품종의 유전적 특성을 고려한 조합이 가능해 목표 유전자를 지닌 품종을 보다 빠른 시간에 개발할 수 있다.

개발된 시스템은 현재 벼, 콩 두 가지 작물에 대해 완성된 상태다. 앞으로 옥수수, 보리, 밀 중심으로 우선 확대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개인 육성 품종이나 외국산 수입 품종에 대해서도 바코드 정보를 구축해 나갈 것이다.

식품안전에 대한 우려와 관심이 날로 커지자 강력한 제도를 도입, 소비자들이 우리 농산물을 안심하고 사도록 하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지난 6일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를 방지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기 위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개선안에는 기존 벌금·징역 등 형사처벌 외에 위반금액의 최고 10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내용도 담겨 있다.

우리 농산물에 대한 안전 관리체계를 한층 강화하고 언제 어디서 수입한 것인지, 어떻게 생산했는지 등을 낱낱이 밝혀낸다면 먹을거리에 대한 소비자 불안도 해소돼 적극적 소비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우리의 식탁을 위협하고 국산 농산물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농산물 허위표시에 대한 강력한 대처로 우리 세대, 그리고 다음 세대가 믿고 먹을 수 있는 안심 먹거리를 만들어주자.

온라인 와글와글

결혼 후엔 시간선택제…아이 키우고 살림하려니~



○…미혼 여성 10명 중 9명은 결혼 후 시간선택제로 일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 부담이 커서 정규직은 힘들다고 하는데. 네티즌들은 "여성의 시간제 선호 이유는 육아와 집안 일 때문이지", "남자들아, 집안일과 육아를 우습게 보지 말라", "시간제를 선택하든 정규직을 선택하든 그건 환경과 상황에 따른 개인의 자유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여성들이 편하게 일할 수 있는 날이 오길 바란다", "남자랑 여자랑 똑같이 일을 해서 소득에 기여한다면 집안 일도 똑같이 해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 "남자도 육아와 집안 일 분담하는 문화가 절실히 필요하다", "일도 힘든데 육아까지 어떻게 함께 하겠니", "여자도 사람이기에 하고 싶은 일이 있을 테고, 정당한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다", "남자들이 조금만 더 도와주면 된다", "직업에 성차별은 하지 맙시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최근 우유가 남아돌 정도로 생산량이 늘었는데도 거꾸로 소비자들이 사 먹는 우윳값은 올라 소비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는 소식이다. 원유 가격 연동제 때문이라는데.

네티즌들은 "다 도둑들이다", "도대체 왜 우리는 늘 피해만 보고, 기업들은 돈을 끌어모으는 걸까", "원가가 올라도 기업은 이익, 원가가 내려가도 기업은 이익", "우유가 남아도 싸게 못 준다고? 세상에 버리는 우유 싸게 주면 안 되는 법이라도 있나?", "물가는 늘 치솟기만 하지 내려갈 생각은 안 하더라", "우유뿐만 아니라 다른 제품들도 마찬가지다. 정말 모든 제품의 원가 다 공개하라" 등 치솟기만 하는 우윳값에 대한 비판적 의견을 쏟아냈다.

박준영 기자 PJY32@

오늘의 Hot Click 베스트5
이투데이 온라인 집계

1. 세월호 침몰, 6살 여아 탈출시킨 고교생 찾았다
2. 혼자 살려한 선장…세월호·서해훼리호, 같은 사건 다른 행적
3. 인양 작업 위해 크레인과 함께 '플로팅 도크' 투입
4. 해경 악천후속 무인로봇 수색동원…선체 진입 시도
5. 해상크레인 속속 도착 …즉시 인양 못하는 3가지 이유

오늘의 BAE 배국남 .com www.baekn.com

K리그 선수 연봉은?



배국남닷컴은 17일 한국프로축구연맹이 발표한 프로축구선수의 연봉을 분석했다.

연맹은 2014년 K리그 22개(클래식 12개+챌린지 10개) 구단의 선수 현황과 선수 연봉을 공개했다. 연봉은 기본급에 승리수당, 출전수당 등 각종 수당을 합한 것으로 최근 3년간의 승률을 토대로 한 추정치다. 군팀 상주 상무와 안산 경찰청 선수의 연봉은 제외했다.

이에 따르면 상주를 제외한 K리그 클래식 11개 구단 전체(국내 및 외국인) 소속 선수의 연봉 총액은 754억6200만원으로 선수당 평균 연봉은 1억9300만원이다. 이 중 국내 선수 연봉 총액은 576억8700만원으로 선수당 평균 1억6300만원이다. 국내 선수 연봉만 공개한 지난해에는 선수당 평균 연봉이 1억4600만원임을 감안할 때 소폭 오른 액수다. 지난 2월 26일 공개된 프로야구의 1억638만원보다는 두 배 가까이 많다.

반면 외국인 선수의 연봉 총액은 177억7500만원이다. 선수당 평균 4억9400만원으로 국내 선수들과는 약 3배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국 선수 중 최고 연봉자는 전북의 이동국〈사진〉이다. 이동국의 연봉은 11억1400만원이다. 연봉 2위는 10억7000만원을 받는 울산의 김신욱, 3위는 8억3200만원을 받는 수원의 김두현이다.

K리그 전체적으로 최고 연봉을 받는 선수는 FC서울의 외국인 선수 몰리나다. 그는 올시즌 13억2400만원의 연봉을 받는다. 그 뒤를 이어 전북의 레오나르도 11억8500만원, 성남의 제파로프가 11억1600만원을 받아 각각 2, 3위에 올랐다. 외국인 선수의 연봉은 지난 시즌에는 공개하지 않았다.

차상엽 기자 sycha@



正論

칸막이를 허물면 보이는 것들



정 재 훈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

경계가 사라져가는 시대다. 또한 익숙해져 있던 일들이 어색해 보이기 시작했다. 사회 곳곳에서, 여러 산업 분야에서 다양한 형태로 '경계 허물기'가 진행되고 있다. 기술의 발달로 방송과 통신의 영역 구분이 사라지면서 TV로 보던 드라마를 휴대폰으로 이어서 볼 수 있고, 서양의학 전공자들과 동양의학 전공자들이 '통합의학'이라는 이름으로 의기투합하여 암 정복에 나서기도 한다. 뿐만 아니다. 미래에 필요한 융합형 인재를 키우려면 고등학교에서의 인문계-이공계 구분을 아예 없애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칸막이를 없애 편익을 추구하고 통합적인 사고로 더 많은 시너지를 창출해보자는 의미일 것이다.

그런데 사실, 진짜 경계 허물기가 필요한 분야는 따로 있다. 바로 공공 부문이다. 관료제는 행정 서비스에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필연적으로 도입된 시스템이긴 하지만, 그동안 칸막이식 행정문화가 조직 이기주의, 실적 챙기기 경쟁 등을 낳으며 비효율을 야기하기도 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그래도 최근 들어서는 일부 변화가 감지된다. 부처나 산하기관끼리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면서 행정 비용은 줄이고 민원인의 서비스 만족도는 증가하는 '생산적 행정'이 시도되고 있는 것이다. 일례로 이제는 운전면허 발급이나 갱신을 할 때마다 번거롭게 4,000원을 내고 별도의 신체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다. 보건복지부가 경찰청과 국민건강검진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또 국세청과 관세청이 역외탈세 관련 혐의정보를 서로 공유·교환하기로 하면서 과세 형평성 제고와 세수 확보도 보다 용이해졌다. 이러한 사례들은 정부 내 칸막이를 해소하여 협업하고 정책의 수혜자인 국민의 행복을 이끌어내는, 이른바 '정부3.0'의 대표적 모범이라 할 만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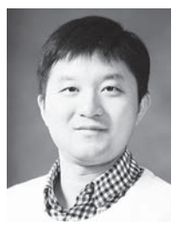
필자 역시 공공 부문에 오랫동안 몸담고 있으면서 어떻게 하면 기관 이기주의를 극복하고 정책의 효과를 제고할 수 있는지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해왔다. 특히 정부가 연구개발(R&D)을 지원하여 나온 기술 결과물들이 시장에서 빛을 보지 못하고 쌓이기만 해서는 안된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부처별로 막대한 예산을 들여 기술개발은 하고 있지만, 막상 R&D 과제가 끝나고 나면 해당 기술을 제품화로 연결시키려는 노력은 개별 부처 차원에서나 범정부 차원에서 부족했기 때문이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은 'R&D가 R&D로만 끝나서는 안된다'는 생각으로 지난 16일 '기술사업화협의체'를 발족시켰다. 협의체에는 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한 7개 부처에서 R&D 과제 지원을 전담하는 기관 10곳이 대거 참여했다. 이로써 부처별로 흩어져 있던 미활용 기술의 활용도를 높이는 발판이 마련되었다. 협의체에 참여하는 기관들은 앞으로 보유 기술정보를 전면 공유하고 이를 필요로 하는 기업들에게 전달하는 한편, 기존에 각 부처에서 산발적으로 마련해놓은 기술이전·사업화·투융자 플랫폼을 공유함으로써 소비자가 원하는 제품이 시장에서 원활하게 탄생할 수 있도록 협업하기로 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기술은행(NTB)에 각 부처와 기관들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정보를 한데 모으고, 기술·시장 정보가 필요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기술이전 설명회와 상담회를 공동으로 개최하는 것이다. 물론 정보만 공유한다고 해서 기술에 대한 기업들의 갈증이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기업들이 법률, 회계, 마케팅, 인수합병(M&A), 기술평가, 인력양성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체계적인 사업화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전문가 자문단도 운영하기로 했다. 기업들은 1,100여명에 이르는 전문가들과의 밀착형 상담을 통해 실질적 혜택을 받아갈 수 있다. 보건, 환경, 에너지 등 연관성 있는 분야의 기술 정보를 연계하여 융합형 R&D 과제를 기획할 수도 있다. 또한 산업기술진흥원이 보유하고 있는 각종 펀드와 R&BD 과제도 기술사업화 협의체에 함께 참여하는 기관들에게 개방해 나갈 것이다.

기술사업화 협의체는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고 국가 기술정보의 개방과 공유를 통해 시너지를 추구해 보자는 정부 3.0 프로젝트이다. 기술사업화 분야에서는 사실상 처음으로 시도되는 개방형 협업이기 때문에 어떤 열매를 맺게 될지 필자도 참 궁금하다. 하지만 이 프로젝트의 성공 여부는 기술정보를 얼마나 개방했느냐에 달려 있지 않다. 그보다는 결과적으로 기술의 활용도를 얼마나 높였으며, 이를 통해 얼마나 새로운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했는지가 더 중요하다. 기술사업화 협의체가 기술사업화 지원기관 모두의 관심과 노력을 바탕으로 부처간 진정한 소통과 협력의 채널로 자리매김하고, 나아가 창조경제형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해 본다.

객석

시간이 멈춘 도시, 루앙프라방



송 인 범
IBK기업은행
홍보부 과장

직장생활 5년차. 추운 날씨가 방황하는 마음까지 얼리지는 못한 2013년 겨울, 라오스 루앙프라방으로 떠났다. '시간이 멈춘 곳. 라오스 루앙프라방'이라는 말을 본 순간부터 그곳을 동경해 왔다.

인천공항에서 라오스 수도인 비엔티안까지 4시간 반. 국내선 항공으로 갈아타고 비엔티안에서 약 400km 북쪽에 위치한, 40분 정도 가면 루앙프라방을 만날 수 있다.

나눔으로 풍요가 되는 시간, 탁발. 매일 새벽 해가 여명을 비추기 시작하면 사원에서는 북소리와 함께 탁발의식을 시작한다. 승려들이 긴 줄을 이뤄 걸어가면 무릎을 꿇은 보시자들은 본인이 준비한 음식을 승려의 발우에 조금씩 넣는다. 십시일반 쌓인 음식으로 발우는 가득 넘치게 되고 승려들은 그 음식을 다시 가난한 아이들에게 나누어준다. 작은 나눔으로 모두가 풍요가 되는 시간, 탁발행렬을 보며 늘 가득 채우려 했던 나 자신을 되돌아본다.

언덕 위 사원에서 맞는 일몰, 푸씨. 시내 중심에 위치한 국립박물관 맞은편 언덕길로 300여개의 계단을 밟아 10분쯤 올라가면 해발 100m의 푸씨언덕 정상에 오를 수 있다.

누구 하나 뛰는 사람이 없다. 주문한 음식도 한참이 지나야 나온다. 오히려 빨리 빨리 행동하는 사람을 이상하게 쳐다본다. 골목상점에 들어가 과일을 흥정해 보지만 사가고 싶으면 사가고 싫으면 그냥 가라는 듯 무관심이다. 시간의 신, 크로노스도 이곳만큼은 신들의 휴식처로 남겨두었나 보다. 하지만 신보다 더한 존재가 인간이라고 했던가. 인간에 의해 이곳도 빠르게 변해가고 있다. 안식처로 기억될 루앙프라방도 오래 남지 않았을는지 모른다. 고민하는 당신께 지금 이곳으로 떠나 최고의 여유를 만끽하며 삶을 되돌아보라 이야기하고 싶다.

기자의 눈

분양·매매, 따로 노는 주택시장



강 영 관
사회생활부/kwan@

2·26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 이후 주택시장의 온도차가 뚜렷하다. 기존 주택시장은 냉기운이 가득한데 분양시장은 1순위에서 마감하는 단지가 속출하는 등 오히려 활기가 넘친다.

이처럼 분양시장과 달리 기존 주택시장이 '춘래불사춘'의 상황에 처한 것은 정부의 엇박자 정책 영향이 크다. 연초 수도권을 중심으로 회복 기미를 보이며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냈던 시장이 2·26 대책으로 회복 동력을 상실한 것이다.

문제는 이 같은 흐름이 '반짝' 현상인지 장기간 침체의 전조인지 여부다. 계절적 요인으로 봤을 때는 이미 봄 이사철이 지나고 여름 비수기가 가까워짐에 따라 매매시장 관망세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실제 지난주 수도권 평균 주택 매매값이 하락세로 전환된 데 이어 최근에는 서울도 18주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는 소식이 들린다.

매매시장과 분양시장은 대체로 맥을 같이하는 점으로 볼 때 지금처럼 가격흐름이 엇갈리는 현상도 정상적이지 않다. 그러나 통상 분양시장은 매매시장의 후행지표의 성격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매매시장이 주춤하면 분양시장도 이를 따라갈 수밖에 없다.

시장에선 전월세 과세 강화와 같은 엉뚱한 돌직구가 결국 시장회복 의지를 꺾었다는 볼멘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또 시장을 그대로 놔뒀더라면 개발 공약이 빈발하는 지방선거 등의 호재로 인해 시장 회복이 더 가속화됐을 것이란 아쉬운 의견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최근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과 관련한 추가 대책 필요성에 대해 "시장 상황을 더 지켜보겠다"고 답했다. 위기가 터졌을 때 고강도 대책도 중요하지만 이번에는 세심한 보완책 마련이 긴요해 보인다.

이채용의 머니전쟁

공포와 탐욕 사이



미국 경제 매체인 CNNmoney가 개발한 '공포&탐욕 지수(Fear & Greed index)'라는 게 있다.

시장이 현재 두려움으로 움직이는지 욕심으로 움직이는지를 측정하는 지표다. 일명 공포지수라고도 불리는 VIX(Volatility Index)를 포함한 총 7가지로 구성된다.

△NYSE 거래량 △CBOE VIX(시카고 옵션거래소 변동성 지수) △주식시장의 가격 세기(52주 최고치와 최저치를 기록한 주식 수 비교) △정크 본드에 대한 수요 △채권시장과 주식시장의 수익률 비교 등이다.

50을 중립(Neutral)으로 보고 Greed지수가 80 이상이면 욕심이 아니라 탐욕의 영역으로 '주식 매도', Fear지수가 20 이하면 침체가 아니라 공포의 영역으로 '주식 매도' 시점으로 인식한다.

주식시장은 탐욕과 공포의 장이다. 오르는 주식은 한없이 오를 것 같고 하락하는 주식은 끊임없이 내릴 것 같다. 이 같은 비이성적 감정이 작용하는 시기에는 가격 변동성이 더욱 커지지만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내재가치에 수렴하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

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의 투자철학이 여기서 출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바로 "공포에 사서 탐욕에 팔라"는 것이다. 즉 주식시장이 공포의 대상일 때 주식을 사고, 탐욕의 대상일 때 주식을 팔라는 얘기다.

주가를 움직이는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원동력은 바로 돈을 벌려는 인간의 욕심이다. 기왕이면 조금이라도 많이 벌려는 욕심이다. 주식시장에 참여하는 그 어떤 사람도 이 욕심에는 단 한 명의 예외도 없다.

결국 주식시장의 참여자들은 모두 서로 적이다. 어떻게 해서든 남보다 싼 가격에 사서 비싸게 팔아야 내가 돈을 벌기 때문이다.

기술적 지표의 결과물들은 꽤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툴이지만 주가의 움직임을 본질적으로 결정하는 요인은 아니다.

결국 주가를 움직이는 본질적인 인자는 인간의 탐욕과 공포, 즉 심리다. 모든 부수적인 요소는 다 여기에 녹아 주가에 반영된다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을 수치적으로 분석한 결과물이 바로 기술적 지표다. 따라서 주가의 그림자에 불과한 기술적 지표에 혈안이 될 것이 아니라 인간의 심리가 주가에 반영되고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분석하는 것이 더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접근법이다.

방법은 기본적이고 일차적인데 바로 캔들 패턴, 지지와 저항, 거래량, 매집과 돌파, 되돌림, 수급 주체 분석 등이다.

사실 이런 것들은 주식 공부를 조금이라도 한 투자자라면 상당한 수준의 지식을 갖고 있다. 또 실전 매매 기법의 대부분은 이처럼 단순한 원리가 바탕이다. 하지만 이런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 깊이 고민해보지 않으면 너무나 하찮고 시시하게 느껴져 진가를 알지 못한다.

어려운 용어나 기술적 분석보다 이런 간단한 부분에 집중해서 매매 구조와 원칙을 세우는 것이 성공 가능성이 훨씬 높다.

시장부 차장 mywish73@

이투데이
社是 正道言論 經濟報國 未來指向
www.etoday.co.kr

발행인 · 편집인 김상우 편집국장 이종재 광고국장 임영재

논설실 (02)799-2657 온라인뉴스부 (02)799-2640
정치경제부 (02)799-2655 시장부 (02)799-2658 금융부 (02)799-2665
산업부 (02)799-2664 미래산업부 (02)799-2663 사회생활부 (02)799-2661
문화부 (02)799-2669 국제경제부 (02)799-2650 사진팀 (02)799-2634
광고접수 · 광고문의 (02)799-2601 / 2602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799-2603 / 2604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2010. 10. 4 등록번호 서울 가 00344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156-807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62길 1 이투데이빌딩 대표전화 (02)799-2600 팩스 (02)784-1003

청어詩人選 124



투박하지만 인정이 넘치던 추억 속 거리
무거운 일상의 짐을 잠시 내려놓고 거닐어 보자

정진권 시인의 시는 쉽고도 아름답다. 외유내강(外柔內剛)의 풍경화 같은 황톳빛 슬픔이 있다. 또한 생명의 무구한 천진성을 유감없이 드러내 준다. 그의 시는 한 없이 부드럽고 따뜻하다. 그는 분명 시처럼 살고 있고, 살아갈 것이다. —채규판(시인, 원광대 교수)

| 山岷雨 정진권 시집 |

두 할머니의 싸움

정진권(鄭鎭權)

필명: 산민우(山岷雨)
전북 김제 출생
옥구, 군산에서 성장
월간 〈한국시〉 시 등단
시집 『버보나그네』 출간
한국문인협회 회원
현재 (주)대우M&C 대표이사



당신도 책의 저자가 될 수 있다!

1999년부터 500여 권 출간
각종 문학상과 우수도서에 선정

살아가면서 자신의 이름으로 책을 한 권 남긴다는 것은 인생의 길목에서 무엇보다 값지고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책은 내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거나 여러 가지 여건(문단의 등단, 나이, 경력, 전국 서점 진열……) 때문에 망설이는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저희가 그런 문제점들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진흙 속에 숨겨진 진주를 찾는 마음으로 원고를 기다리겠습니다.
저자의 의도를 최대한 반영한 기획 단계부터의 협의, 전국 서점 유통과 판매, 언론의 보도자료 배포, 일간지 및 온라인 광고도 같이 협의하겠습니다.

〈출간 대상 원고〉
시집 · 소설 · 에세이 · 자기계발 · 인문교양 · 자서전 여행 · 인물평전 · 학습 · 칼럼 (특별한 아이템이 있는 원고 · 매스컴에 적극적인 홍보가 됐으면 하는 원고)

청어는 따뜻한 마음으로 명품 책을 만듭니다

청어 | 서울시 서초구 효령로55길 45-8
대표 02)586-0477 | E-mail ppi20@hanmail.net
www.chungeobook.com

〈청어출판사 우리말 사랑 캠페인〉
너나들이 : 서로 너니 나니 하고 부르며 허물없이 말을 건넴 또는 그런 사이

"기업 사회공헌과 이윤창출 균형 중요"

민희경 CJ 부사장, 윤경SM포럼서 CSV 주제 강연
기업·사회 온도차 커… 기부 넘어 공동이익 달성해야


민희경 CJ 부사장은 18일 윤경SM포럼에 참석해 CVS 활동에 대해 강연했다. 이투데이DB.

"CSV(공유책임활동)는 기업의 이윤과 사회공헌의 '밸런스'가 맞어야 합니다. 한곳으로 치우쳐서는 결코 되지 않습니다."

민희경 CJ 부사장은 18일 서울 중구 소공동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윤경SM포럼 4월 정기모임에 참석해 'CJ의 비즈니스 철학-사회적 책임경영과 CSV'라는 주제로 강연을 펼치며 이 같이 밝혔다.

민 부사장은 "기업은 '사회공헌'이라고 말하고, 우리 사회는 '사회책임'이라고 부른다"며 "기업과 사회 간의 온도차 때문에 외부에서 CSV 강연을 하면 마케팅 나왔냐는 질문을 자주 받는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사람들의 인식이 매우 중요한데 이를 기업이 통제하고 관리할 수 없다"며 "이 때문에 기업이 기부활동을 넘어 사회와 기업이 함께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CSV가 부각되고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CSV는 사회적 가치와 비즈니스적 가치를 함께 창출한다는 것으로, 마이클 포터 교수를 통해 알려졌다. CSR(기업의 사회적책임)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사회공헌과 기업의 이윤창출을 동시에 달성하는 활동을 말한다.

CJ는 지난해부터 CSV 경영에 대한 본격적인 시스템을 갖췄다. CSV 경영 전담조직인 'CSV경영실'을 지난해 10월 신설했으며, 각사 최고경영자(CEO)들이 소속된 'CSV경영위원회'를 발족시켰다. 특히 전 임직원 및 임직원 가족이 참여하는 나눔 도너스클럽을 운영하고 있다. CJ CVS경영은 △청소년 꿈 키움 △고용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상생의 산업생태계 조성 △진출 국가·지역사회 기여 등 4가지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민 부사장은 "CJ CSV 경영활동 중 콘텐츠 나눔사업이 중점적으로 펼쳐지고 있다"며 "문화를 통한 CVS 활동이 빛을 발하면 우리 사회에 가치를 공유하면서 CJ도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단시간에 성공했다고 자부할 수 있는 활동이 아닌 만큼 앞으로도 CSV 경영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더욱 더 강화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김혜진 기자 sinembargo@

조병채 교수 경북대병원 신임 병원장



경북대병원 제37대 병원장에 조병채(55·성형외과·사진) 교수가 임명됐다. 경북대병원은 지난 14일 교육부로부터 조병채 신임 병원장이 최종 승인을 받아 16일자로 임명돼 앞으로 3년간 임기를 맡는다고 밝혔다. 신임 조병채 병원장은 경북대 의대를 졸업하고 경북대 의대 의학석사, 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경북대병원에서 인턴과 성형외과 전공의과정 등을 마쳤으며 경북대학교병원 기획조정실장과 진료처장 등을 역임했다.

박용남 기자 bangnam@

김봉옥 충남대병원장 화이자국제협력공로상



대한의사협회와 한국화이자제약은 제9회 대한의사협회 화이자국제협력공로상 수상자로 충남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재활의학과 김봉옥〈사진〉 교수를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김 교수는 지난해 세계여자의사회 국제학술대회 조직위원장을 맡았으며 세계재활의학회에 다수의 논문을 발표하고 재활의학 전공의의 논문 지도 등 후학 양성에 기여했다. 의협과 화이자제약은 김교수가 재활의학 관련 국제 교류를 통해 한국 재활의학 발전에 이바지한 공을 인정해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김봉옥 교수는 현재 충남대학교 병원장으로 지난 2004년부터 한국여자의사회 국제이사로 활동 중이다.

박용남 기자 bangnam@


서대문구청 관계자와 홍제지역아동센터 홍지향 선생(표기판 왼쪽), 롯데건설 전략기획본부장 고수찬 상무(표기판 오른쪽)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롯데건설

롯데건설, 아동복지센터 '러브하우스' 봉사

도배·도장… 가전제품 전달도

롯데건설이 아동복지센터를 방문해 '꿈과 희망을 주는 러브하우스 봉사활동'을 펼쳤다.

17일 롯데건설은 전략기획부문장을 비롯해 본사 임직원 30여명이 아동복지센터 3곳을 찾아가 건설업 특성에 부합하는 주거환경 개선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러브하우스 봉사활동에 참가한 임직원들은 구슬땀을 흘려가며 도배와 도장, 수납장 및 붙박이장 설치, 주방 싱크대와 노후 전기설비 교체, 집안 청소 등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또한 각 센터에 냉장고, 세탁기, 전자레인지, 선풍기, 청소기 등 실용적인 가전제품을 전달하기도 했다.

롯데건설은 지난해 4월 서대문구와 사업 협약을 맺고 기초생활수급자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곳에 건설업 특성을 살려 집수리 봉사활동을 꾸준히 해왔다.

또한 롯데건설은 전 임직원이 매달 사회에 환원한 급여만큼 회사가 돈을 기증하는 매칭그랜트 제도로 마련된 '사랑나눔 기금'을 조성해왔다. 매칭그랜트 제도를 통해 마련된 기금을 재원으로 80여개의 사랑나눔 봉사단이 그동안 자율적으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쳐왔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내외 사랑나눔 봉사단 80여개 팀의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이 기대된다"며 "지속해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따뜻한 사랑을 전파할 수 있는 따뜻한 기업이 되겠다"고 밝혔다.

구성헌 기자 carlove@

삼성전자, 농가돕기 '착한감자' 캠페인

5kg 8000박스 구입



삼성전자가 감자 풍작에 따른 가격 하락 및 소비저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원도 감자농가를 돕기 위해 '1석3조 착한감자' 캠페인을 펼쳤다.

이번 캠페인은 수원 디지털시티에 근무하는 임직원들과 회사가 뜻을 모아 지난 8일부터 닷새동안 진행됐다. 삼성전자는 캠페인을 통해 감자 총 4만kg(5kg, 8000박스)을 구입했다. 수원 사내 식당용으로 2만kg을 구입했고, 임직원들이 본인 구매 또는 푸드뱅크 기증을 통해 총 2만kg을 구입했다.

삼성전자 수원자원봉사센터 김석은 부장은 "삼성전자 임직원들과 회사가 뜻을 모아 펼친 '1석3조 착한감자' 캠페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원도 감자농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서지희 기자 jhsseo@

'백년 동안의 고독' 노벨상 작가 마르케스 타계

10여년 림프암 투병… 향년 87세



세계적 베스트셀러 '백 년 동안의 고독'의 작가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가 17일(현지시간) 멕시코시티 자택에서 지병으로 별세했다고 미국 CNN이 가족들의 발표를 인용해 보도했다. 향년 87세.

마르케스는 지난달 31일 멕시코시티의 국립의료과학연구소에 폐와 요로감염증으로 입원해 치료를 받고 나서 지난 9일 퇴원한 바 있다. 그는 10여년간 림프암으로 투병해왔다.

그는 스페인어 작가 중 가장 위대한 작가로 통하며 마술적 사실주의(Magical realism)로 불리는 스토리텔링 기법의 대중화를 이끈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그의 대표작으로 통하는 1967년 작 '백 년 동안의 고독'은 전 세계적으로 3000만부가 팔릴 정도로 큰 사랑을 받았으며 이 작품을 통해 1982년 노벨문학상을 받았다.

1927년 콜롬비아의 마그달레나주 아라카타카 출생인 마르케스는 수도 보고타의 카르타헤나대에서 법률학과 언론학을 전공했다. 이후 기자가 돼 유럽특파원으로 일하다 멕시코에서 창작 활동을 시작했다. 마르케스는 치매증상으로 2012년부터 집필활동을 중단했다.

김나은 기자 better68@

정민근 이사장, 제자들과 함께 포스텍에 1억 기탁



정민근〈사진〉 한국연구재단 이사장이 27년간 몸담았던 포스텍을 퇴직하며 제자들과 함께 1억원을 대학 발전기금으로 기탁했다. 포스텍에서 교수로 근무한 정 이사장은 포스텍의 발전과 후진 양성, 학문 진흥을 위해 기금을 출연하기로 하고 50여명의 제자들과 함께 대학발전기금 1억원을 모금했다. 포스텍은 정 이사장을 대학 명예교수로 추대하고 '정민근연구실 기금'을 제정해 산업경영공학 분야의 학문 발전을 위한 기금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박용남 기자 bangnam@

34회 장애인의 날 수상자

"이웃 도우니 내 삶에 활기"

최복자씨 충북 옥천군 군수상
뇌병변 3급·지체장애 4급 판정
반찬 배달하며 홀몸 노인 돌봐



자신의 몸도 불편한 여성장애인이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봉사활동에 앞장서고 있어 귀감이 되고 있다. 충북 옥천군 옥천읍 마암리에 사는 최복자(사진 오른쪽)씨는 주위에서 '반찬 아줌마'로 더 유명하다.

충북 옥천군은 18일 제34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에서 최복자씨에게 군수상을 줄 예정이라고 밝혔다.

어린시절 원인 모를 병에 걸려 오른쪽 수족 무력증을 앓게 된 그녀는 1994년 뇌병변 3급과 지체장애 4급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그녀는 장애에 주눅들지 않고 몇 차례의 도전 끝에 2003년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했으며 매주 목요일 옥천군노인장애인복지관을 찾아 불우이웃에게 밑반찬을 배달하고 있다.

반찬배달을 하면서 홀몸 노인의 외로운 삶을 자주 접한 그녀는 2008년과 2010년 요양보호사와 웃음치료사 자격까지 취득, '행복 전도사'로 변신했다.

틈날 때마다 혼자 사는 노인들을 찾아다니며 말벗이 돼주고 옥천군노인장애인복지관 등을 정기적으로 오가면서 노인과 장애인에게 웃음을 선물하고 있다.

최씨는 "나보다 못한 이웃에게 도움을 주면서 내 삶에도 활기가 생겼다"며 "힘이 닿을 때까지 이웃과 나누는 삶을 살고 싶다"고 환한 웃음을 지어보였다.

구성헌 기자 carlove@

"장애 가족 고통 누구보다 잘 알죠"

백경학씨 보건복지부 국민포장
아내 한쪽 다리 잃은 후 다짐
국내 첫 어린이 재활병원 세워



"치료를 받는 환자와 가족의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환자중심 유럽형 재활병원을 만들겠다고 결심했고 그 꿈은 마침내 현실이 됐습니다."

과거 기자생활을 하던 백경학〈사진〉씨는 독일 유학 시절 가족들이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을 듣게 된다. 이 사고로 그의 아내는 한쪽 다리를 잃는 장애인이 됐다. 아내는 해외 시설에서 재활치료를 받던 중 국내로 돌아가 치료받길 원했지만 열악한 현실에 충격을 받게 된다. 이후 그는 앞으로 남은 인생을 장애인을 위해 살겠다고 다짐한다.

백씨는 지난 2005년 3월 푸르메재단을 설립해 장애인의 재활치료 및 장애인의 인식개선 활동을 시작한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생긴 어린이 재활병원이다. 그는 평소 장애인에 대한 투철한 사명감과 봉사정신으로 장애인을 위한 시설을 만들고 영원히 장애인을 위해 시설이 사용될 수 있도록 건물을 무상 기부채납까지 했다.

백씨는 이같은 공로를 인정받아 오는 20일 '제34회 장애인의 날'에 보건복지부로부터 국민포장을 수여받는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장애인 인권과 복지 향상을 위해 헌신한 장애인복지 유공자 16명에 대해 훈·포장 및 표창을 수여했다.

이번 장애인의 날에는 서울시립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 한정석 관장이 국민훈장 목련장을 받는다. 한 관장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교육장 개설 및 직업교육을 통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밑거름을 제공했고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했다는 평가다. 부산광역시지체장애인협회 김광표 회장은 국민훈장 목련장을, 한국장애인선교단체총연합회 김광식 회장과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원종필 사무총장이 나란히 국민훈장 석류장을 받았다. 국민 포장에는 백경학씨를 포함해 한국정보화진흥원 홍경순 부장, 한국시각장애인복지관 신동열 관장이 선정됐다. 이밖에도 김소영씨, 김무진씨, 이종학씨, 구춘화씨, 국민연금공단 등이 대통령표창을 김혜중씨, 이경욱씨, 김금자씨, 우창구씨 등이 국무총리표창을 수여받는다.

김부미 기자 boomi@

인사

◆미래창조과학부 ◇국장급 전보 △연구개발조정국장 문성유

◆한국철도시설공단 ◇처장급 전보 △비서실장 이명환 △감사실장 석호영 △안전실장 석종근 △기획혁신본부 정보관리처장 오왕교 △기획혁신본부 법무처장 홍성욱 △건설본부 일반철도처장 장봉희 △건설본부 광역민자철도처장 정천덕 △기술본부 전철전력처장 최종길 △기술본부 궤도처장 하복수 △시설사업본부 자산개발사업처장 권영삼 △연구원 정책연구소장 신동식 △수도권본부 건설총괄처장 양성직 △호남본부 시설지원처장 이영주 △충청본부 건설기술처장 김인재 △강원본부 건설기술처장 권오혁

◆서울시 ◇2급 승진 △기후환경본부장 장혁재 ◇3급 승진 △ 물관리정책관 정만근

◆경북대병원 △진료처장 정호영 △기획조정실장 탁원영 △교육수련실장 이석종 △홍보실장 염헌규 △생명의학연구원장 김용림

◆경희대학교 △Info21사업단장 홍충선

◆한국일보 ◇편집국 △국장석 선임기자 최윤필 △스포츠부 부장직대 최형철 △디지털뉴스부 총괄팀장 김영환 △〃 뉴스팀장 최진주 △〃 광고팀장 이영창

◆포커스신문·경제투데이 △대표이사 김인영

부음

▲장충기(삼성 미래전략실 사장)·용기(의사)·계선·혜선·희선씨 부친상, 안준수(전 부산은행 전무)·신양재(학원장)·강재현(변호사)씨 장인상 = 17일 오후, 삼성서울병원, 발인 20일, 02-3419-6917

▲신혜헌(백석대학교 교수)씨 모친상, 이승환(신영증권 PI부 부장)씨 장모상 = 17일, 서울 보라매병원, 발인 19일 오전, 02-841-7652

▲이용희(청주시 상당구청 세무과 시세담당)씨 부친상 = 16일 오후, 경주 동국대병원, 발인 19일 오전, 054-770-8333

▲장연철(청주시의회 복지환경전문위원)씨 모친상 = 17일 오전 2시 30분, 청주의료원, 발인 19일 오전, 043-279-0144

▲박수현(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씨 부친상 = 16일 오후, 충남 공주시 계룡농협 장례식장, 발인 19일 오전, 041-853-4444



Cover Story

아이돌, 대중문화 점령

"아이돌 없는 한국 대중문화를 상상하기 어렵다.
한국 대중문화는 아이돌을 위한,
아이돌에 의한, 아이돌 문화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국 대중문화를 소비하는 수용자나 제작자 모두
이 말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공감할 것이다.
이 말은 현재 시청자와 관객 그리고
청취자가 만나는 대중문화의 각 분야에
활동하는 아이돌을 보면 금세 절감한다.

아이돌스

'씨스타' 다솜·'2PM' 택연·'빅뱅' 탑·'소녀시대' 윤아… 가요는 기본 드라마·영화·뮤지컬·예능 등 멀티플레이 한류 흥행파워 시장 활성화 기여… 독식현상은 문제

KBS '사랑은 노래를 타고'의 다솜, '참 좋은 시절'의 택연 등은 시청률 1위를 놓고 겨루는 드라마의 주역이다. 다솜과 택연은 아이돌 그룹 씨스타와 2PM 멤버다. 영화 '동창생'의 주연 탑과 '배우는 배우다'의 주연 이준 역시 아이돌 그룹 빅뱅과 엠블랙 출신이다. 뮤지컬계 최고 흥행파워를 자랑하는 '그날들', '엘리자벳'의 김준수, 일본과 중국팬을 몰고 다니는 '삼총사'의 성민, 젊은 팬들에게 폭발적인 사랑을 받는 '풀하우스'의 양요섭도 아이돌그룹이다. 인기 예능 프로그램 '진짜 사나이'의 박형식, '라디오스타'의 규연, 모바일 드라마 '20's 스무살'의 이기광, 라디오 프로그램 '심심파타'의 신동,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 OST '안녕'을 부른 효린, 애니메이션 '슈퍼배드'더빙 태연 서현….

아이돌그룹 멤버들은 이제 더 이상 음악만 하지 않는다. 아이돌은 음악을 넘어 드라마, 예능 프로그램, 영화, 라디오, 뮤지컬부터 새롭게 각광받는 모바일 드라마까지 한국 대중문화 전부문을 장악하고 있다. 그야말로 아이돌 대중문화 독식시대가 열리고 있는 것이다.

아이돌그룹이 본격화한 것은 1996년 H.O.T다. H.O.T를 기점으로 젝스키스, SES, 핑클, NRG, 베이비복스 등 아이돌 그룹들이 쏟아져 나왔다. 이들은 방송 음악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높은 인기를 끌었다. 이 당시 아이돌 그룹은 댄스 등 퍼포먼스는 뛰어났지만 립싱크 등을 하며 가창력에 적지 않은 문제를 드러내 가수로서는 비판을 받았다. 그리고 2002년 핑클의 성유리가 드라마 '나쁜 여자'에 출연해 연기자로서 모습을 보이고 SES 출신의 유진이 드라마 '러빙유'에 주연으로 나서고 베이비복스가 예능 프로그램 '뷰티풀 라이프'에 출연하는 등 아이돌 가수들이 2000년대 들어서 가수와 연기, 예능 겸업시대를 열었다. 하지만 연기력 부재 논란에 휩싸이며 아이돌 가수 출신 연기자 = 연기력 부족이라는 등식이 성립해 연기 겸업 아이돌 가수에 대한 곱지 않는 인식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이러한 부정적인 시선에도 불구하고 아이돌 가수들은 인기를 발판 삼아 드라마, 예능 프로그램, 라디오 DJ 등 다양한 대중문화 활동을 펼쳤다. 1990년대 중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 아이돌 그룹은 일정 기간 가수로서 활동을 하다 인기를 얻으면 이를 기반으로 연기나 예능 프로그램에 진출하는 코스를 밟았다.

하지만 2000년대 중후반부터 등장한 아이돌은 가창력뿐만 아니라 연기수업, 예능인으로서 갖춰야 할 진행능력을 데뷔 전부터 교육받아 아이돌그룹 데뷔와 동시에 연기나 예능겸업에 나섰다. 원더걸스의 소희나 소녀시대의 윤아, SS501의 김현중처럼 아이돌 그룹 데뷔와 동시에 연기,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멀티엔터테이너로서 활동을 본격화했다. 그야말로 아이돌 멀티 유스(Idol Multi-Use) 시대를 활짝 연 것이다.

드라마, 예능 프로그램, 영화, 뮤지컬 등 대중문화 전반에 걸쳐 아이돌 독식현상이 더욱 가속화돼 이제는 아이돌 없는 한국 대중문화를 상상할 수 없다. 왜 이처럼 아이돌이 지배하는 대중문화 현상이 심화된 것일까.

우선 가장 큰 원인은 아이돌을 육성하는 연예기획사에서 보다 많은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 아이돌을 양성하는 단계에서부터 다양한 분야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시키고 멀티엔터테이너로서 활약시키려는 마케팅 전략을 구사하기 때문이다.

또한 아이돌그룹은 강력한 팬덤을 확보하기 때문에 강력한 티켓파워를 갖고 있다. 드라마나 영화, 뮤지컬 제작자들이 앞다퉈 흥행과 홍보, 광고에 강점을 보이는 아이돌 스타들을 기용하는 것도 아이돌의 대중문화 독식현상을 심화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한류의 급성장으로 외국팬까지 확보할 수 있는 점도 아이돌의 멀티엔터테이너로서의 면모를 더욱 강화시키는 분위기를 조성했다. 여기에 아이돌을 기용했을 때 투자에서부터 제작이 용이하다는 점도 아이돌의 대중문화 지배를 가져온 원인으로 작용한다.

아이돌이 대거 대중문화를 장악하면서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현상이 동시에 초래됐다. 아이돌의 다양한 대중문화 활동은 대중문화 전반에 관심을 고조시키고 시장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했다. 특히 외국 한류팬의 한국 대중문화 상품 소비의 일등공신 역할을 했다. 또한 아이돌로 인해 보다 다양한 인적 인프라가 구축돼 대중문화 경쟁력 향상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음악 이외의 드라마나 영화, 뮤지컬 등에 진출하며 철저한 실력과 준비가 안돼 대중문화 상품 완성도를 저하시키는 등 문제점을 양산하고 있다. 또한 특정 연예기획사의 아이돌의 대중문화 독식 현상이 가중돼 실력 있는 인재 진출이 가로막히는 부작용도 초래되고 있다. 그리고 아이돌이 대중문화 전반에 몸값 상승과 독식을 주도하며 제작환경이 열악해지고 작품의 완성도를 저하시키는 역기능도 생겨나고 있다.

배국남 기자 knbae@
그래픽 신미영 기자 win8226@

커버스토리 18·19면

연기력 쑥쑥… 예능감 톡톡… 아이돌의 진화는 무죄



영화

임시완, 몸 사리지 않은 고문 연기
옥택연·가인·설리 등 도전 잇따라


브라운아이드걸스 가인

영화 '변호인'은 지난해 1000만 관객을 달성하며 신드롬을 일으켰다. 명불허전 연기자 송강호의 원맨쇼 속에 국밥집 아들 진우 역을 맡은 제국의 아이들 임시완이 강렬한 존재감을 발휘했다. 팬티만 입고 고문을 받는 등 몸을 사리지 않는 연기로 극에 녹아든 임시완은 '변호인'이 스크린 데뷔작이었다.

빅뱅의 멤버 탑(TOP)은 영화 '포화 속으로'를 통해 단숨에 영화배우로 거듭났다. 지난해 11월에는 '동창생'에서 남파 간첩 리명훈 역을 맡아 절제된 액션 연기로 화려한 볼거리를 선사했다. '포화 속으로' 이후 3년 만의 영화였지만 위화감은 찾아볼 수 없었다.

지난해 10월, 소지섭, 강지환의 '영화는 영화다'를 잇는 센세이션 화제작 '배우는 배우다'가 선택한 배우는 엠블랙 이준이었다. 이준은 비의 할리우드 진출작 '닌자 어쌔신'에서 라이조(비)의 아역으로 출연한 적 있지만 제대로 된 주연 데뷔작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이준은 연예계의 단면을 사실적으로 그려내며 영화의 현실성을 높였다는 호평을 이끌어냈다.

아이돌의 영화 진출 시초는 H.O.T와 젝스키스다. 젝스키스는 1998년 개봉한 청소년 영화 '세븐틴'에 나왔고, H.O.T는 2000년 개봉한 SF 단편 영화 '평화의 시대'에 출연했다. 하지만 이는 팬을 위한 서비스 형태에 불과한 것으로 영화의 완성도는 중요치 않았다. 이제는 아이돌 그룹 일원이 영화에 출연, 연기력과 흥행성, 작품성에 기성 배우 못지않은 역량이 요구된다.

영화를 통해 배우로 우뚝 선 대표적인 스타가 미쓰에이 멤버 수지다. 수지는 영화 '건축학개론'에서 건축가 승민(엄태웅)의 대학시절 첫사랑 서연(한가인)의 아역을 연기해 단숨에 '국민 첫사랑'에 등극했다.

이 같은 현상은 최근 두드러진다. '결혼전야'에서 이연희와 호흡을 맞춘 2PM 옥택연, '노브레싱'에서 서인국, 이종석의 사랑을 독차지한 소녀시대 유리, '조선미녀삼총사'에서 하지원, 강예원과 섹시 액션을 선보인 브라운아이드걸스 가인 등 아이돌의 스크린 진출은 더 이상 어색하지 않다. f(x) 멤버 설리는 사극 대작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김남길, 손예진 주연의 '해적: 바다로 간 사나이'에 출연하며 영화 '패션왕'의 출연도 확정했다. 최두선 기자 sun@

드라마·예능

다솜·바로·보라 '안방극장' 맹활약
박형식·김동준 주말예능 종횡무진


B1A4 바로

아이돌이 드라마와 예능프로그램의 필수 아이콘으로 자리잡았다. 아이돌은 예능프로그램에서 MC 자리를 꿰차는가 하면 다양한 장르의 드라마에 출연해 연기돌이라는 애칭까지 얻으며 맹활약하고 있다. 최근 방송가를 장악한 아이돌은 누가 있을까.

안방극장에서는 일주일 내내 아이돌을 만날 수 있다. 씨스타 멤버 다솜은 KBS 1TV '사랑은 노래를 타고'에서 뮤지컬배우 지망생 다솜 역을 맡아 매일 시청자를 만난다. SBS 수목드라마 '신의 선물'에서 B1A4 바로는 지적장애인 기영규 역을 맡아 장애인 연기를 소화했고, 시크릿 한선화는 연쇄살인범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제니 역을 맡아 열연 중이다. 한류스타 박유천은 SBS 월화드라마 '쓰리데이즈'에서 경호관으로 분해 짙은 카리스마를 뽐내며 극을 이끌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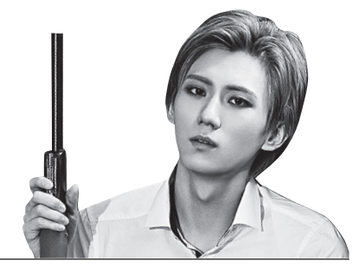
이밖에 빅뱅 승리(SBS '엔젤아이즈'), 빅스 홍빈과 레인보우 우리(SBS '기분좋은날'), 씨스타 보라(SBS '닥터이방인'), 2PM 옥택연(KBS '참 좋은 시절'), 2AM 임슬옹(MBC '호텔킹'), 엠블랙 이준(tvN '갑동이'), 카라 한승연(미니드라마 '여자만화 구두') 등이 연기돌로 변신을 꾀했다.

아이돌은 예능프로그램도 장악했다. 원조 아이돌부터 갓 데뷔한 신인아이돌까지 다양하다. H.O.T. 리더였던 문희준(KBS '불후의 명곡')과 젝스키스 출신 은지원('불후의 명곡', '비타민')을 비롯해 제국의 아이들 박형식(MBC '진짜사나이')·김동준(SBS '정글의 법칙 in 보르네오'), 2PM 우영(MBC '우리결혼했어요'), 소녀시대 수영(SBS 한밤의 TV 연예), 동방신기 최강창민(KBS '우리동네 예체능'), 엑소(MBC every1 '엑소의 쇼타임') 등 가요계에 내로라하는 대표 아이돌이 젊고 패기 넘치는 에너지로 시원한 웃음을 선사한다.

라디오에서도 아이돌을 만날 수 있다. 슈퍼주니어 멤버 신동(MBC 표준FM '신동의 심심타파')과 려욱(KBS 2FM '슈퍼주니어의 키스 더 라디오')은 발랄하면서도 부드러운 목소리로 매일 밤 청취자들의 청각을 자극하며 섬세하고 따뜻한 감성을 전하고 있다. 김민정 기자 mj_kim@

뮤지컬

장현승·규현·양요섭 활발한 활동
K뮤지컬 흥행몰이 주역으로 부상


비스트 장현승

아이돌 스타의 뮤지컬 출연은 K뮤지컬의 흐름을 타고 강세를 보이고 있다. 춤 실력, 가창력을 밑바탕으로 하는 아이돌 스타의 활약은 관객의 발걸음을 공연장으로 끌어들이고 있다.

샤이니 키, 제국의 아이들 박형식, 비스트 장현승은 15일 개막한 뮤지컬 '보니 앤 클라이드'에서 타이틀롤 클라이드 역을 맡는다. 지난달 30일 막 내린 뮤지컬 '삼총사'에 이어 주역으로 선 키와 박형식, 그리고 2012년 뮤지컬 '모차르트!'의 타이틀로 처음 데뷔한 장현승은 이번 무대에서 자신의 끼를 마음껏 펼쳐낼 예정이다. 아울러 뮤지컬 '해를 품은 달'을 통해 소녀시대 서현, 천상지희 린아 등과 함께 애절한 사랑을 표현했던 슈퍼주니어 규현은 6월 막 올리는 뮤지컬 '싱잉 인 더 레인'에 출연한다.

또한 아련한 분위기의 뮤지컬 '광화문 연가'에서 활력을 불어넣는 감초 연기를 선보이더니, 성경 속 인물인 요셉의 이야기를 현대적 시각으로 유쾌하게 풀어낸 뮤지컬 '요셉 어메이징'에서 주인공 요셉을 연기했던 양요섭은 지난 11일부터 상연한 '풀 하우스' 무대에 선다. 여기에는 뮤지컬 '리걸리 블론드'(2013)로 뮤지컬에 처음 데뷔한 에이핑크 정은지 또한 출연해 특유의 쾌활함을 과시할 계획이다.

이처럼 현역 아이돌 가수 출신의 뮤지컬 맹활약이 가능했던 데는 옥주현과 바다와 같은 아이돌 1세대가 뮤지컬에 진출해 그 흐름을 개척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막강한 티켓 파워로 영향력을 드높인 김준수도 긍정적 영향을 가져왔다.

옥주현은 최근 가진 인터뷰에서 "아무래도 이름이 알려진 아이돌 출신인 까닭에 작품에 출연하면 대내외적으로 광고효과를 기대하는 측면이 크다. 그러나 시간이 점차 흐를수록 연기자 스스로도 이러한 스타 마케팅에 기댈 수는 없다. 공연장을 찾는 관객에게 만족을 줘야 하기 때문이다. 결국 연기자의 실력만이 남기 때문에 아이돌 가수로서 뮤지컬 장르에 걸맞은 자기계발에 더욱 힘써야 한다"고 밝혔다.

연동원 평론가는 "원조 아이돌 출신으로 뮤지컬에서 활약하고 있는 이들과 달리, 인기만을 가지고 출연하는 일부 현역 아이돌의 경우, 작품 전체에 리듬을 깨뜨린다"고 꼬집었다.

이꽃들 기자 flowerslee@

KYOBO 교보증권
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 14-01297호(2014.03.12 ~ 2014.12.31)
www.iprovest.com
모바일 주식거래도 하고, 지원금도 받고~ 馬음껏 누리세요!
SMART K
음껏~ 누리자!
교보증권 SMART K
이벤트 기간 2014.2.10 ~ 2014.12.31.
누림 하나
1. 매 2주간 10억원 이상 거래금액 상위200명 10만원 지급
2. 월간 누적 거래금액 상위 5명 50만원 상품권 지급
※ 기존이벤트 참가자는 참여 불가
※ 월간 누적 상위는 해당월초부터 말일날까지 집계하여 지급
※ SMART K로 매매한 주식 거래금액만 인정
※ 발표는 해당회차 종료 후 SMART K 및 홈페이지 공지 예정
누림 둘
은행연계 개설계좌 거래시 0.014%의 착한 주식거래 수수료
※ 무기한 적용(정책 변경시 홈페이지 공지)
누림 셋
고객님의 부담을 줄여드리는 4.95%의 저렴한 신용융자 이자율
융자사용기간 | 30일 이내 | 31 ~ 60일 | 61 ~ 90일 | 91 ~ 180일 | 연체이자율
이자율 | 4.95% | 5.0% | 5.5% | 9.0% | 12%
※ 무기한 적용(정책 변경시 홈페이지 공지)
※ 신용 거래이용시 신용거래 약관 및 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013 스마트앱어워드 대상 금융/증권서비스 부문 대상 수상
최고 권위의 우수 모바일 앱을 선정하는 (사)한국인터넷전문가협회 주관 [제3회 스마트앱어워드]
금융 증권서비스부문에서 전문가들로부터 최고 앱으로 인정받아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AA APP AWARD 13 WINNER SMART K
투자유의사항
1. 당사는 본 서비스 및 투자상품 등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반드시 충분한 설명을 듣고 투자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2.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3. 원금손실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당첨자 발표 이후 연락처(휴대폰)불명 등의 이유로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당첨 자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5. 당사의 사정으로 이벤트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6. 담보유지비율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회사가 담보증권을 임의 처분할 수 있습니다.

드라마·뮤지컬·영화… 장르마다 '믿을맨' 따로 있네

분야별 최고 스타는

박유천 '성균관 스캔들' '쓰리데이즈'

5작품 연속 두자릿수 시청률 기록

김준수 '엘리자벳'

자신만의 연기 스타일 만들기 성공

이준 '배우는 배우다'

베드신·욕설·흡연 적나라하게 소화

유이 '오작교 형제들' '황금무지개'

잇단 주인공 캐스팅 브라운관 장악

수많은 아이돌이 대중문화계에 깊숙이 침투했지만 확실하게 대중적 성공을 거둔 이는 손에 꼽힌다. 스타성과 흥행 가능성, 실력을 두루 갖춘 '믿고 쓰는' 아이돌은 누구일까.

JYJ 박유천은 브라운관을 장악했다. 2010년 화제작 '성균관 스캔들'의 주인공 이선준 역으로 연기에 입문한 그는 순식간에 안방극장을 파고들었다. 현재 방송 중인 SBS 수목드라마 '쓰리데이즈'의 신경수 PD는 박유천의 연기에 대해 "회를 거듭할수록 깜짝 놀란다"면서 "액션은 무술감독이 극찬했을 정도"라고 덧붙였다.

특히 박유천은 아이돌 출신 연기자 중 독보적 흥행력을 자랑한다. 출연작의 평균 시청률을 살펴보면 '성균관 스캔들' 10.1%, '미스리플리' 15.4%, '옥탑방 왕세자' 14.8% '보고싶다' 11.6%를 기록했다. '쓰리데이즈' 역시 안정적 10%대 시청률을 보이고 있어, 그는 5작품 연속 두 자릿수 시청률을 유지하는 기록을 세웠다.

한류 스타인 만큼 해외 흥행력도 확실하다. 지금까지 출연한 모든 작품이 일본에서 방영됐으며 DVD도 불티나게 팔려 나갔다. '쓰리데이즈'는 회당 5만 달러(약 5200만원)에 육박하는 금액으로 중국에 수출됐다. '별에서 온 그대'를 뛰어넘는 역대 최고 수준이다.

JYJ의 또 다른 멤버 김준수는 뮤지컬계 '흥행 보증수표'로 자리매김했다. 그는 2010년 '모차르트'에 출연, 당시 3000석 규모의 서울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15회 공연을 완전 매진시키며 화려하게 데뷔했다. 이어 '천국의 눈물'과 '모차르트' 앙코르 공연도 차례로 매진시키며 독보적 티켓파워를 과시했다.

김준수의 등에 날개를 달아준 작품은 2012년 '엘리자벳'이다. 죽음을 연기한 그는 가창력과 연기력을 인정받아 '제18회 한국뮤지컬대상' 남우주연상을 거머쥐었다. 청강문화산업대 뮤지컬학과 이유리 교수는 "4년 연속 부동의 티켓 파워를 유지하는 것은 아이돌 출신이란 후광만으로는 불가능하다"면서 "자신이 부족한 부분을 극복하기 위한 열정과 성실함, 자신만의 연기 스타일을 구축하는 능력 등이 김준수를 최고의 자리에 오르게 했다"고 평가했다.

브라운관과 무대는 이미 아이돌이 장악했지만 스크린은 아직 개척지대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걸출한 아이돌 출신 배우 2명이 나타났다. 김기덕 감독에게 발탁된 엠블랙 이준과 '변호인'으로 1000만 배우 대열에 오른 제국의아이들 임시완이 그 주인공이다.

이준은 '배우는 배우다'에서 아이돌의 금기를 깨고 베드신, 흡연, 욕설을 적나라하게 소화했다. 김기덕 감독은 "이준의 데뷔 전 고생담을 듣고 이 친구야말로 '배우는 배우다' 주인공의 기초를 갖고 있다고 생각했다"고 캐스팅 이유를 전했다. 이에 더해 이준의 연기 열정을 높이 사며 "땅에서 솟아난 배우"라고 칭했다. 임시완은 송강호, 조민기, 이성민 등 베테랑 배우 사이에서 인상적인 연기를 펼치며 '변호인'의 '1000만 돌풍'에 기여했다. MBC 드라마 '해를 품은 달'로 스타덤에 오른 그는 MBC 새 수목극 '트라이앵글'을 통해 다시 브라운관을 접수할 예정이다.

걸그룹 중에서는 미쓰에이 수지와 애프터스쿨 유이의 활약을 빼놓을 수 없다. 영화 '건축학개론'으로 스타덤에 오른 수지는 '구가의서'에서 주인공 담여울을 맡으며 연기자로 자리매김했다. '10억 소녀'란 별명이 붙을 정도로 CF계 러브콜도 끊이지 않는다. '오작교 형제들'로 최고시청률 37.7%를 달성한 유이는 '전우치', '황금무지개'에서 연이어 주인공을 연기하며 안방극장에서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다.

유혜은 기자 euna@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김준수·박유천·이준·유이. 뉴시스

전문가들 의견 들어보니

贊 넘쳐나는 끼… 흥행파워 '굿'

재능에 성실한 태도 친화력 겸비

해외시장 반응 좋아 경제발전까지

뮤지컬, 영화, TV드라마 등 다양한 대중문화 분야에 아이돌 스타들이 진출해 맹활약하고 있다. 아이돌 스타의 진출이 어떠한 이유로 각광 받고 있는 것인지, 그 긍정적 측면은 무엇인지 3명의 전문가에게 직접 견해를 들어봤다. 뮤지컬 홍보사 랑의 신동은 기획이사는 "최근에는 아이돌과 연기자가 구분 없이, 서로 간에 영화, 드라마, 뮤지컬 등 다양한 분야를 넘나들고 있다. 이제는 굳이 영역을 나눌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입을 열었다. 실질적으로 전문가들은 옥주현, 바다, 김준수, 박유천, 이준 등의 사례로, 두드러진 재능과 성실한 태도 그리고 타 출연배우, 제작진과 어우러질 줄 아는 친화력을 겸비한 아이돌 출신 스타의 활약을 호평했다. 영화와 TV브라운관은 물론 고유 분야의 전문성으로 무장해 견제가 심했던 뮤지컬계에도 이제는 혁혁한 아이돌 바람이 불고 있는 것은 그로 인한 긍정적 효과가 만만치 않다는 것을 방증한다. 문화 콘텐츠 제작사 HJ컬처 한승원 대표는 아이돌 가수의 진출로 발휘되는 가장 큰 효과로 흥행 파워를 언급했다. 한 대표는 "여전히 아이돌 스타 마케팅이 작품 성공의 중대한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하는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이어 한 대표는 뮤지컬을 예로 들며 "아이돌이나 스타들이 뮤지컬에 참여하는 횟수가 늘어나면서 뮤지컬이라는 장르가 한층 대중화됐다. 뿐만 아니라 해외 진출에 유리한 점 등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밝혔다. 엠뮤지컬아트 이현일 회장은 "한국은 한 분야에 한정되지 않고 끼와 재능을 펼칠 수 있는 엔터테인먼트의 인적자원이 풍부하다. 이는 다양한 대중문화 분야에 수평적 교류 측면에서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아울러 해외 시장에서 반응이 좋은 아이돌을 활용한다면, 국가적 경제발전까지도 이룰 수 있다"고 역설했다.

이꽃들 기자 flowerslee@

反 시작부터 주연… 연기 불안

바쁜 스케줄에 준비시간 부족

양질의 작품 제작하는데 어려움

아이돌의 활동 영역은 더 이상 대중음악에 국한되지 않는다. 안방극장에는 '연기돌'의 영역이 광범위하게 형성돼 있고, 대다수 드라마와 영화의 캐스팅 소식에는 심심치 않게 아이돌이 언급된다.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 웃음을 주는 것도 아이돌의 몫이다. 다재다능한 아이돌이 연예계를 장악하고 있다.

아이돌의 득세에 대한 각계각층의 시선은 가지각색이지만 상대적으로 높은 인기만 믿고 준비 없이 작품에 임한다는 우려의 시선이 가득하다. 송병준 그룹에이트 대표 겸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 부회장은 "흔히 연기돌이라 부르는 친구들에 대해 신인 연기자나 기획사는 밥그릇을 뺏긴다는 이유로 부정적 생각을 가진 경우가 많다. 무엇보다 인기 아이돌의 경우 워낙 많은 활동을 하기 때문에 준비할 시간조차 없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보스를 지켜라' '내 연애의 모든 것' '세 번 결혼하는 여자'의 연출을 맡은 손정현 PD는 "드라마 제작자 입장에서 흥행 때문에 아이돌을 주연으로 캐스팅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런 현상은 작품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아이돌 당사자에게도 좋지 않은 일이다. 단역부터 차근차근 올라가는 마인드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지난해부터 두각을 나타낸 아이돌의 스크린 진출에 대해 윤성은 영화평론가는 "아이돌의 영화계 진출에는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장기적 영화 발전에서 봤을 때 아이돌 의존도는 위험 부담을 갖고 있다. 인기에 편승한 작품의 흥행은 기대할 수 있겠지만 양질의 작품을 제작하는 데 있어 어려움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최두선 기자 sun@





배국남의 ★타성공학

⑥1 배우 김희애

외모·연기력… 다 가진 우아한 그녀? 대본 손에서 놓지 않는 성실한 그녀!



요즘 김희애(47)는 단연 뜨거운 스타다. 화제와 관심의 강도가 신세대 스타 못지않다. 시청자의 열렬한 환호를 받고 있는 JTBC 드라마 '밀회'의 주연으로, 그것도 파격적 사랑을 표출하는 캐릭터를 맡았다. 재벌 예술재단의 기획실장인 40세 유부녀로 20세 연하의 천재적 연주 재능을 가진 퀵서비스 배달원과의 사랑을 하는 오혜원 역을 맡았다. 김희애이기에 가능했다. 설정과 캐릭터가 우리 상황에서 거부감을 초래할 수 있지만 시청자들은 김희애가 연기하고 있는 오혜원에 빠져 있다. 그리고 매회 드라마가 끝나면 "역시 김희애!"를 외친다.





최근 개봉해 관객들로부터 호평을 받은 영화 '우아한 거짓말'의 잔잔한 파문을 일으킨 주역도 바로 김희애다. 김희애는 아무 말 없이 세상을 떠난 14세 소녀의 비밀을 찾아가는 엄마 현숙 역을 맡아 일상성의 연기를 진정성으로 빼어나게 살려내 관객의 공감을 유도했다. "대단한 김희애"라는 반응이 쏟아졌다.

그리고 지난 1월 끝난 tvN 예능프로그램 '꽃보다 누나'에선 단아하고 우아하며 흐트러짐 없는 이미지의 김희애의 생활이 일부 드러나며 대중과의 거리감을 좁혔다. 드라마와 영화를 통해 대중과 만나 온 김희애는 광고를 통해 우아하고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견고하게 구축했다. 이러한 이미지의 김희애는 대중이 쉽게 다가가기에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시청자들은 '꽃보다 누나'를 통해 김희래를 비로소 친근하게 수용하게 됐다. "스타 김희애에게 저런 면이 있다니"라는 의견이 주류를 이뤘다.

김희애의 성공 원동력을 엿볼 수 있는 최근의 세 가지 풍경이다. 김희애는 상당부분 대중이 쉽게 다가갈 수 없는 광고를 통한 우아한 이미지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이영애와 유사점이 있지만 연기자로서 가장 중요한 연기력에 있어 큰 차이를 보인다. 대중이 부러워하는 이미지와 함께 탁월한 연기력을 갖춘 이가 바로 김희애다.

"최고의 배우를 꼽으라면 김희애를 꼽겠다. 김희애는 타고난 연기력을 지닌 배우이고 캐릭터를 창조해내는 능력이 뛰어나다." 우리 시대 최고의 연기자로 인정받는 이순재의 평가다. 김희애의 연기력에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배용준, 장동건, 김희선 등 스타들은 어떤 배역을 맡겨도 캐릭터 속에서 배용준, 장동건, 김희선의 개성과 특성, 이미지가 드러나는 데 비해 김희애가 연기하는 캐릭터에선 전혀 김희애라는 존재를 느낄 수 없다. 그만큼 자신이 창출한 캐릭터 속으로 완전히 들어가 온전히 캐릭터로만 시청자를 만난다.

1983년 영화 '스무해 첫째날'를 통해 연기자로 데뷔한 이래 1986년 드라마 '여심'부터 요즘 시청자와 만나는 '밀회'에 이르기까지 김희애는 연기력 논란은 전혀 없었고 찬사가 이어졌다. 김희애는 이례적으로 데뷔 초 신인 때부터 연기력 극찬이 이어졌다. 이 때문에 신인상부터 연기

데뷔 때부터 연기력 인정…신인상부터 대상까지 품안에
우아하고 고급스러운 이미지 '꽃보다 누나'로 친근함 더해
'아들과 딸' 장수봉 PD "연습벌레…끼 있지만 준비 철저"

대상까지 연기 관련 상을 모두 받았다.

방송가에선 김희애의 연기자로서 천부적 자질에 높은 평가를 한다. 연기자는 노력해도 안 되는 부분이 있다. 연기력은 일정 부분 타고나야 한다. 그런데 김희애는 타고난 자질에 철저한 노력까지 기울인다. 김희애가 출연한 드라마 현장에서 그녀가 들고 있는 극본을 본 적이 있다. 이미 해질 대로 해진 극본에는 수많은 메모가 빼곡이 적혀 있었다. 바로 연구하고 공부하며 끊임없이 연기력을 연마하는 노력이 탁월한 연기력의 비결인 것이다.

그녀를 스타덤에 올려놓은 '아들과 딸'(1992년)의 연출자 장수봉 PD는 "김희애는 연습벌레다. 천부적 끼도 있지만 무지막지한 연습을 한다. 다른 연기자의 연기분까지 완벽하게 파악할 정도로 철저하게 대비하고 연습한다"고 말했다.

"교수 할 때 부담이 컸다. 그래서 강의 내용을 외우는 것은 물론 리허설까지 했다. 어떤 것을 알려줄 것인지, 학생들에게 언제 발표를 시킬 것인지를 모두 계산했다. 그렇게 연습해서 강의를 하고 돌아오는 길에는 '이제 살았다'라고 생각했을 정도다." SBS '힐링캠프'에 출연해 김희애가 한 말이다. 그녀가 얼마나 성실하고 철저하게 노력하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이러한 노력을 영화나 드라마 작업 때도 똑같이 한다.

그리고 작품과 이미지의 빼어난 관리와 전략 또한 김희애가 30여년 넘게 스타의 자리를 굳건하게 지키는 성공비결이다. 고급스럽고 우아한 이미지 중심의 CF를 했지만 김희애는 이영애와 달리 강렬한 캐릭터에서부터 일상성이 배어나는 배역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등장인물을 소화하며 팔색조 연기자로 자리 잡았다. CF 속의 단선적 이미지에 갇히지 않은 것이다. 이 때문에 작품의 스펙트럼을 넓혔고 연기자로서 경쟁력을 배가시켜 시청자와 관객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다.

김희애는 "작품을 선택하고 연기를 할 때 가장 중요시하는 것이 극본과 시나리오다. 내 자신이 감동을 못하거나 공감하지 못하면 어떻게 작품에 출연할 수 있겠나. 물론 내가 출연하지 않았지만 잘된 작품도 있고, 내가 감동과 공감을 해 출연했지만 잘되지 않은 작품도 있다. 하지만 작품 선택은 극본을 보고 어느 정도 공감했느냐에 따라 결정하는 편이다"고 말한다.

대중과의 거리감이 일정 정도 있었던 김희애는 이제 그 거리감도 줄이려 한다. 친근하게 대중에게 다가가려는 김희애는 연예계에서 가장 이상적 성공을 거둔 스타다. 그녀는 말한다. "왕성하게 활동하는 선배들을 보면서 힘을 얻고 가야 할 방향을 잡는다. 나 역시 후배들에게 부끄럽지 않는 길이 될 수 있도록 연기자로서 노력하겠다."

대중문화 전문기자 knbae@



연예산업 파워를 찾아서

30 스타하우스엔터테인먼트



스타하우스엔터테인먼트에는 한류스타 이민호와 유혜인·정성운·신동미·박솔미·곽시양(오른쪽 위부터 시계 반대 방향)이 한 식구로 소속돼 있다.

국내외 CF 몸값만 100억대 한류남신 이민호가 사는 집

연기학원 다니던 시절 첫 인연
아시아권 최고스타 반열 올라
박솔미·'동이' 정성운… 한솥밥
드라마 '신의' 제작·OST 참여
연예산업계 다크호스로 부상
중국 모바일 시장 진출도 추진

배우 이민호는 '꽃보다 남자'로 신예 한류스타로 떠올랐고 드라마 '상속자들'로 최고의 한류스타 반열에 올랐다. 중화권을 중심으로 이민호의 인기는 날로 치솟고 있다.

지난달 29일에는 일본 공연을 끝으로 10개월간의 아시아 대장정을 마무리했다. 2009년 '꽃보다 남자'로 시작된 이민호의 한류는 '상속자들'과 함께 2014년 절정을 맞이하고 있다.

강력한 팬덤을 무기로 승승장구하고 있는 이민호는 스타하우스엔터테인먼트(이하 스타하우스) 소속이다.

스타하우스와 이민호의 인연은 고등학교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스타하우스의 장영훈 대표는 홀로 연기학원을 다니던 이민호를 만나 인연을 맺었다. 두 사람의 인연은 현재 최고의 한류스타 양산이라는 시너지 효과를 만들었다.

이민호는 현재 자동차, 화장품, 제과, 의류 등 국내외 CF로만 100억원의 몸값을 자랑한다. 해외 예능프로그램에서는 '이민호 모시기'가 한창이며 거액의 출연료가 장안의 화제다. 이민호의 존재는 스타하우스를 연예산업계의 다크호스로 떠오르게 하는 가장 큰 이유다.

지난 2008년 법인 등록과 함께 설립된 스타하우스는 서울 강남의 중심 신사역과 학동공원 근방에 위치해 있다. 스타하우스의 발전에는 이민호가 있다. 2009년 이민호의 아시아 6개 도시 투어를 진행했고, 2010년에는 이민호의 중국 글로벌 투어를 열었다.

2011년에도 이민호의 6개 도시 월드투어가 기획됐고, 한류 드라마 '시티헌터'의 제작에도 참여하며 역량을 넓혔다.

2012년에는 이민호와 김희선이 주연을 맡은 '신의'를 제작했고, OST도 자체 제작했다. 지난해에는 이민호의 월드투어를 9개 도시로 늘렸고, 올해 중국 지사를 설립하며 본격적인 한류 엔터테인먼트사의 기반을 다졌다.

그렇다고 해서 스타하우스에 이민호만 있는 것은 아니다. 최근 SBS '정글의 법칙' 출연과 한재석과의 결혼으로 화제를 모은 박솔미는 스타하우스의 프랜차이즈 스타이다.

그녀는 드라마 '겨울연가', '올인', '스타일', '거상 김만덕', '친애하는 당신에게' 등에 출연했다. 이외에도 '외과의사 봉달희', '동이', '궁중잔혹사-꽃들의 전쟁', '귀부인' 등에 출연한 정성운, '자칼이 온다', '무덤까지 간다', '황금의 제국' 등 영화, 드라마, 연극 무대에서 종횡무진 활약하는 신동미 등이 소속돼 있으며 신인 곽시양, 유혜인, 송원석 등이 꿈을 키우고 있다.

지난해까지 스타우스라는 회사명을 사용하다가 2014년을 맞아 스타하우스로 변경했다. 장영훈 대표는 "스타하우스를 상징하는 키워드는 '가족'이다. 스타하우스라는 이름은 '스타들이 모인 집'이라는 공간 개념이 아니라 '스타들과 더불어 함께 사는 집'이라는 가족 개념이다"라고 설명했다.

스타하우스의 지난해 매출은 70억원 정도이다. 현재 매니지먼트를 기본으로 영화, 드라마, OST 등 콘텐츠 제작을 통해 해외 사업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올해에는 중국 한류의 열풍으로 비약적인 매출 신장이 기대된다. 중국 모바일 시장의 확대와 한류 저변을 바탕으로 사업 기초를 마련한다는 것이다.

제32차 중국인터넷발전상황 통계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모바일 사용자는 5억명을 돌파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중국 진출 한국기업 145개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한류가 중국 시장에 미치는 효과가 긍정적이라는 대답이 무려 93.8%에 달했다. 이에 스타하우스는 중국 내 한류와 모바일 영역 확대에 따른 사업 기회를 탐색하겠다는 방침이다. 최두선 기자 sun@

인터뷰 장영훈 스타하우스엔터테인먼트 대표

"재능 발견 후 성실한 뒷받침… 동반자의 몫이죠"

연기력은 기본·겸손은 필수
돈보다는 신뢰와 의리 중시



스타하우스엔터테인먼트 장영훈〈사진〉 대표는 매니저로 활동하다가 2005년 연예기획사를 설립했다. 일반사업자로 시작한 기획사는 2006년 법인으로 바뀌었고, 2014년 현재 모두 9명의 소속배우를 가진 탄탄한 회사로 자리매김했다.

장 대표의 성장에는 이민호가 있다. 이에 장 대표는 "이민호는 '꽃보다 남자'로 대중적 인기를 얻었지만 사실은 청소년 드라마를 통해 신인 연기자로서 차곡차곡 계단을 밟아왔다"며 입을 열었다.

장 대표는 "'꽃보다 남자'로 중국시장에 얼굴을 알린 이민호는 '개인의 취향', '시티헌터', '상속자들'을 통해 신한류의 선두주자로 입지를 굳혔다. 일본에 편중돼 있던 한류의 무게중심이 중국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이민호의 영향력은 아시아권은 물론 남미까지 외연을 넓히고 있다"고 평가했다.

장 대표가 밝힌 스타하우스의 철학은 '진실된 회사, 건강한 회사, 행복한 회사'였다. 그는 "직원 모두가 주인이라는 생각 아래 인간적 포용력, 사고의 유연성, 합리적 대인관계, 신뢰와 의리를 중시한다"고 밝혔다.

이어 장 대표는 배우가 가져야 할 기본 소양에 대해서도 소신을 전했다. 그는 "가수는 노래를 잘해야 하고 배우는 연기를 잘해야 한다. 당연한 논리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다"며 "배우를 선별할 때 가장 먼저 꼽는 항목은 물론 연기력이지만 가능성과 인성도 함께 체크한다. 연기력은 노력에 따라 좋아질 수 있지만 인격의 됨됨이는 어느 정도 타고난 품성이다. 천성이 겸손한 배우는 톱스타가 돼서도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겸손이야말로 스타가 갖춰야 할 최고의 덕목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또 "오랫동안 일선에서 매니저로 활동해오면서 느낀 것은 인간관계의 중요성이다. 돈보다 사람이 우선이라는 것을 절실하게 느꼈다. 내가 먼저 진심을 보이면 상대방도 마음을 열어준다. 연예인이란 자신이 가진 탤런트, 즉 재능의 기부를 통해 밝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직업이다. 소속사가 갖는 의미는 그들의 재능 발휘에 적절한 환경을 만들어주고 성실한 뒷받침으로 그들을 지원해주는 것이다. 성실한 동반자이며 믿음직한 반려자로서 책임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최두선 기자 sun@



음악에 반세기 바친 이들의 노래

이미자, 6월까지 16개 도시서 공연
조영남, 10년만에 신곡… 자작곡도
남진, 올해 50주년… 미니앨범 발표

무려 반세기를 음악에 바친 이들이 있다. 긴 세월 동안 변함없는 모습을 보여준 가수들이 올해도 어김없이 신곡과 공연으로 우리 곁을 찾아온다.

'영원한 오빠' 남진(68)은 올해로 정확히 데뷔 50주년을 맞이했다. 그는 "노래가 없는 남진이란 있을 수 없다"면서 "내 인생의 노래는 앞으로 몇 년일지 모르겠지만 황금기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고 싶다"라고 50주년을 맞은 소감을 전했다.

남진은 지난달 27일 타이틀곡 '파트너'를 포함, 신곡 5곡이 수록된 미니앨범을 발표했다. 오는 5월 3일 경기 군포시문화예술회관 공연을 시작으로 부산, 울산, 성남, 창원 등을 차례로 도는 전국 투어 공연에 나선다. 특히 그는 오는 10월 14일 서울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2차례에 걸쳐 단독 콘서트를 열고 자신의 음악 인생을 되돌아 볼 예정이다.

데뷔 55주년이란 가요계의 기념비를 세운 이미자(73)는 전국 16개 도시에서 관객을 만난다. 지난 55년간 2000곡이 넘는 노래를 발표한 그는 '동백아가씨', '섬마을 선생님', '기러기 아빠', '흑산도 아가씨' 등 불멸의 히트곡을 55인조 오케스트라와 함께 선보인다. 지난 10~12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공연을 시작으로 오는 6월까지 목포, 경주, 전주, 춘천, 청주, 일산, 인천, 대구, 부산, 성남, 수원, 광주, 창원, 부천 등을 차례로 돈다. 서울 공연에는 박원순 서울시장을 비롯해 김황식 전 총리, 정몽준 새누리당 의원 등 정치인들이 자리해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1970년 '딜라일라'로 데뷔한 조영남(69)은 얼마 전 신곡발표회를 겸한 칠순잔치를 열고 10년만의 신곡을 선보였다. 직접 작사·작곡한 두 곡을 통해 그는 새로운 소통에 나섰다. '대자보'는 지난해 말부터 대학가를 강타한 대자보 열풍에서 영감을 얻어 청춘을 위로하는 가사를 담았고 '쭉~ 서울'은 실향민의 애환을 감싸 안았다.

유혜은 기자 euna@·사진/최유진 기자·뉴시스



안방극장 달굴 남자들이 몰려온다



지상파 3사 새 드라마 男배우 라인업 살펴보니

KBS
김강우 '골든크로스' 복수혈전 검사
강지환 '빅맨' 고아서 재벌 장남으로

SBS
이종석·박해진 '닥터…' 엘리트 의사
이승기·차승원 '너희들이 포위…' 호흡

MBC
김명민 '개과천선' 비정한 변호사역
이범수·김재중 '트라이앵글' 형제로

'김강우, 강지환, 이승기, 차승원, 김재중, 이범수, 이종석, 박해진, 김명민.'

이름만 들어도 설레는 남자배우들이 TV 드라마에 대거 등장한다. 그들은 뚜렷한 연기 색깔과 개성 넘치는 매력을 선보이며 안방극장을 뜨겁게 달굴 예정이다. 드라마 장르도 다양하다. 로맨스 수사물부터 휴먼, 법정드라마, 복수극까지 각양각색 드라마가 시청자의 눈과 귀를 사로잡고자 나선다. 지상파 3사가 야심차게 내놓은 신작 6편 속 남자배우들의 매력은 무엇일까.

KBS는 김강우와 강지환을 내세웠다. 김강우는 수목드라마 '골든크로스'에서 카리스마 있는 검사로 분해 자신의 가족을 희생시킨 자들에 맞서 싸우며 복수를 꿈꾼다. 강지환은 '빅맨(월화극, 4월28일 첫방송)'에서 고아로 자랐지만 어느날 갑자기 재벌그룹 장남이라는 타이틀을 얻게 되면서 자신이 지켜야 할 소중한 사람을 위해 세상과 맞서 싸운다.

SBS는 이종석과 박해진, 이승기 등 패기 넘치는 젊은 남자배우들과 함께한다. 이종석과 박해진은 '닥터 이방인(월화극, 5월 5일 첫방송)'에서 카리스마 있는 엘리트 의사로 분한다. 최근 공개된 티저영상에서 이종석은 압도적 눈빛과 자태로 단숨에 압도하는 카리스마를 뽐내 작품을 기대케 했다. 이승기는 '너희들이 포위됐다(수목극, 4월 30일 첫방송)'에서 IQ 150의 명석한 두뇌에 독설과 막말을 가리지 않는 다혈질 성격을 지닌 신입 경찰 역을 맡았다. 특히 '최고의 사랑'이후 3년 만에 복귀하는 차승원과의 호흡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MBC에서는 김명민과 이범수, 김재중이 안방극장을 책임진다. 김명민은 '개과천선(수목극, 4월 28일 첫방송)'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비정한 변호사였지만 갑작스러운 사고로 기억상실증에 걸리면서 자신이 몸담았던 로펌에 맞서 싸우며 진정한 자아를 찾고자 나선다. 이범수와 김재중은 '트라이앵글(월화극, 5월 5일 첫방송)'에서 서로 존재조차 모르는 형제의 삶을 그린다. 김재중은 밑바닥 삼류 인생을 사는 폭력 조직원 역을 맡아 거친 수컷의 매력을 드러낸다.

드라마 제작사 관계자는 "남자를 내세운 드라마가 많은 이유는 드라마 판매 수익구조 때문"이라며 "한류가 남자 위주의 판매시장으로 형성돼 있는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드라마 시청률도 문제다. 한류를 바라보면 로맨틱 코미디(로코)를 해야 하는데 국내 시장에서 시청률이 안 나오기 시작했다. 로코물이 아닌 것을 제작하다 보니 여배우는 자연스레 연속극 쪽으로 밀리고 미니시리즈는 국내시장과 해외시장을 감안해 남자배우를 내세우게 된다"고 덧붙였다. KBS 정해룡 책임프로듀서(CP)는 "요즘 드라마 스토리가 점점 강해진다. 무난한 일반적인 직업에서의 사랑이야기가 아닌 특별한 직업군을 다룬 차별화된 소재가 등장하다 보니 남자가 중심에 있게 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김민정 기자 mj_kim@



tvN '응급남녀' 마친 배우 최진혁

"이혼 심각성 간접경험… 결혼은 신중히"

'상속자들' 등 출연 드라마 연이어 흥행
젊은 배우중 연기력 논란없는 배우 꼽혀



벌써 올해 데뷔 9년 차다. 구미호, 재벌가 상속자 등을 맡으며 다양한 장르를 오갔던 배우 최진혁이 이혼 남녀의 재회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었다. 5일 막 내린 tvN 금토 드라마 '응급남녀'에서 최진혁은 대학 시절 만나 사랑에 빠진 오진희(송지효)와 이혼한 뒤, 병원 응급실에서 같이 일하게 된 인턴 의사 오창민을 연기했다. "개인적으로 '이혼율이 높구나'라고 다시 생각한 것부터 바뀌었어요. 이혼을 겪은 주변 지인들이나 시청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며 심각하단 생각도 많이 들었고, 결혼에 대해 더욱 신중하게 생각하려고요." 첫 회부터 극 중 오진희와 벌인 격한 갈등은 시청자의 눈길을 끌었다. 하지만 작품에 흐르는 주된 내용은 서로에 대한 마음을 재차 확인하는 조심스러운 과정이었다. 여기에서 그는 강약 조절에 능숙한 연기를 펼쳐 눈길을 끌었다.

"어떤 배우도 해놓고 만족하는 배우는 없을 겁니다. 다만 아쉬운 건 스태프들이 좋은 환경에서 일했다면 능률이 높았을 텐데 너무 과하게 작업을 했다는 것이죠." 유난히 빠듯하게 돌입한 '응급남녀' 촬영 때문에 최진혁은 출연진과 제작진이 고생했다고 털어놨다. 그럼에도 최진혁이 힘을 낼 수 있었던 건 서로를 위하는 촬영 분위기였다. "김철규 PD님이 천사 같은 분이세요. 배려도 많이 받았고요."

최진혁은 MBC 드라마 '구가의 서', SBS 드라마 '상속자들'에 이어 이번 '응급남녀'까지 연이어 흥행하는 드라마에만 출연했다. 스스로도 이 점을 인식했다. "최근 몇 년 사이 제게 어떤 기운이 왔나 싶어요. 무척 감사하죠." 최진혁은 그간 연기력 논란이 없는 젊은 배우 중 한 사람으로 꼽혀왔다. "데뷔작이 시청률 2%대가 나왔어요. 배우가 연기를 못 하니, 너무 창피해 죽겠더라고요. 제가 독기 하나는 끝장나거든요. 타고난 게 아니라 잘 하는 모습을 보여주겠단 마음이었어요.

최진혁은 올해 안으로 군 입대를 계획하고 있다. 군 입대 전 차기작을 신중히 고르고 있다. 달려온 생활을 잠시 멈추고 자신을 돌아볼 기회를 맞을 최진혁의 몇 년 후가 더욱 기대된다.

글/이꽃들·사진/최유진 기자 flowerslee@

“월드컵 피하자”… 5월 콘서트 쏟아진다

박정현 9~18일 2년 만에 서울 한남동 블루스퀘어서 6회 공연

임창정 23·24일 서울 올림픽공원 시작으로 8월까지 전국 투어

성시경 24·25일 ‘결혼식 피로연’ 콘셉트… 예매 30분 만에 매진

조성모 31일 블루스퀘어서 ‘라이브시리즈 1탄-버라이어티’



공연계가 긴장하고 있다. 4년 만에 돌아온 지구촌의 축제 월드컵이 성큼 다가왔기 때문이다. 신보를 발매할 때마다 공연을 통해 관객과 호흡하는 한 중견 가수는 “콘서트가 많은 시간과 비용을 필요로 하는 만큼 흥행에 신경을 안 쓸 수 없다”며 “월드컵 기간을 피해 공연 시기를 조율하고 있다”고 월드컵이란 남다른 라이벌을 만난 고민을 털어놓기도 했다.

전 국민의 관심이 지름 68㎝의 축구공에 쏠리는 순간을 피해 많은 가수들이 ‘앞서 나가기’ 전략을 택했다. 음악성과 대중성을 겸비한 솔로 가수들의 단독 콘서트가 5월 쏟아진다.

18일 새 미니앨범 ‘싱크로퓨전’을 발매한 ‘디바’ 박정현은 다음달 9일부터 18일까지 서울 한남동 블루스퀘어 삼성카드홀에서 총 6차례의 공연을 갖는다. 2년 만의 단독 콘서트에 팬들의 관심도 뜨거웠다. 공연계에서 가장 흥행력 있는 여가수 중 한 명으로 손꼽히는 박정현은 서울 공연의 높은 예매율에 힘입어 부산과 대구 공연을 추가했다.

가수 복귀와 동시에 ‘나란 놈이란’ ‘문을 여시오’ ‘흔한 노래’를 연속 히트시킨 임창정은 23·24일 서울 올림픽공원 SK핸드볼경기장 공연을 시작으로 전국 투어에 나선다. 서울에서만 8000여 명의 관객을 동원할 예정인 그는 부산, 인천, 대전, 광주, 대구 등을 돌며 오는 8월까지 10회의 공연을 이어간다. “앨범을 내고 활동하는 이유는 콘서트를 해봐야겠다는 생각 때문”이라며 열정을 불태우고 있는 임창정은 “3시간 동안 임창정의 모든 것을 보여주고 싶다”고 전했다.

성시경은 3년 연속 여는 브랜드 공연 ‘성시경의 축가’를 공연계에 확실히 정착시켰다. 지난 9일 티켓 예매 개시 30분 만에 1만4000석 전석 매진을 기록하며 아이돌 못지않은 티켓 파워를 보여줬다. 소속사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는 “팬들은 물론 업계의 뜨거운 관심을 모으고 있는 공연”이라고 귀띔했다.

5월 24·25일 양일간 서울 연세대학교 노천극장에서 열리는 이번 공연은 ‘결혼식 피로연’이란 독특한 콘셉트 아래 달콤한 노래와 톡톡 튀는 토크로 꾸며진다.

4년 만에 신보를 발매한 가수 조성모도 최근 5월 컴백 콘서트를 결정했다. 31일 오후 4시와, 7시 30분 두 차례에 걸쳐 블루스퀘어 삼성카드홀에서 ‘라이브시리즈 제1탄-버라이어티’란 타이틀로 관객을 맞이한다. 소속사 품엔터테인먼트는 “오래 기다린 팬들을 만나기 위해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라이브 시리즈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월드컵 기간에는 콘서트 횟수가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온라인 예매사이트 인터파크는 “현재까지 공연 계획을 발표한 콘서트 기준, 6월 콘서트 횟수가 지난해 210여 건에서 올해 50여 건으로 70% 이상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유혜은 기자 euna@



다큐멘터리 연극 ‘100% 광주’

‘광주시민 100명’ 오르는 특별한 무대

‘리미니…’ 세계 도시 순회 프로젝트
19·20일 광주, 26·27일 서울서 상연



연극 ‘100% 광주’ 리허설 모습.
사진제공 아시아문화개발원

광주시민 100명이 고스란히 대극장 무대에 오른다. 다큐멘터리 연극 ‘100% 광주’는 독일 창작 집단 리미니 프로토콜의 세계 도시 순회 프로젝트 시리즈다. ‘100% 베를린’ ‘100% 빈’ ‘100% 밴쿠버’ ‘100% 런던’ ‘100% 도쿄’를 선보였던 리미니 프로토콜은 대한민국 광주에 집중했다. 19·20일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 26·27일 서울 국립극장 해오름극장에서 상연되는 ‘100% 광주’는 도시를 축소해 무대 위에 옮겨 놓는 것이 목적이다. 2012년 광주 인구통계조사에 따르면 70대 이상 노인인구 비율은 광주 전체의 6%이고, 외국인 인구는 1%를 차지한다. 이에 따라 ‘100% 광주’에 참여하는 시민 100명 중 6명은 70대 이상 노인이어야 하고, 100명 중 1명은 외국인이어야 한다.

흥미로운 시도는 시민들이 캐스팅된 방식에서도 발견된다. 제작진이 찾아낸 최초의 1명이 구심점이 돼 자신의 지인 중 통계학적으로 적합한 다른 사람을 추천하게 되고, 이 사람은 또 다른 지인을 추천하면서 100명의 구성원이 완성된다. ‘도시’를 구성하는 사람들의 사회적 ‘관계 맺기’ 시스템을 무대 위에 그대로 구현해내는 리미니 프로토콜의 ‘100% 도시’의 특징이다. 선정된 시민은 3세 아이부터 70대까지이며, 직업도 치과의사에서 택시기사, 공무원, 사격선수, 대학생, 풍선의 달인, 주부 등 다양하다.

무대 위의 시민들은 가장 아끼는 물건, 광주의 냄새 등 자신만의 소소하지만 친숙한 이야기를 털어놓을 예정이다. 광주시민들의 신념, 정치적 의견, 성장 배경, 일상, 좋아하는 자동차, 타고 다니는 버스, 좋아하는 술의 종류 등에 대해 다양한 방식으로 질문이 던져진다. 질문에 대해서는 판토마임, 플래카드, 핸드폰 불빛 등 다양한 방식으로 대답이 이루어진다. ‘100% 광주’ 무대는 대중의 익명성 속에 숨겨진 우리 이웃의 따뜻한 얼굴을 만나게 되는 색다른 경험을 관객에게 선사한다.

아시아예술극장 고은초씨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주최하는 이번 ‘100% 광주’는 아시아예술극장이 총 6작품으로 선보이는 커뮤니티 퍼포머티비티라는 시리즈 중 하나”라며 “공연 제작에 참여하는 관객의 자발적 의지를 통해 새로운 공동체 형성의 가능성에 주목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꽃들 기자 flowerslee@

레이디 가가, 한여름밤 잠실벌 달군다

‘AIA 리얼라이프: 나우 페스티벌 2014’
8월 16일 이틀째 무대 헤드라이너 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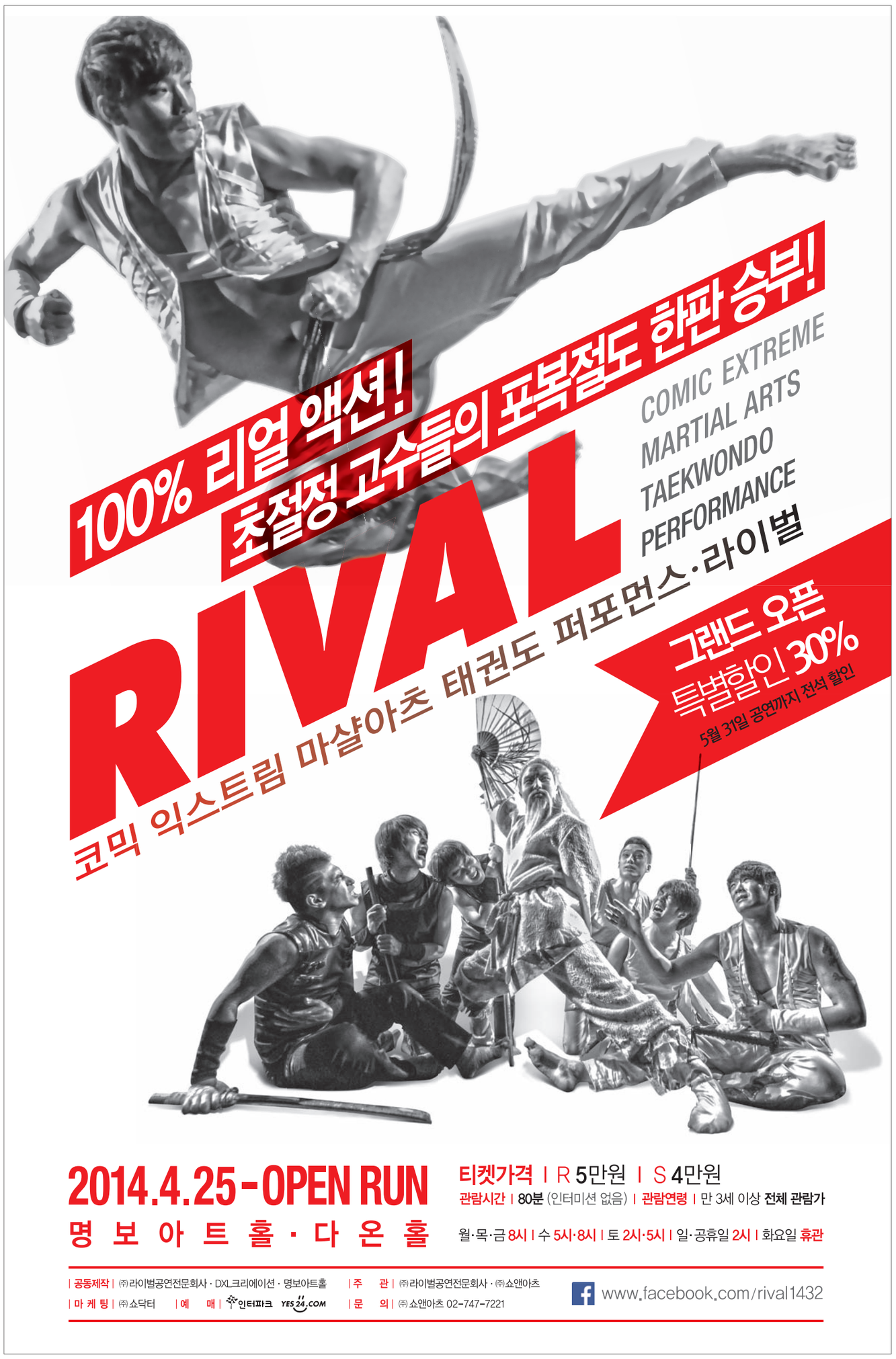
팝스타 레이디 가가가 2년 만에 한국을 찾는다.

레이디 가가는 오는 8월 15·16일 양일간 서울 잠실종합운동장에서 열리는 ‘AIA 리얼라이프: 나우 페스티벌 2014’를 통해 내한 공연을 펼친다. 15일에는 싸이, 빅뱅, 투애니원 등 YG패밀리가, 16일에는 레이디 가가가 헤드라이너로 나선다.

2012년 레이디 가가의 첫 내한공연은 해외 아티스트의 주경기장 공연으로는 최초 매진 기록을 세우며 그해 티켓 매출 1위 공연으로 선정되는 등 수많은 이슈를 불러일으킨 바 있다. 특히 2014년 투어 일정 중 아시아 공연은 일본과 한국에서만 열릴 것으로 알려져 더욱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번 페스티벌에서는 공연기획사 라이브네이션의 글로벌 네트워크와 YG엔터테인먼트의 콘텐츠 파워를 통해 동시대 동·서양을 대표하는 톱 아티스트가 함께 하는 특별한 무대를 꾸밀 예정이다. AIA생명은 이번 페스티벌의 글로벌 스폰서로 참여, 브랜드 캠페인 ‘더 리얼 라이프 컴퍼니’를 지속적으로 이어가는 한편, 아시아 시장을 넘어 글로벌 음악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해 가고 있는 서울에서 세계 최고의 아티스트들이 참여하는 차별화된 뮤직 페스티벌 탄생을 위해 전폭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유혜은 기자 euna@





프로야구 700만 관중, 다시 찍자

2년 만에 재돌파 목표…월드컵·AG 변수
지난주까지 71만여명… 순조로운 출발
허구연 해설위원 "대기록 많이 나와야"

700만 관중 재돌파. 한국야구위원회(KBO)가 올시즌 프로야구 개막을 앞두고 내건 목표 중 하나다. 2012년 첫 700만 관중 시대를 연 프로야구는 2년 만에 700만 관중 돌파에 재도전한다.

KBO는 올시즌 개막을 앞둔 지난 3월 25일 700만 관중 재달성을 목표로 내걸었다. 올 시즌 9개 구단의 목표 관객은 701만9608명으로 경기당 평균 1만2187명이다. 목표를 달성할 경우 지난해(평균 1만1184명)보다 약 9% 증가한다.

지난 3월 29일 개막전을 포함해 총 576경기를 치르는 국내 프로야구는 13일까지 55경기를 소화했다. 이 시점까지 9개 구단의 총 입장 관중은 71만2265명(평균 1만295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56경기 55만5991명(평균 9928명)보다 약 23% 증가했다. 하지만 2012년 57경기까지의 83만6890명(평균 1만5216명)과 비교하면 약 17% 감소했다.

지난해 9개 구단 중 최다 관중을 동원한 LG와 전체 2위를 기록한 두산의 올시즌 관중 동원은 썩 좋지 않다. 좌석 개보수로 서울 잠실구장의 최다 입장인원이 1000여명 줄어든 탓이다. 이에 LG와 두산은 올 시즌 관객 유치 목표를 각각 3.8%, 0.2% 낮춰 잡았다. 두산은 지난해 대비 홈 평균 관중수가 약 800명 늘었지만 LG는 4000명가량 줄었다.

반면 지난해 경기당 평균 7352명의 관중을 동원한 KIA는 광주-KIA 챔피언스필드 개장의 기대감으로 전년도에 비해 42.8%나 높은 목표 관중 수(평균 1만500명)를 설정했다. 대전 한밭야구장 3차 리모델링을 마친 한화 역시 지난해보다 목표치(평균 7345명)를 21.5% 높게 잡았다. 13일까지 6경기를 치른 KIA는 1만5638명을 동원해 이미 목표치를 크게 웃돌고, 한화 역시 5경기 평균 9608명으로 목표치를 넘겼다.

5경기 평균 8808명 관중을 동원한 삼성 역시 지난해(평균 7054명)보다 관중이 늘었다. SK도 5경기 평균 1만9813명으로 지난해(평균 1만4251명)를 능가한다.

반면 지난해 평균 8262명의 관중을 동원한 NC는 올해 목표를 8400명으로 잡았지만 오히려 작년 대비 무려 23% 감소했다. 응원석이 1루에서 외야로 이동했고 이에 따라 NC 서포터스가 단체응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NC 구단 측은 "창원시설공단과 협의를 마쳐야 했지만 쉽지 않았다"며 "창원시와의 갈등으로 인해 구장 공사가 지연돼 생긴 문제"라고 설명했다.

한편 롯데와 넥센은 지난해 대비 큰 변동이 없거나 근소하게 감소한 수준이다.

올 시즌 프로야구의 700만 관중 돌파는 아직 단정짓기 어렵다. 올해는 브라질월드컵(6월13일~7월14일)과 인천아시안게임(9월19일~10월4일)이라는 큰 변수가 있다. KBO 측은 "700만 돌파는 어디까지나 목표"라며 "71만 이상 관중을 돌파한 추세를 근거로 보면 올해 목표치 달성에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낙관론만 있는 것은 아니다. 허구연 해설위원은 "지난 시즌에는 주목할 만한 대기록이 많이 나오지 않았다. 올시즌 역시 기대되는 통산 기록 경신이 눈에 띄지 않는다"며 "큰 스포츠 이벤트가 많은 시즌임을 감안하면 700만 관중 돌파를 낙관적으로만 볼 수는 없다"고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홍샛별 기자 byul0104@





브라질 월드컵 '8강' 대장정

대표팀 최종 엔트리 내달 9일 발표
28일 튀니지 평가전후 美전지훈련



지난 4일 FIFA 진품 월드컵 트로피 공개행사에 참석한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노진환 기자 myfixer@

2014 브라질월드컵 개막식이 6월 13일(이하 한국시간) 열린다. 현지시간 기준으로 59일 후면 지구촌의 시선을 끌어모으는 월드컵 본선이 시작된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한국대표팀의 목표는 8강이다. 2002 한일월드컵에서 아시아 국가 최초의 4강 진출을 이룬 데 이어 2010 남아공월드컵에서 사상 첫 원정 16강을 달성한 만큼 팬들의 눈높이는 자연스럽게 8강에 맞춰 있다. 홍명보 감독 역시 공식석상을 통해 수차례 "8강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나타낸 바 있다.

한국은 6월 18일 오전 7시 러시아와 첫 경기를 치른다. 정확히 두 달 후다. 이후 6월 23일 오전 4시에는 알제리, 6월 27일 오전 5시 벨기에와 각각 조별라운드 일정을 소화한다. 무더운 날씨와 높은 습도, 낯선 그라운드 조건 등 극복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하지만 대표팀은 월드컵까지의 일정을 모두 확정하며 개막을 기다리고 있다.

본선에 진출한 32개국은 5월 13일까지 예비 엔트리 30명을 국제축구연맹(FIFA)에 제출해야 한다. 23명의 최종 엔트리 제출일은 5월 29일이다. 하지만 홍 감독은 이보다 이른 5월 9일 일찌감치 최종 엔트리를 발표하고 5월 12일부터 곧바로 대표팀을 소집한다는 방침이다. 이들과 함께 5월 28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튀니지와의 평가전을 치른 뒤 5월 30일 1차 베이스캠프 장소인 미국 플로리다로 향한다. 홍 감독은 이미 "최종 엔트리의 90%는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표팀은 플로리다에서 전지훈련을 마치고 6월 12일 '결전의 땅' 브라질에 입성한다. 현지 베이스캠프는 폭포로 유명한 브라질 남서부의 이구아수다. 경기를 치르는 쿠이아바(대 러시아), 포르투 알레그리(알제리), 상파울루(대 벨기에) 등으로의 이동은 모두 항공편을 이용해야 하지만 베이스캠프에서 공항이 10분 거리인 데다 훈련장도 5분 내외로 최적의 장소다. 경기장까지의 이동 시간도 최대 2시간이다. 대표팀의 월드컵 일정은 이미 시작된 셈이다.

차상엽 기자 sycha@

자원봉사자가 빛내는 PGA 메이저대회

CEO·은퇴자…직업·연령 천차만별
티켓 판매·주차 등 2000명 이상 참여

수백억 돈잔치 속 무보수 자원봉사자들이 있다. 미국프로골프(PGA)투어 메이저 대회 경기진행요원들이다.

지난 14일(한국시간) 막을 내린 마스터스 토너먼트는 전 세계인의 관심을 집중시키며 성대하게 치러졌다. 80년 대회 역사와 잘 관리된 코스, 최고 레벨의 선수들이 만들어낸 명작이라는 평가다.

그러나 마스터스 토너먼트의 성공 개최 원동력으로 무보수 경기진행요원들의 열정을 빼놓을 수 없다. 미국의 스포츠 에이전시 IMG 월드와이드에 따르면 PGA투어 메이저 대회에 투입되는 경기진행요원은 대부분 자원봉사자로 메이저 대회를 치르기 위해서는 2000명 이상의 자원봉사자가 필요하다.

마스터스 토너먼트, US오픈, 디오픈(브리티시 오픈), PGA 챔피언십으로 구성된 PGA투어 메이저 대회는 1년 전 운영위원회를 발족, 대회 준비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선발한다. 늦어도 대회 2~3개월 전에는 대회 진행에 필요한 자원봉사자 선발을 마친다.

PGA 클래스A 멤버 지영환씨는 "메이저 대회 참가 자원봉사자는 전문경영자와 프로골퍼, 아마추어 선수, 은퇴자, 매니지먼트사 직원 등 직업도 연령도 천차만별이지만 골프에 대한 열정만은 누구 못지않다"며 "자원봉사자 지원서는 위원회 발족과 함께 이루어지는데, 대부분 골프 실력이 좋거나 풍부한 지식을 지닌 사람들"이라고 전했다.

자원봉사자의 업무는 티켓 판매와 전문의료진(의사 1명·간호사 1명·의료대원 4명), 프로그램 진행, 캐디위원회, 클럽하우스 위원회, 선수가족 담당, 주차요원, 여성위원회 등 전문 기술부터 단순 업무까지 다양하다.

자원봉사자는 무보수로 대회 기간 제공되는 유니폼과 기념품, 식사가 전부다. 지영환씨는 "메이저 대회에 자원봉사자로 참여했다는 사실은 굉장한 경험이다. 많은 사람들이 자원봉사를 원하지만 아무나 참여할 수는 없다. 이 같은 열정과 자부심이 메이저 대회를 더욱 빛나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상민 기자 golf5@

‘베이브류스’ 보고 그랜드 캐니언 탐험하고…



말이 필요없는 ‘직관’

〈직접 관람〉

해외파 스포츠 스타 연계 ‘2色 투어’

다저스 경기 관람후 라스베이거스 가서 ‘잭팟’
추신수 텍사스 구장 주변 시닉터널 등 볼거리
이대호·오승환 일본 프로야구 주말 코스 제격
목 터져라 응원하고 뜨끈한 온천 기력충전 休~

여행지는 많고 세상은 좁다. 전 세계 곳곳을 여행하다 보면 세계 각지에서 활약하는 국내 스포츠 스타를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다.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맹활약하는 류현진(27·LA 다저스)·추신수(32·텍사스 레인저스)를 비롯해 유럽 무대를 누비는 박지성(33·PSV아인트호벤)·손흥민(22·레버쿠젠), 일본 프로야구를 강타하고 있는 이대호(32·소프트뱅크)·오승환(32·한신) 등이 대표적이다.

해외여행 중 스포츠 관람은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한다. 현지의 뜨거운 함성에 뒤엉켜 우리 선수들을 응원하다 보면 한국에서는 느끼지 못한 가슴 뭉클한 감동이 몰려온다.

미국 LA에는 류현진이 있다. 1923년 건립된 다저스타디움에서 류현진의 역투를 보며 메이저리그 문화를 경험하는 일은 결코 흔한 기회가 아니다. 경기 관람 후에는 미국 서부 대표 관광지 그랜드캐니언, 세계 제일의 카지노와 엔터테인먼트의 도시 라스베이거스, 미국 서부 골드러시의 영광을 재현한 은광촌 등을 둘러볼 수 있어 이상적인 여행코스다.

텍사스 레인저스의 홈구장인 글로브 라이프 파크에서는 추신수의 맹활약을 지켜볼 수 있다. 일정만 잘 맞추면 류현진과 추신수의 맞대결도 볼 수 있다. 경기 관람 후에는 자유의 여신상, 엠파이어스테이트 빌딩, 록펠러센터, 하버드대학, 나이아가라폭포, 시닉터널 등 볼거리로 가득하다.

해외파 스포츠 스타를 가장 쉽게 만날 수 있는 곳은 일본이다. 가장 가까울 뿐 아니라 항공료도 저렴해 주말·휴일을 이용해 떠나는 샐러리맨들로 늘 만원이다. 그중 한국에서 가장 가까운 일본은 규슈다. 인천공항에서 비행기로 1시간이면 도착하는 이곳은 이대호를 연호하는 함성으로 뜨겁다.

이대호가 속한 소프트뱅크는 후쿠오카를 연고로 한다. 홈구장인 후쿠오카 야후돔은 1993년 개장한 3만5000석 규모의 실내야구장으로 연일 맹타를 휘두르는 이대호의 모습을 눈앞에서 지켜볼 수 있다. 단조로우면서도 특색 있는 일본 야구문화를 경험하는 것도 색다른 재미다.

이대호의 경기 관람 후 온천으로 유명한 벳푸를 여행하는 것도 좋다. 구마모토현과 오이타현에 걸쳐 있는 일본의 명산 아소산(1592m)과 안개 낀 아침으로 유명한 유후인온천 등 풍부한 볼거리와 한국인의 입맛에 맞는 먹을거리도 풍성하다.

반면 오승환이 속한 한신 타이저즈는 효고현을 연고로 한다. 현청 소재지는 고베로 오사카, 교토와도 가까워 야구 관람과 관광을 연계하기에 좋다. 도쿄와는 달리 활력이 넘치고 열성적인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알려진 간사이는 야구장 응원도 열성적이어서 야구 마니아가 많은 고장이기도 하다. 도쿄 연고 요미우리 자이언츠와 함께 일본에서 가장 인기 있는 구단이다.

한신 타이거즈의 홈구장은 고시엔 야구장이다. 일본 전국고교야구선수권대회인 고시엔대회 개최지로 유명한 이곳은 일본 야구의 성지로 불릴 만큼 일본인들의 자부심이 대단하다. 지역 먹을거리와 주변 볼거리도 풍부해 야구 관람 후에도 지루할 틈이 없는 불야성 관광지다.

유럽에는 유럽파 축구선수들이 있다. 영국과 독일, 네덜란드 등에서 활약하는 한국 ‘EPL 전사들’을 만나기 위해서는 경기 일정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네덜란드에는 박지성, 독일에는 손흥민이 활약하고 있지만, 영국 프리미어리그에 속한 김보경(카디프 시티), 기성용(이상 25·선더랜드)의 경기는 런던 여행과 연계할 수 있어 인기 코스다.

반드시 우리 선수들이 아니라도 좋다. 맨유, 아스날, 리버풀, 첼시 맨시티 등 인기 구단의 경기를 관전하는 것도 특별한 경험이다. 티켓은 10만~50만원으로 예약 시점과 경기에 따라 가격 변동폭이 크다.

주의할 점도 있다. EPL 티켓 판매를 대행하는 온라인투어 관계자는 “국내 여행 성수기인 7~8월에는 해외여행 수요가 크게 늘지만 EPL은 경기를 진행하지 않기 때문에 일정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전했다.

오상민 기자 golf5@



텍사스 레인저스의 홈구장인 ‘글로브 라이프 파크’의 전경.

스포츠 현장으로 떠나는 나들이



골프대회장은 갤러리 참여만으로도 훌륭한 나들이 명소다. 사진제공 KLPGA



‘광주-기아 챔피언십 필드’의 외야 잔디석의 전경. 뉴시스

아빠, 우리 어디가? ‘녹색 다이아’ 캐러~

프로야구경기장 가면 바비큐부터 캠핑까지
골프 갤러리 드넓은 필드 걷다보면 속이 ‘뻥’

여행하기 좋은 계절이다. 그러나 주말·휴일을 맞는 아빠들의 마음이 편치만은 않다. 마땅한 가족나들이 장소를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 “이번 주말엔 또 어딜 갈까”라는 말은 한숨과 함께 습관이 됐다. 그럴 땐 매주 열리는 프로스포츠 현장에서 힌트를 찾자.

특히 야구장은 가족나들이 명소가 된 지 오래다. 비좁은 좌석에 앉아 불편한 시간을 보내야 했던 야구장은 이제 옛말이다. 인천 문학구장과 대전 한밭야구장,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 울산 문수구장, 포항야구장 등 외야 잔디석을 갖춘 야구장이 많다. 돗자리를 펼쳐 준비한 음식을 먹으며 야구경기를 관람하면 평소 없던 여유를 갖게 된다.

SK 와이번스의 홈구장인 인천 문학구장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외야 잔디석을 조성했다. 특히 바비큐존에서 즐기는 삼겹살은 야외 잔디석의 트레이드마크다. 가족은 물론 친구, 연인과의 데이트로도 안성맞춤이다.

기아 타이거즈의 새 홈구장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는 광주의 새 명물이 됐다. 2만2000석 규모의 최신식 야구장이지만 야외를 잔디로 조성, 관중친화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모래놀이 공간, 가족 테이블석, 커플석 등을 마련해 가족단위 및 여성 관람객들로부터 호평을 얻었다.

가족들의 캠핑 장소가 된 야구장도 있다. NC 다이노스의 홈구장인 창원 마산구장이다. 외야에 텐트를 설치하고 전광판으로 경기를 관람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창원 마산구장은 또 국내 최초 나무로 된 스탠딩석을 마련해 최대 6명이 함께 앉아 준비한 음식을 먹으며 야구를 관람할 수 있도록 했다.

남녀 프로골프 대회장은 갤러리 참여 자체가 훌륭한 나들이다. 18홀 드넓은 필드를 마음껏 걸으며 좋아하는 선수를 응원할 수 있어 프로야구 관람과는 또 다른 매력이 있다.

국내 프로골프 대회는 5월 말까지 전국에서 11개 대회가 열려 일정, 교통, 입장료 등을 체크하면 나들이 계획을 미리 세울 수 있다. 한국프로골프(KPGA) 코리안 투어는 17일부터 나흘간 강원 횡성의 웰리힐리 골프장에서 열리는 동부화재 프로미 오픈을 시작으로 경기 성남의 남서울CC, 인천 영종도의 스카이72, 경기 용인의 88, 전남 나주의 해피니스에서 차례로 프로골프대회가 열린다.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투어는 25일부터 사흘간 경남 김해의 가야CC에서 넥센·세인트나인 마스터즈를 시작으로 전북 무주의 무주안성, 경북 경산의 인터불고, 경기 포천의 일동레이크, 강원 춘천의 라데나, 경기 이천의 휘닉스스프링스에서 각각 티오프한다. 대부분 무료 개방으로 입장료를 받는 대회는 추첨을 통해 경품이 증정된다. 경기 관람 후 골프장 주변 맛집을 방문하거나 지역 먹을거리를 찾는 재미도 쏠쏠하다.

오상민 기자 golf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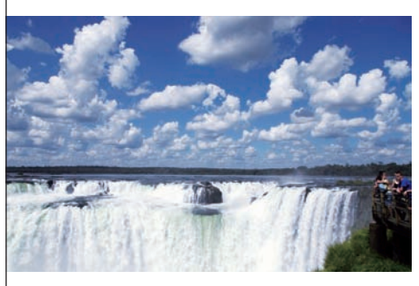
여행단신



◇투어피디아, 브라질서 즐기는 축구·골프 = 남미전문여행사 투어피디아가 브라질 월드컵 경기 관람과 골프 라운드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여행상품을 선보였다.

한국 축구대표팀의 조별리그 알제리전(6월23일)과 벨기에전(6월27일·이상 한국시간)을 관전할 수 있는 이 상품은 ‘세계 3대 미항’ 리우데자네이루(38m 예수상), 이구아수 폭포, 상파울루 등 유명 관광지를 비롯해 브라질 10대 골프장 중 하나인 상파울루 인근 골든레이크CC, 파라다이스리조트 골프장에서 라운드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6월 20일 출발하는 11일 일정으로 가격은 899만원이다. 골프 라운드를 제외한 상품(8일)은 749만원이다.



◇롯데JTB, 브라질 월드컵 관전 여행 = 롯데JTB가 2014 국제축구연맹(FIFA) 브라질 월드컵 경기 관전 상품을 내놨다.

한국 축구대표팀의 세 경기를 전부 관람하는 이 상품은 에미레이트항공을 통해 출발하며 가격은 1219만원(최저가)이다. 왕복항공료와 호텔 숙박, 특식 10회(고기뷔페·현지식 뷔페), 상파울루 산토스 관광, 전 일정 기사·가이드팁, 축구 관람 티켓 등이 요금에 포함된다.

인천공항을 출발, 아랍에미리트 두바이를 경유해 브라질 상파울루와 쿠이아바·이구아수·포르토 알레그레를 거쳐 다시 상파울루에서 두바이를 통해 귀국하는 일정이다.



◇비전투어, 일본 나고야 골프여행 = 골프전문 여행사 비전투어는 일본 나고야로 떠나는 골프여행 상품을 출시했다.

이세완 골프장(27홀)과 메트로폴리탄 골프장(18홀)에서 3박4일 라운드하는 일정으로 가격은 69만원이다. 이세완 골프장은 공항에서 차량으로 1시간 20분 소요되며, 주변에는 산·바다·평야가 공존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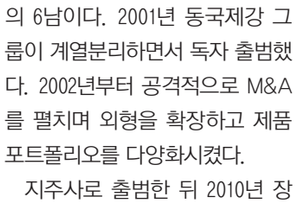
주변 관광지로는 동부 구릉지의 헤이와 공원과 나고야 성, 아쓰타 신궁, 도쿠가와 미술관 등이 있다. 호텔은 시내 AU호텔 또는 그린호텔을 이용한다. 메트로폴리탄 골프장에서 이세완 골프장까지는 차량으로 10분 거리다.



◇하나투어, 세부에서 즐기는 스쿠버다이빙 = 하나투어가 세부 오픈워터 자격증(스킨스쿠버 다이빙을 위한 필수 자격증) 취득 상품을 출시했다.

3박5일 일정으로 필리핀항공을 통해 출발하며 가격은 109만9000원이다. 왕복항공료와 각종 TAX, 미팅비, 오픈워터 자격증 취득코스, 여행자보험(1억원), 다이브 리조트 숙박, 일정상 식사 등이 포함되며, 필리핀 현지 항공세, 센딩비, 유류할증료(14만8200원)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오픈워터는 스쿠버 다이빙의 재미를 알아가는 과정으로 바다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기 위한 필수 코스다.

오상민 기자 golf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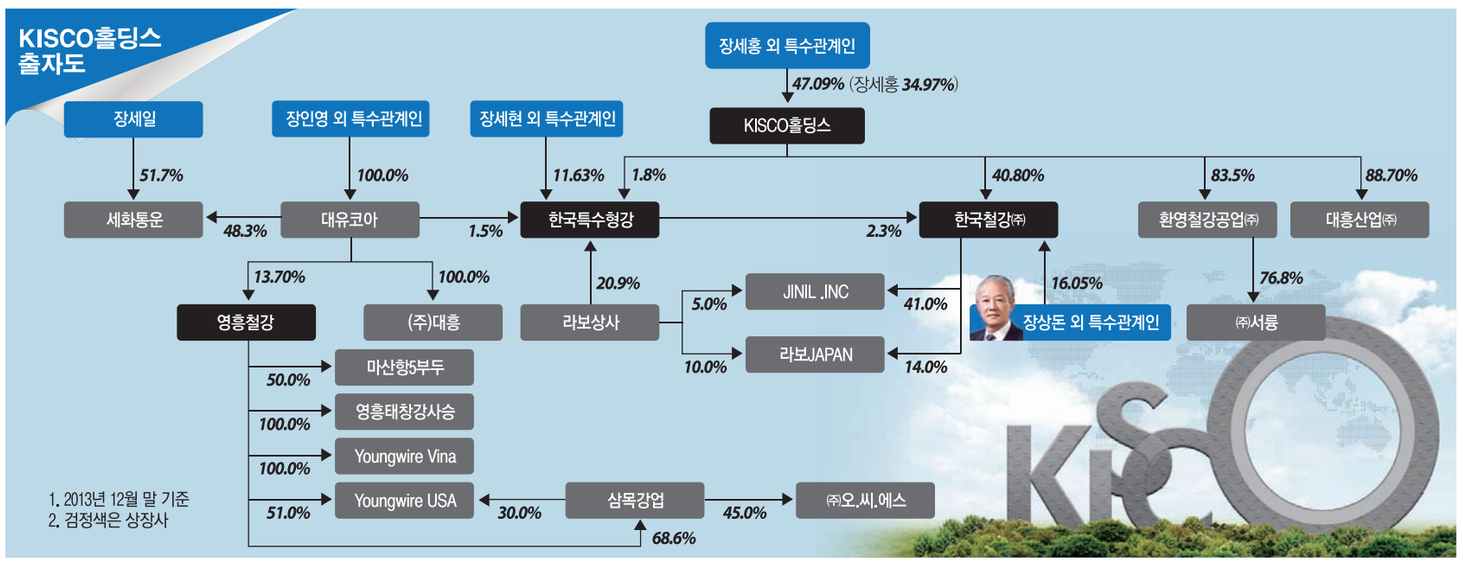


장세홍 전무, 키스코홀딩스 34.97% 최대주주

〈장상돈 한국철강 회장 차남〉

2001년 동국제강그룹서 분리
2008년 인적분할 지주사 전환
모기업 한국철강株 40.8% 보유

또다른 핵심사 '한국특수형강'
장남 장세현 대표 6.38% 보유
삼남 물류 총괄… 2세경영 속도



73 키스코그룹

KISCO(한국철강) 그룹은 동국제강그룹 계열사였던 한국철강을 중심으로 2001년 독립한 기업집단이다.

장상돈 KISCO그룹 회장은 동국제강그룹 창업주인 장경호 회장의 6남이다. 2001년 동국제강 그룹이 계열분리하면서 독자 출범했다. 2002년부터 공격적으로 M&A를 펼치며 외형을 확장하고 제품 포트폴리오를 다양화시켰다.

지주사로 출범한 뒤 2010년 장상돈 회장은 지분을 손자들에게 모두 증여하고 등기이사에서 내려왔다. 2세 경영 체제로 전환된 뒤 3세 경영을 위한 작업도 진행되고 있다.

◇한국철강 지분 홀딩스가 40.81% 보유 = 한국철강은 2008년 9월 인적분할을 통해 지주회사 KISCO홀딩스와 한국철강 두 회사로 분리했다.

국내 대부분의 재벌들은 계열사 간 순환출자, 상호출자 등으로 지분관계가 복잡한 반면 한국철강은 지배구조가 단순해 쉽게 지주회사를 만들 수 있었다.

그룹은 지주회사인 키스코홀딩스와 철강계열인 한국특수형강, 물류계열인 세화통운 등으로 나뉜다. 키스코홀딩스와 인적분리된 한국철강은 키스코홀딩스가 40.81%의 지분을 갖고 있지만 장상돈 회장과 장세현 대표, 장 대표가 이끄는 한국특수형강이 대주주로 있다.

키스코홀딩스는 지난해 말 현재 한국특수형강(1.8%), 한국철강(40.8%), 환영철강공업(83.5%), 대흥산업(88.7%)을 계열사로 거느리고 있다. 최근 2년 사이 지분율에 큰 변화는 없지만 지배구조에는 변화가 생겼다.

한국철강이 지분을 갖고 있는 JINIL.INC(41%)와 라보JAPAN(14%)에 라보상사가 각각 5%, 10% 출자했다. 라보상사는 운송업과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는 비상장사로 장세현 대표가 지분 100%를 갖고 있다. 해외법인뿐 아니라 한국특수형강 지분도 20.9%를 갖고 있다.

대유코아는 장 회장의 딸 인희씨, 인영씨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로, 대흥(100%)을 자회사로 두고 있었는데 2013년 말 기준 영흥철강에 지분 13.7%를 출자했다. 2011년까지 세화통운은 마산항제5부두(50%), 평리머티리얼(89.41%), 영흥철강(52.52%)을 두고 있었는데 이들 역시 이동됐다.

2013년 말 기준 영흥철강이 마산항5부두(50%), 영흥태창강사승(100%), Youngwire Vina(100%), Youngwire USA(51%), 삼목강업(68.6%)을 거느리고 있다. 그룹 내 계열사들을 이동하면서 지배구조가 더 단순해졌으며, 2세들이 맡고 있는 사업별로 재편된 것으로 분석된다.

◇철강은 장남, 물류는 3남이 담당… 3세도 지분 증여 = KISCO그룹은 지주사 출범 후 빠르게 2세 경영구도를 잡았다. 지주사인 KISCO홀딩스는 차남 장세홍 전무, 한국특수형강은 장남 장세현 한국특수형강 대표이사, 영흥철강과 세화통운은 3남 장세일 영흥철강 이사가 맡고 있다. KISCO홀딩스 최대주주는 지분 34.97%를 소유한 장세홍 전무다. 장 전무 외 특수관계인까지 포함하면 지분율은 47.09%로 올라간다.

그룹의 핵심사는 한국철강과 한국특수형강이다. 한국철강은 동국제강그룹에서 분리 후 외환위기로 은행관리나 법정관리 중이던 철강관련 업체들을 차례로 헐값에 인수했다.

전기로업체인 환영철강공업은 2002년 그룹 품에 안겼는데, 이로 인해 한국철강의 철근시장 지배력이 커졌다. KISCO그룹은 꾸준한 M&A로 단기간에 형강, 마봉강, 와이어로프, 경강선, 특수강 등 다양한 전기로 철강제품에 진출했다.

이 두 회사는 장남 장세현 대표가 지분을 갖고 있다. 모기업인 한국철강의 개인 최대주주는 지분 11.73%를 갖고 있는 장상돈 회장이며, 장세현 전무 3.43%, 장녀 인희씨 0.71%, 부인 심금순 여사가 0.18%를 갖고 있다.

한국특수형강은 장세현 대표가 지분 6.38%를 보유하고 있어 개인 최대주주다.

눈에 띄는 점은 장세현 대표의 자녀들 지분이다. 딸 윤서(만 20세)양과 아들 의익(만 14세)군은 지난 2010년 장상돈 회장으로부터 지분을 증여받았다. 의익군은 지분 9.44%를 증여받았는데 물납분을 제외하면 실제 갖고 있는 지분율은 5.25%이며, 윤서양은 지난해 3년 만에 한국특수형강 주식 1022주를 사들여 지분율이 0.04%에서 0.1%로 늘었다.

장상돈 회장의 3남 장세일 이사는 세화통운 지분 51.7% 보유하고 있다. 세화통운은 수출입 화물의 항만 하역 및 운송업체로, 장 이사가 물류부문을 총괄하고 있다. 딸 인영·인희씨는 2001년 4월 설립된 공업용가스 제조 및 광산물 채굴업체인 대유코아 지분을 각각 41.67%씩 보유하고 있다.

황윤주 기자 hyj@

다음 회는 풍산그룹

실적부진에도 오너家 여인들 배불린 '대유코아'

장 회장 부인·두 딸 100% 소유… 내부거래 비율 44%
작년 매출 2% 줄었는데 배당금은 10%나 늘어 27억

KISCO그룹의 비상장사 대유코아가 지난해 실적은 감소했지만 배당금은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순익은 감소하고 배당금은 늘어나 자연히 배당성향은 2012년 56.48%에서 92.76%로 커졌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대유코아는 2013년 총 27억438만원을 배당했다. 이는 2012년 24억7258만원보다 약 10% 증가한 규모다. 대유코아는 연 2회 배당을 실시한다. 배당금이 증가한 것은 연차배당금이 대폭 늘었기 때문이다.

지난해에는 중간배당으로 1주당 6500원씩 총 20억897만원을 지급했다. 2012년 23억1804만원(1주당 7500만원)보다 감소했다. 그러나 연차배당이 2012년 1억5453만원(1주당 500원)에서 2013년 6억9541만원(1주당 2250원)으로 늘었다.

대유코아는 2001년 4월 설립된 공업용 가스의 제조 및 광산물 채굴업체이다. 주주를 보면 장상돈 키스코그룹 회장의 딸 인영씨와 인희씨가 각각 지분 41.67%를, 부인 신금순 여사가 16.66%를 보유한 오너가 소유회사다.

지분율에 따라 배당금은 모두 장 회장의 딸과 부인에게 지급된다. 회사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매출을 보이는데, 내부거래가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대유코아는 2012년 내부거래 비율이 49%에서 2013년 44%로 5%p 낮아졌다.

내부거래 비율이 낮아지자 매출도 276억8564만원으로 2012년 대비 2% 하락했다.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각각 24억1237만원, 29억1543만원으로 31%, 34% 떨어졌다. 대유코아는 계열사를 통해 돈을 벌고, 번 돈은 장 회장의 가족으로 들어가는 셈이다. 지난해에는 순이익이 가장 크게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배당금은 늘렸다.

한편 대유코아는 부동산 임대업체인 (주)대흥 지분 100%, 영흥철강 지분 13.7%를 보유하고 있다. 지난해 (주)대흥은 배당하지 않았으며, 영흥철강은 배당금 총 22억1957만원 중 3억408만1000원을 대유코아에 지급했다.

황윤주 기자 hyj@

14년 만의 중소형주 랠리!
차트기법 모르고 투자하지 마라!





저자 부자아빠 (정재호)

SBS CNBC 힐링머니 5-STAR 방송 출연 중
(매주 금요일 밤 10시부터)

매주 수, 일요일 밤 8시 무료 방송진행
(www.88tv.co.kr)

대표전화 : 1661 - 2788

부자아빠의 주식특강 및 추천주 무료로 받기(스마트폰 시청가능)

DAUM 부자아빠 주식학교 검색

Stock premium
www.etoday.co.kr/stockpremium

'다논' 떠먹이다 속 버린 '풀무원홀딩스'

합작사 풀무원다논에 220억 투자…적자만 쌓여
홀딩스도 5년만에 첫 적자 기록… 120억 순손실



풀무원홀딩스가 유제품 시장 진출을 위해 설립한 합작사 풀무원다논이 그룹의 전폭적인 지원에도 이렇다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18일 풀무원홀딩스 2013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풀무원다논은 지난 2012년 133억원의 손실을 나타낸데 이어 지난해에도 150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했다.

풀무원다논은 지난 2012년 9월 풀무원홀딩스와 다논아시아가 각각 지분 50%를 투자해 설립한 조인트벤처(JV)다. 현재 '액티비아' 등 유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당시 풀무원홀딩스는 155억원을 투자해 지분을 취득했다. 작년에도 56억원을 추가 출자하는 등 총 220억원 가량을 투자했다.

그룹 계열사를 통한 내부거래로 매출도 늘렸다. 풀무원다논의 매출액은 2012년 243억원서 지난해 377억원으로 늘었다. 같은기간 풀무원식품, 풀무원건강생활 등 계열사를 통해 올린 매출도 각각 13억원에서 148억원으로 증가했다. 지난해의 경우 매출의 39.3%를 계열사 매출을 통해 올린 것이다.

매출 증가에도 마케팅 비용 등 판매관리비 증가에 따라 영업손실은 2012년 125억원에서 지난해 147억원으로 영업적자폭이 확대됐다.

지속된 영업적자로 같은기간 당기순손실도 133억원에서 150억원으로 늘었다. 설립 이후 지속된 누적적자로 해소되지 못한 누적손실(이월결손금)은 지난해 말 기준 611억원에 달한다.

문제는 이기간 모회사인 풀무원홀딩스의 수익성도 악화됐다는 점이다. 풀무원홀딩스는 지난해 지주사전환 이후 5년만에 첫 적자전환 했다. 풀무원홀딩스는 지난해 매출액 1조5217억원, 영업이익 464억원을 기록했다. 각각 전년대비 4.4%, 13.4% 증가한 수치다.

그러나 당기순손실은 120억원을 기록하며 지주사전환 후 처음으로 적자로 돌아섰다. 다만 지난해 적자전환은 영업외비용 증가에 따른 일시적 순손실이라는 것이 회사측의 설명이다. 회사측은 "향후 불확실성 제거를 위한 'Pulmuone U.S.A., Inc.(미국)'의 영업권 감액 및 이연법인세 자산 감액(192억), 매도가능금융자산 감액(23억) 등의 일회성 비용 증가에 따른 순손실 전환"이라고 밝혔다.

김미정 기자 mj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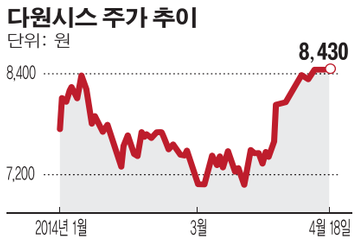
다원시스 "63조 중국 집진설비 시장 진출"

가속기·핵융합장치 등 수주
해외매출·이미지 제고 기대

다원시스가 중국 집진설비 시장에 직접 진출한다. 다원시스가 중국 집진설비 시장에 진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국 집진설비 시장이 63조원에 달하는 만큼 이번 집진설비 시장 진출에 따른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다원시스는 최근 중국의 업체와 집진설비 계약을 체결하는 등 중국 시장에 단독으로 진출한다. 다원시스 관계자 "일정 부분 수주를 받은 것을 포함해 중국 집진설비 시장에 직접 진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원시스 주가 추이
단위: 원



다원시스는 전력용 반도체를 제어해 특수 상황에서 요구되는 수준의 전압, 전류, 주파수 등을 변화시켜주는 기술을 확보하고 있다. 이를 활용해 핵융합발전, 가속기, 플라즈마 형성에 활용되는 특수 전원장치와 전자유도가열장치, 태양광 CVD 장치 등을 생산하고 있다.

특수전원장치 중 핵융합전원 장치는 국가 연구기관에, 플라스마 전원장치는 환경설비 전문업체인 포스코 ICT와 민간기업인 반도체세정장비 제조업체들을 대상으로 제품 공급해왔다.

이를 포함해 중국 집진설비 업체에 전원장치를 납품하는 방식으로 중국 시장에 직접 진출하게 된 것이다.

전문가들은 중국 집진설비 시장이 63조원에 달하는 만큼 실적 향상와 함께 기업 이미지가 증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가속기, 핵융합발전전원장치 관련 매출 지속 국가기관, 민간분야 매출 증가세가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해외 매출 증대에 대한 기대감까지 더해졌다"고 분석했다.

다원시스 관계자는 "이번 진출로 기업에 대한 이미지가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와 함께 중국 시장에 집진기 관심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번 진출을 기회로 수주 물량을 늘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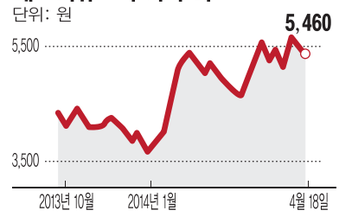
이미정 기자 lmj@



KDB대우증권, 해외선물 MTS 리뉴얼

KDB대우증권은 해외선물거래 전용 MTS인 '스마트네오 글로벌'(Smart Neo Global)을 새롭게 개편하고 안드로이드폰은 물론 아이폰에서도 서비스를 시작했다. 모든 모바일 환경에서의 해외선물 매매와 뱅킹서비스가 가능하게 됐고 파워뉴스 서비스를 통해 해외지표, FX실시간 뉴스 등을 빠르게 조회할 수 있다.

에스티큐브 주가 추이
단위: 원



에스티큐브 주요주주에 버진아일랜드 법인 등재 적대적 M&A 위협받나

항암제 신약 연구개발 전문기업 에스티큐브의 주요주주에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법인인 애니메이션 인터내셔널 홀딩스(ANIMATION INTERNATIONAL HOLDINGS LIMITED)가 이름을 올렸다. 실질적인 투자자는 일본계 홍콩인으로 KGI Asia Ltd를 통해서 이미 에스티큐브 지분 상당부분 보유하고 있어 향후 에스티큐브의 합병절차가 종료되면 최종 지분 9.56%를 보유하게 된다.

1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애니메이션 인터내셔널 홀딩스(AIH)는 지난 16일 에스티큐브 주식 77만7000주 전체 지분의 6.49%를 보유하고 있다고 공시했다. 이는 지난해 9월 에스티큐브가 운영자금 조달을 위해 30억3000만원 규모의 제3자 방식의 유상증자를 통해 발행한 것이다. 이를 위해 에스티큐브는 홍콩 현지에서 IR을 개최하는 등 공을 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애니메이션 인터내셔널 홀딩스는 홍콩증권거래소(Main Board) 상장돼 있는 법인으로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국적을 두고 애니메이션 콘텐츠의 생산 및 유통, 저작권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다.

현재 에스티큐브의 최대주주는 정현진 에스티큐브 대표이사가 100% 보유한 바이오메디칼홀딩스로 12.62%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바이오메디칼홀딩스는 지난 지난 1월 기존 최대주주인 박병수로부터 에스티큐브 주식을 155만8000주, 총 100억원 규모의 주식을 인수해 에스티큐브의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이후 지난 4월 10일 에스티큐브는 정 대표가 대표이사로 있는 바이오메디칼홀딩스를 흡수 합병한다고 밝혔다.

이에 오는 7월 합병이 마무리되면 에스티큐브의 최대주주는 정 대표가 100% 보유한 바이오사이언스홀딩스(11.39%)가 되며 AHI Ltd.(5.27%), KGI Asia Limited(4.29%), 자기주식(10.90%), 정 대표 및 특수관계인(1.66%)가 된다.

주목할 만한 점은 합병 후에 AHI지분이 실질적으로 9.56%에 달해 최대주주측 지분인 13.05%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회사 측은 "실질적으로 두 주주의 소스는 같지만 우호지분"이라며 "주요 주주로서 외국계 자본이 장기 투자자로 들어와 있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김희진 기자 heejin@

산성앨엔에스, 골판지 사업 부진 '골머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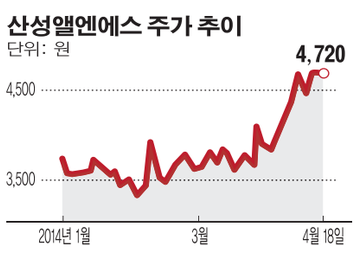
높은 매출원가에 '발목'
영업손실 18억 적자전환

산성앨엔에스가 주력사업이 부진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새로 시작한 화장품사업은 영업이익이 6배 이상 증가한 반면 주력사업인 골판지사업은 적자전환했다.

1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산성앨엔에스는 2013년 당기순손실이 45억4418만원에 달했다. 이는 2012년 27억204만원보다 69% 급증한 규모다. 영업이익도 7억8050만원에서 5억8707만원으로 25% 감소했다. 그러나 매출액은 634억6556만원으로 2012년 539억8097만원보다 늘었다.

산성앨엔에스는 1986년 설립된 골판지 제조 및 판매업체다. 2011년 리더스코스메틱을 흡수합병해 화장품 사업도 병행하고 있다. 지난해 손실 규모가 커진 원인은 주력사업인 골판지 영업이 신통치 않았기 때문이다.

산성앨엔에스 주가 추이
단위: 원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제무제표를 보면 골판지사업 부문은 2012년 영업이익 3억5032만원에서 2013년 영업손실 18억2144만원으로 적자전환했다. 순손실 폭도 30억8863만원에서 67억2332만원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골판지사업에서 부진을 보이는 것은 매출원가 때문으로 풀이된다. 골판지사업의 매출액은 2012년 461억2351만원에서 468억3680만원으로 1.5% 늘었는데 매출원가는 5.7% 상승했다.

반면 화장품사업부는 1년새 놀라운 성장을 보였다. 영업이익 4억원에서 24억원으로, 당기순이익은 3억원에서 21억원으로 급증했다. 화장품은 매출원가가 상대적으로 낮고 변동폭이 적기 때문에 판관비가 지나치지만 않다면 마진율이 일정 수준 유지되는 사업이다. 특히 해외에서도 매출이 증가하고 있어 고무적이다. 지난해 중국에서 올린 매출이 52억3117만원에 달한다.

한편 산성앨엔에스는 지방줄기세포 및 고기능 단백질을 연구 및 화장품 도소매 업체인 프로스테믹스를 자회사로 두고 있다. 전일 프로스테믹스는 재무구조 개선 및 운영자금 확보를 위해 산업은행과 에프웍스 주식회사를 상대로 25억원의 유상증자를 결정했다.

황윤주 기자 hyj@

공시돋보기

우리손, 이지바이오 120만주 매각 상호출자 해소하고 31억 시세차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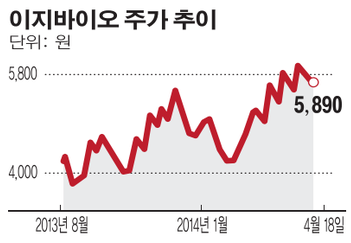
이지바이오 자회사인 우리손홀딩스가 이지바이오 120만주를 매각해 상호출자 해소와 31억원에 달하는 매각차익을 거뒀다. 우리손홀딩스가 거둔 수십억 매각차익은 이지바이오 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1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이지바이오는 우리손홀딩스가 보유주식 123만1855주(2.63%)를 전량 장내매도했다고 밝혔다. 23만5299주는 지난 9~10일에 걸쳐 장내에서 팔았으며 99만6556주는 키움증권과 키움인베스트먼트에 시간외거래로 팔았다.

이지바이오는 이번 지분매각으로 상호출자를 해소했으며 우리손홀딩스는 3180원에 인수한 주식을 5690원에 팔아 31억원의 수익을 거뒀다.

우리손홀딩스가 매각한 주식은 지난 2011년 4월 당시 이지바이오 부회장이었던 최상열씨로부터 넘겨받은 것이다. 최 부회장은 이지바이오 설립부터 지원철 회장과 함께한 인물로 다수 계열사 임원을 겸직하기도 했으며 최 부회장이 회사를 관두면서 우리손이 최 부회장 소유 주식을 인수했다.

이지바이오 주가 추이
단위: 원



문제는 이지바이오의 완전 자회사인 우리손홀딩스가 모회사인 이지바이오 지분을 2% 보유함에 따라 상호출자 관계에 놓이게 됐다는 점이다.

이지바이오는 2011년 1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지주회사 요건을 충족해 같은 해 6월 지주회사로 전환됐다고 공시한 바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지주사는 설립 후 2년 이내에 상호·순환출자 구조를 해소해야 한다. 조남호 기자 spdran@

너만 믿는다… '뽀로로'~!

디올메디바이오 "뽀로로테마랜드 참여… 수익성 개선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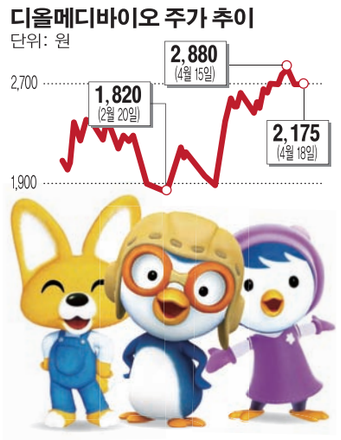
디올메디바이오가 의정부시 뽀로로 테마랜드·패밀리호텔 조성사업에 나선다. 사업다각화를 통해 수익구조를 다변화할 수 있는 호기로 보고 회사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특히 지난해 신규 바이오사업 투자로 실적이 크게 악화된 만큼 수익성 개선에서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의정부시에 따르면 산곡동 396 일원 56만3000㎡ 규모의 개발제한구역 지역 현안사업부지내에 신세계사이먼 프리미엄 아울렛에 이어 뽀로로 테마랜드와 패밀리호텔을 조성할 계획이다.

지난달 12일 신세계사이먼과 프리미엄 아울렛 조성에 대한 투자의향서를 체결한 데 이어 18일에는 GMG·아이코닉스와 패밀리호텔 및 뽀로로 테마랜드 조성에 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예정이다.

GMG는 디올메디바이오와 골프매니지먼트가 합작으로 설립된 호텔경영회사로 1만㎡(약 3000평)의 규모로 가족중심의 숙박을 통해 여가, 실내골프, 키즈파크 등 복합 문화시설을 이용하면서 즐길 수 있는 체류형 가족 테마 호텔을 조성할 계획이다. 아이코닉스는 5만㎡ 규모의 뽀로로 테마랜드를 조성한다.

디올메디바이오 주가 추이
단위: 원



디올메디바이오 관계자는 "프리미엄 아울렛, 뽀로로 테마랜드와 연계한 이번 사업은 실적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채용 기자 mywish73@

한라, 회사채 상환 위해 80억 CB발행

만기도래 800억 중 80%는 신속인수제로 차환

한라가 만기 도래하는 사채를 막기위해 전환사채(CB)를 발행했다.

1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한라는 운영자금 마련을 위해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CB) 80억원을 발행했다. 같은 날 800억원 규모의 회사채가 만기도래했는데 이중 80%는 회사채신속인수제를 통해 차환하고 CB발행을 통해 남은 금액 중 절반을 마련한 것이다. 한라는 대우증권, 삼성증권, 미래에셋증권, 우리투자증권, 현대증권 등을 통해 각각 16억원씩 전환사채를 발행했다.

한라 신용등급은 BBB로 회사채 발행이 생각처럼 쉽지 않자 일정 이득을 보장하는 전환사채로 자금조달에 나선 것이다.

한라는 이달 30일에 20억원 규모의 기업어음이 만기가 돼 돌아온다. 또한 1년 이내에 갚아야 하는 단기차입금은 3289억원이며 유동성으로 대체된 장기차입금도 2594억원에 달한다. 즉 올해 안에 6600억원에 달하는 은행차입금 상환해야 하는 것이다. 유동성이 좋지 못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은행과 상의해 만기를 연장시킬 가능성이 높다.

김현정 기자 khj@

국민을 먼저 생각합니다

때맞춰 알맞게 내리는 반가운 비
시우(時雨)처럼

필요한 순간
국민 모두에게
힘이 되는 금융이 되겠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국민의 금융이 되겠습니다



'시우(時雨)금융'이란 때맞춰 알맞게 내리는 비처럼
필요할 때 고객에게 힘이 되겠다는 KB금융그룹의 철학입니다

KB 국민은행
KB 생명
KB 저축은행
KB 신용정보
KB 국민카드
KB 자산운용
KB 부동산신탁
KB 데이타시스템
KB 투자증권
KB 캐피탈
KB 인베스트먼트

KB 금융그룹